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찾아보기

- 가 「고분벽화를 통해서 본 고구려 여성의 역할지위」, 『고구려연구』 제17집, 고구려연구회, 「덕흥리벽화고분 피장자의 국적문제」, 『한국상고사학보』 22, 한국상고사학회, 1996.  
「고조선의 국가형성」, 『한국사』 4, 1997.  
「『삼국유사』 내 주몽의 출가기사를 통해 본 국가계승의식」, 『제4회 삼국유사 학술세미나 『삼국유사』 체제에 보이는 고대사인식』, 2004.
- 나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고구려의 대외관계」, 『동방학지』 44, 1984.  
「5세기 금석문에 보이는 고구려인의 천하관」, 『한국사론』 19, 1988.  
「삼국시대의 ‘부’에 관한 연구 - 성립과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사론』 2, 1974.  
「연개소문과 김춘추」, 『한국사시민강좌』 5, 일조각, 1989.  
『고구려사 연구』, 세계질, 1999.
- 다 「고구려 초기의 양맥과 소수맥」, 『한국고대사 연구』 25, 2002.  
「고구려 초기 나부통치체제의 성립과 운영」, 『한국사론』 27, 1992.
- 다 「현대 중국의 변강·민족인식과 “동북공정”」, 『역사비평』 2003년 겨울호.  
『고구려의 대외정복 연구』, 2000.  
「후기의 정제 변동」, 『한국사』 5, 1996.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2004.
- 마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세계질출판사,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살림, 2004.  
「고고학상으로 본 고구려의 한강유역 진출과 백제」, 『백제 연구』 28, 1998.  
「고구려토기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한강유역 고구려토기 연구」, 『한국고고학보』  
『역주고대금석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바 「현대 중국의 변강·민족인식과 “동북공정”」,

## 사진 협조

### 고구려연구재단

환도산성(2), 국내성(2), 태왕릉(3), 보수 후 국내성 성벽(17), 혼강에서 바라본 오녀산성(19), 태자해(35), 관구검 기공비(51), 복원된 태왕릉(53), 백암성(67), 낭당산성(70~71), 호로고루 성벽(80), 모두루묘(86), 환도산성(89), 봉황산성(96), 말갈 토기(127), 온달 산성(147), 아차산성(147), 음마지(205)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集安市博物館

명분 동종과 등자(165), 고구려의 부뚜막(169)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고구려의 활과 화살(32), 기병 모형도(65)

### 사계절출판사

광개토대왕릉비(3, 102), 1~2세기 고구려군의 활동(35), 현도군의 위치 변화(41), 고구려의 영토 확장(62), 영승 유적(124~125), 고구려와 수나라와의 전쟁(219), 고구려와 당나라와의 전쟁(221)

### 심환근(시몽 포토 에이전시)

보수 전 국내성 성벽(17), 환인현 오녀산성 전경(19), 오녀산성과 비류수(30~31, 122~123), 오녀산성에서 바라본 혼강(42~43), 집안시에 있는 국동대혈(47), 광개토대왕릉비(58), 장군총(60~61), 백암성(78~79), 용담산성(84~85), 중원 고구려비(104), 비류수(120~121), 백두산(131), 송화강(131), 옥정산 유적(154~155), 산성하 고분군(158~159), 장군총 관대(165), 장군총의 배총(166), 평양성 내의 성북문(216), 영성자 산성 전경(224~225), 백암성 성벽(225), 백두산(228~229), 압록강(244~245)

### IKONOS 위성 영상

고구려 집안 지역 항공 사진(2~3)

### 정신문화연구원

광개토대왕릉비 탁본(13), 모두루묘지(15), 경주 노서동 고분군(98), 청동 호우(98)

### 최종택(고려대학교)

나팔입 항아리(108), 보루 분포도(109), 보루 전경(110), 아차산 4보루(111, 113, 114), 고구려 토기(115), 연꽃무늬 수막새(116), 보루 복원도(117, 118)

### 한국안보교육협의회

동명왕릉 널방(21), 안학궁 터(95), 동명왕릉(163)

# 일러두기

1. 이 책은 한국사, 한국민족, 한국민족문화의 출발점이자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고조선과 단군 및 부여 관련 문제를 역사학과 고고학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다룬 일종의 개설서이다.
2. 이 책은 고조선, 단군, 부여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였다.
3. 이 책은 대중성과 홍보성 외에 학술성까지를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대중성과 홍보성을 위해서는 '쉬운 글쓰기', '간결한 문체', '사진과 그림의 적절한 배치'를, 학술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이면서도 빠짐없는 글쓰기', '최신 성과의 반영', '논증성의 배합', '다양한 주제의 소화' 등을 시도하였다.
4. 이 책은 일반의 대중성과 공공의 학술성을 지향하는 일종의 복합적 성격의 종합서이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집필자 개인의 견해를 억제하고, 학계에서 최소한의 합의를 보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균형감 있게 서술하고자 노력하였다. 단, 집필자의 의지가 강하여 일정한 선을 넘을 경우에도 이 또한 우리 학계의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대로 실었다.



5. 이 책은 크게 고조선, 단군, 부여의 세 주제로 편제되었고, 각 주제별 항목 수는 중요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조정하였다. 고조선뿐만 아니라 단군, 부여 모두가 한국사, 한국민족, 한국민족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작업이 밑거름이 되어 이후에는 각각의 주제가 독립된 단행본으로 나오게 될 것을 기대한다.
6. 이 책은 대중성을 담보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한글만으로 표기하였고, 지명, 책명, 인명 등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글(한자)의 방식으로 한자를 병기하였다.
7. 이 책의 말미에는 집필자들이 각 항목을 집필하는 데 참고한 문헌들을 자료 성격에 따라 고전 자료와 현대 자료로 크게 분류한 다음, 고전 자료는 편찬 국가에 따라 한국, 중국, 일본순으로, 현대 자료는 문자에 따라 한글, 중문, 일문순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제시된 참고 문헌들은 현재 우리 학계에서 각 주제별 항목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읽히고 있으면서 영향력도 큰 것들이므로, 앞의 본문과 함께 일반인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고조선·단군·부여’를 발간하며

고조선, 단군, 부여는 한국사, 한국민족, 한국민족문화와 관련한 논쟁이 있을 때마다 가장 첫머리에 떠올러지는 우리 민족의 화두와 같은 존재입니다. 즉, 고조선은 우리 민족이 역사상 처음으로 세운 국가라는 점에서, 단군은 우리 민족의 시조이자 고조선의 건국자로 기억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여는 한국사의 기본 줄기를 고조선에서 삼국으로 이어주는 중간 고리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과 의미에도 불구하고 고조선, 단군, 부여는 21세기를 맞이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여전히 쉽지 않은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 문제가 역사시대가 아닌 원사시대, 심지어 고조선 중 상당 부분은 역사시대를 넘어선 선사시대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단군은 역사적 성격의 전승이 아닌 신화의 형태로 전승되고 있기에 많은 해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고조선, 단군, 부여를 풀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시대와 주제를 연구할 때보다 많은 노력과 끈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좁고 한정된 시야와 방법론을 벗어나 역사학뿐만 아니라 고고학, 인류학, 언어학, 민족학 등이 결합된 종합적인 방법론에 의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민족문화의 기원과 형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과의 비교 또한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동안 우리 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인식 아래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고조선, 단군, 부여를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고조선은 청동기시대 요하 유역을 공간 범위로 하며, 특히 준왕의 조선과 위만 조선 대에는 평양에 중심을 두고 있었는데, 요하 유역의 비파형동검문화와 대동강 유역의 세형동검문화가 고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문화로서, 이러한 고조선문화가 이후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의 한국 고대문화 형성의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밝혀 내게 되었습니다.

또, 단군신화는 고려 후기의 몽고 침입이라는 민족적 위기와 불교의 성행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역사적인 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채 작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고조선 대에 왕(단군왕검)을 중심으로 한 지배 집단이 자신들의 권위를 신격화시킴과 동시에 국가를 통합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장치로서, 형성되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 Prologue

부여는 기원전 2세기에 지금의 길림시를 중심으로 제2송화강 중류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던 예맥족과 그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건국되었고, 왕성이 전기에는 길림에, 후기에는 농안에 위치하였으며, 기원후 494년 대다수의 구성원이 고구려에 흡수되는 가운데 일부가 북쪽으로 옮겨가 부여의 후신으로서 두막루를 형성하였다는 것 등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고조선, 단군, 부여는 한국사, 한국민족, 한국민족문화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는 비학술적·정치적 이유에서 고조선과 부여를 한국사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중국의 한낱 속국이자 지방 정권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엄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학문이고, 역사 연구는 냉정한 논리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구려연구재단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과 인식하에 우리의 시각과 연구를 다시 한 번 점검함과 동시에, 그 동안 우리 학계에서 이룩한 성과를 국민들이 간편하면서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이번에 ‘고조선·단군·부여’라는 국민 홍보용 단행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작업을 통하여 관련 연구가 더욱 진작되기를 바라며, 또 이들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성원과 관심도 제고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원고를 주신 노태돈, 서영대, 박경철, 이청규, 조법중, 송호정, 오강원, 박준형, 박선미 선생님과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안에서 여러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재단의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적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는 원고를 이와 같이 훌륭하게 성취하여 주신 대한교과서주식회사의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구려연구재단 이사장

손오탁

## 차례

### 고조선



- 왜 고조선인가 110
- 고조선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116
- 선사와 역사가 만나는 곳, 고조선 122
- 고조선은 언제 어디에 있었을까 129
- 고조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137
- 고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45
- 신화 속에 그려진 고조선 154
- 동북공정 속에 그려진 고조선 162
- 풀어야 할 과제들 168

### 단군



- 단군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180
- 신화가 들려주는 단군 이야기 187
- 단군 사실을 전하는 기록들 196
- 신화 속의 단군 1104
- 신화 속의 전설, 기자와 기자조선 1111

## 부 여

우리에게 부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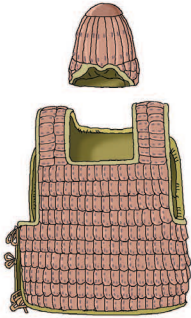
신화가 들려주는 부여 건국 이야기 | 127

부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 135

부여의 나라와 사회 | 142

부여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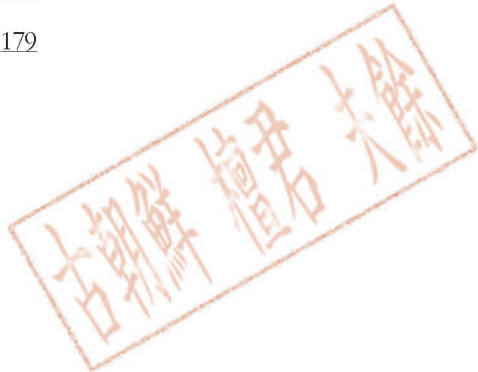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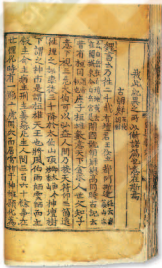
또다른 부여 동부여와 작은 부여 두마루 | 163



## 부 록

참고 문헌 | 174

사진 협조 | 179





# 朝鮮

고려사재단  
KORYŌ FOUNDATION

# 고조선

왜 고조선인가

고조선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선사와 역사가 만나는 곳 고조선

고조선은 언제 어디에 있었을까

고조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고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신화 속에 그려진 고조선

동북공정 속에 그려진 고조선

풀어야 할 과제들



# 왜 고조선인가

노태돈 | 서울대학교 |

古  
朝  
鮮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첫 부분에는 “조선 유민(遺民)이 각 지역에 나누어 거주하여 6촌을 이루었으니, …… 이것들이 진한 6부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고조선 유민들이 남으로 내려와 6촌(부)을 형성하였고, 이것들이 신라의 모체가 되었다는 것이다. 「신라본기」에 기술한 내용이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다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간 영남 지역 각지에서 고조선계의 세형동검문화 유적이 발견되고 있어, 고조선 유민들이 진·변한의 성장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끼쳤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런 면은 비단 진·변한의 경우에만 한정된 현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의 기록에서 유의되는 또 하나는 고조선-신라로 이어지는 계승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삼국 중 신라가 정통이라는 의식을 나타내기 위한 서술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고조선과의 연결에서 찾아 강조한 점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고조선 계



한국 출토 세형 동검



『제왕운기』에 실려 있는 고조선, 단군에 관한 기록

승 의식은 그 뒤 사서에서는 한국 고대의 모든 국가와 종족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즉, 몽고와의 항쟁기 때인 13세기에 쓰여진 책으로 여겨지는 『단군본기(檀君本紀)』에서는 고구려, 신라를 비롯한 삼한 70여 국은 모두 단군의 후예라고 하였고, 이런 의식을 이어서 그 이후 사서에서는 고조선을 기원으로 한 단일 체계로 우리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서는 동포 의식과 결합하여 단군이 민족의 상징으로 널리 받아들여짐에 따라 고조선을 우리 역사의 기원으로 여기는 인식이 한국인의 역사 의식의 기저에 깊숙이 자리잡게 되었다.

물론 한국 고대문화가 모두 고조선에서 비롯한 것은 아니며, 고조선이 고대의 조선(한국) 전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고조선은 고대한국에 존재하였던 여러 국가나 집단 중의 하나일 뿐이다. 또, 고조선의 문화에서 불변하는 한국문화의 원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문화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끊임없이 새로이 생성되고 변화하며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만큼 한국문화의 기원을 고조선에서만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고조선은 한반도와 남만주 지역에서 형성된 가장 이른 시기의 국가였다. 고조선의 청동기문화는 황하 유역의 북중국 청동기문화나 유목민의 오르도스식 청동기문화와 차이나는 개성적인 면모를 지녔다. 한편, 고조선은 기원전 3세기 초 서쪽의 연나라와 무력 충돌을 하였고, 이어서 기원전 2세기 초에는 북중국 방면에서 흘러들어온 이주민 집단의 우두머리인 위만에 의해 왕실이 교체되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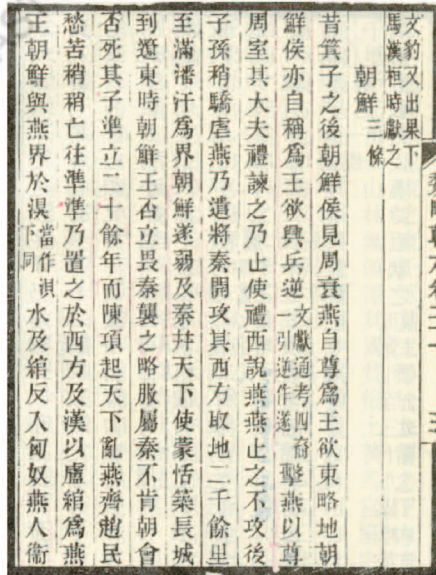
조선 사회는 철기문화를 수용하여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였으나, 기원전 108년 한 제국의 침공으로 멸망하였다. 이후에도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조선 유민과 그 문화는 인근의 여러 종족 집단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면은 곧 기원전 2세기 때까지 동북아 지역에서 고조선이 가장 앞선 사회였고, 이 지역에서 진행된 일련의 변화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달리 말하면, 이는 한국문화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고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가장 주요한 부분임을 뜻한다.

민족은 과거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역사공동체이다. 특히, 그 기원에 대한 기억의 공유는 역사공동체의 가장 주요한 토대가 된다. 그런만큼 고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합리적인 인식이 한국인의 정체성 형성에서 지니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분단 국가의 통일은 점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경우, 남북한이 하나의 역사공동체로 존속해 왔다는 사실이야말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통일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확신시켜 주는 가장 주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고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지니는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그간의 연구 성과는 만족할 만한 것이 못 되었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조차 불분명한 것이 많고, 상이한 이해 방향을 나타내는 부분도 적지 않다. 가령, 고조선국가의 성립 시기에 대해 『삼국유사』에서는 요(堯) 즉위 50년 뒤인 경인년(庚寅年)이라 하였고, 『동국통감(東國通鑑)』에서는 요 즉위 25년 뒤인 무진년(戊辰年)이라고 하였다. 단군 기원은 후자를 택해 단기 원년을 기원전 2333년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요의 즉위년을 절대 연대로 처음 계산해 낸 사람은 송나라의 소강절(邵康節, 1011~1077)이었다. 그가 산출한 요의 즉위년은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객관적인 근거를 지닌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중국 사학계에서 이를 믿는 사람은 없는 형편이다. 요 자체가 신화상의 인물일 뿐이다.

그러므로 기원전 2333년이라는 단군 즉위 원년은 절대 연대로서의 의미는 없다.



『위략집본』의 고조선 관계 기사

단군이 요와 같은 시기에 즉위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삼국유사」 등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 나라가 중국과 대등한 시기에 건국된 유구한 역사를 지닌 나라임을 나타내는 데에 있다. 오늘날 의미를 지니는 것은 그 절대 연대가 아니라 당시인들이 내세우려 한 의식이다. 그것의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고조선국가 형성 시기를 파악하는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여야 할까? 이에 관한 문헌 자료는 더 이상 없으므로 고조선의 중심지에서 발굴되는 유적·유물을 통해 추단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고조선 중심지의 위치에 대한 그간의 연구를 보면, 시종일관 중국의 요령성 지역에 있었다는 설, 평양에 있었다는 설, 요하 유역에서 평양 지역으로 이동하였다는 설 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논란은 이미 조선 후기 실학자들 사이에서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아직도 그에 대한 확실한 정설이 세워져 있지 않다. 이에 관한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는 한반도와 요동 지역뿐만 아니라 서부 만주와 내몽고 동부 지역의 신석기 및 청동기시대의 유적·유물에 대한 광범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렇듯 고조선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아직 분명하지 않고, 또 그것들이 단시일 내에 해결될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매우 높은 반면, 빈약한 연구 성과로 그간 온갖 기발한 주장이나 허상이 난무하였다.

그에 따라 고조선 연구를 통한 공동의 기원에 관한 논의가 한국인의 역사공동체 의식을 심화시켜 주기보다 오히려 민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촉발하는 작용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 사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남북한 학계 간에도 그런 면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태를 지양하고 새로이 연구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연구 인력의 확충,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역사 의식의 함양, 실증에 바탕을 둔 객관적인 연구 등이 요구된다.

한편 고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의 진작은 역사공동체 의식의 함양이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요즈음 외부로부터 가해지고 있는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러면 고조선, 그리고 고조선을 통한 한국사의 왜곡 실상은 어떠한가?

고조선사 연구를 통한 한국사에 대한 왜곡에서 먼저 언급하여야 할 것은 일제 식민주의 사가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고조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였다. 먼저, 한국사에서 청동기시대가 존재하지 않았고, 중국인인 위만 집단의 이주와 정복, 그리고 이어서 한사군의 설치에 의해 비로소 한반도는 금속기 문명의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보았다. 자연히 그 이전 시기는 석기시대이므로 국가의 존재를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군신화는 고려시대 몽고와의 항쟁 때에 민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연구에 대해, 이를 고고학적 발굴 성과의 미흡 등 당시까지의 학문적 수준의 한계에 따른 결과라고만 하기는 곤란하다. 그들은 한국사가 그 고유한 특성으로 주변성, 종속성, 모방성, 당파성 등과 같은 것을 띠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한국사의 전개 무대가 반도라는 데에서 찾았다. 이른바 지정학적 숙명성론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논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로서 위만조선과 한사군의 경우를 들었다. 즉, 한국사의 역명기는 중국 세력의 정복에 의한 식민지로 시작되는데, 이는 그 지정학적인 위치에 의해 불가피한 숙명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한국의 식민지 상태를 역사적으로 합리화하고 이를 영속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였는데, 광복 후 일련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극복되었다.

그런데 근래에 고조선사에 대한 새로운 왜곡이 중국 학계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이번에는 고조선사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고구려사는 중국사이다.’라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고조선사가 중국사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 주장은 다음과 같다.

고구려사의 무대가 고대 중국의 역사 영역이라는 점을 고구려사가 중국사인 이유의 하나로 거론하였다. 즉, 기차조선과 위만조선은 중국인이 조선 땅에 와서 건국한 나라이며, 이어 한(漢) 제국이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설치한 현도군에서 고구려가 일어났고, 낙랑군, 현도군, 요동군, 대방군 등 한 군현이 설치되었던 지역이 고구려 영역의 주요 부



한 군현이 설치되었던 신천의 청산리 토성

분을 이루었으니, 고구려의 건국과 발전은 결국 이러한 중국의 역사 영역을 무대로 해서 전개되었으므로 고구려는 중국사라는 주장이다.

먼저 기자조선에 대해 살펴보자.

기자 동래설의 경우, 기자가 동으로 조선 땅에 와서 왕조를 세웠다면 그는 일단의 무리를 이끌고 왔을 것이고, 그에 따라 요동 지역과 한반도 북부에는 상(商)·주(周) 계통의 청동기 유물이 많이 출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고조선 땅에 정착하여 토착민과 융합해 갔다고 하면, 이 지역의 청동기 유물과 유적에서 상·주 계통 청동기문화의 영향이 상당 기간 동안 작용하였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흔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른바 기자조선에 해당하는 시기에 존재하였던 고조선의 청동기문화는 비파형동검문화에서 세형동검문화로 이어지는 것으로서, 북중국의 상·주 청동기문화와는 계통을 달리하는 것이다. 기자가 조선에 와 임금이 되었다는 기록은 기원전 2세기 후반의 『상서대전(尙書大典)』에 처음 등장하였다. 이는 기자가 살았다는 시기로부터 800여 년 뒤이다. 그리고 『사기색은(史記素隱)』에 기자의 묘가 하남성 몽현(蒙驩)에 있다는 기록도 있어 문헌상으로 볼 때에도 기자 동래설의 사실성은 의문시된다.

그러면 왜 『상서(尙書)』 등 선진(先秦) 문헌에는 전혀 보이지 않다가 기원전 2세기에 와서 그런 기록이 등장하는가에 대해서는 그간 적지 않은 언급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시기에 한 제국이 동방으로 팽창해 나가려 함에 따라 고조선 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그 지역에 대한 역사적 연구권을 설정하려는 의도 등이 작용하여 그런 전승이 만들어졌을 개연성이 크다.

그 다음 위만조선의 경우, 그 국가 구조를 볼 때 중국계 유이민 집단과 토착 고조선계 집단이 함께 참여한 연합 정권과 같은 성격을 지녔다. 이는 중국계 사람과 토착민을 차별하는 이중 구조를 지닌 한사군의 그것과는 다른 면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없이,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을 중국계 사람들의 이주와 정복에 의해 세워진 나라로 파악하여 한반도의 북부와 요동 지역을 중국의 '역사 영역'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토착 주민인 고조선인과 그들의 나라인 고조선을 전혀 도외시하는 것이다.

이런 일부 중국 사학자들의 주장은 앞에서 본 일제 식민주의 사가들의 견해와 의도하는 목적이 서로 다르고, 그 구체적인 내용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고조선인에 의한 고조선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에서는 동일하다. 이 면은, 달리 말하면 고조선이 한국사의 독자성과 동원성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여전히 지니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제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심화시켜 역사공동체의 기반을 튼튼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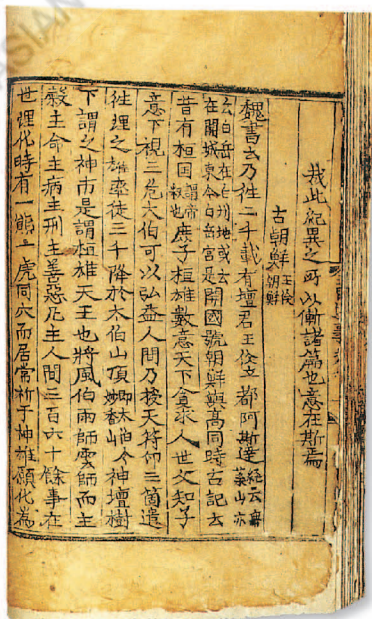
# 고조선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송호정 | 한국고원대학교 |

古  
朝  
鮮

**고** 조선은 한국 최초의 국가이다. 따라서, 한국사에서 국가의 기원과 형성 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사의 첫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고조선사의 의미는 매우 크다. 고조선은 부여, 동옥저, 삼한을 비롯하여 이후의 삼국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의 국가 형성과 정치적 성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고조선사는 우리 민족사에서 초기 국가의 모습과 사회상을 복원하고, 이후 시기인 고대사회의 발전 과정을 복원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할 때, 그것은 말 그대로 '고대조선'의 역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대개 단군왕검이 세운 단군조선과 이후의 기자조선, 그리고 위만이 세운 위만조선이라는 세 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친 것으로 이해한다. 즉, 기원전 108년 한군(漢軍)에 의해 멸망되기까지 존재하였던 '조선' 국가와 그 앞 시기에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었던 중심 집단의 역사를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고조선에 대한 인식은 1392년에 이성계가 중심이 되어 개창한 조선 왕조와 대비되어 그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실려 있는 단군에 관한 기록

이전에 ‘조선’의 칭호를 쓴 나라에 대한 역사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연(一然)은 『삼국유사』에서 이러한 인식과 달리 고조선은 단군왕검이 세운 단군조선(檀君朝鮮, 王儉朝鮮)을 말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조선 시기가 끝날 무렵 단군은 왕위를 기자(箕子)에게 물려주었다고 보아 기자가 세운 기자조선은 고조선 시기에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 고조선 다음 단계에 등장하는 왕조가 위만조선이다. 이러한 인식은 요즈음의 고조선 인식과 다르다. 이는 기본적으로 고려 후기 원(元) 간섭 기라는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나타난 역사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선진(先秦) 문헌인 『관자(管子)』의 기록에 따르면, 고조선이 등장하는 시기는 중국 동북 지방에서 청동기문화가 개화하는 기원전 8~7세기 이후이다. 그렇다면 이 때부터 고조선의 역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마천의 『사기』에는 고조선이 기원전 108년 한 무제의 군대에 의해 멸망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고조선이란 바로 남만주, 즉 중국 동북 지방에서 청동기문화가 개화하여 발전하기 시작하는 기원전 10세기 이후부터 한나라 군대에 의해 기원전 108년에 멸망하는 시기까지의 역사를 말한다. 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고조선사 연구는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통 ‘조선’이라는 말은 ‘아침의 신선함’, 또는 ‘신선한 아침의 나라’로 풀이된다. 이는 한국의 명칭 가운데 가장 오래 된 것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정작 조선이라는 명칭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어디에 살던 누가 ‘조선’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해석과 입장이 전개되고 있다.

‘조선’의 어원을 두고 이미 3세기에 위(魏)의 장안(張晏)은 “조선이라는 명칭은 열수(洌水)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에는 습수(濕水), 열수, 산수(汕水)라는 3개의 강이 있다. 이 강들이 합쳐서 열수가 되었다. 낙랑과 조선이라는 명칭은 이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조선이라는 명칭 자체가 지리적이고 자연적인 특징을 개념화하여 부르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으로,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자구대로 해석하는 방식은 이후 조선시대 학자들에 의해서도 계속되었다.

대표적인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쪽의 해뜨는 곳에 거처하므로 조선이라고 하였다.(『신증동국여지승람』 ‘평양부’ ‘군명(郡名) 조’)

조선의 음은 조산이다. 물 이름으로 인하여 이름을 삼았다. 또 이르기를 선은 밝은 것이다. 땅이 동쪽에 있고 햇빛이 밝으므로 조선이라고 하였다.(『국조보감』, 『동사강목』 「잡기」 ‘조선명칭고’에서 인용)

선은 밝은 것이다. 땅이 동방에 있어 아침 해가 선명하므로 고로 조선이라 했다.〔‘조선고이’, 『동사강목』 「잡기」 ‘조선명칭고’에서 인용〕

그런데 조선 후기의 학자 안정복은 『동사강목』 「잡기」 ‘조선명칭고’에서 이 설들과는 견해를 달리하여 “기자의 땅은 요(遼)나라 땅 태반을 강역으로 했고, 선비의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라고 불렸다.”라고 주장하였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대개 요동에서 한반도에 이르는 지역에 고조선이 존재했고, 그것은 대체로 지리적 특성에 따라 조선이라 불린 것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제시대의 신채호와 정인보는 『만주원류고』에 근거하여 ‘조선’을 만주어의 ‘주신(珠申)’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로 해석하였다. 『만주원류고』에서는 ‘주신’을 ‘소속’이라는 말로 해석했는데, 신채호나 정인보는 ‘소속’의 의미를 ‘관경(管境) 또는 ‘경계’라는 뜻으로 재해석하였다. 이것은 조선을 지명이나 족속으로 해석하는 조선시대 이래의 연구와 상통하는 해석이다. 나아가, 조선과 주신(경계)을 동일어로 보는 해석은 이후에 조선이 음의 유사성 때문에 속신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게 된다.

‘조선’은 우리말을 한문식으로 표기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이도 있다. 이병도는 『삼국유사』의 단군신화 연구를 통해 『기이(紀異)』에 나타나는 “조선은 국가의 이름이며 아사달은 그 나라의 수도”라는 대목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이 말들이 동의어라고 주장했다. 즉, 조선은 ‘아침의 땅’, 태양의 자리(해가 뜨는 자리)라는 뜻의 고대한국어 ‘아사달’의 중국식 모사어라는 것이다. 그는 조선이라는 말이 보통 설명되듯이 ‘아침의 신선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의 찬관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 견해를 논증하기 위해 ‘아침’과 똑같은 뜻을 가진 고대어 ‘아샤’의 상호 관계를 규명하였다. 즉, 아사→아조→아참→아침으로 변화해 온 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일본어에서는 ‘아사(아스)’라는 말이 현재까지 ‘아침’, ‘내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한자어 ‘조(朝)’는 일본어로 ‘아샤’로 발음된다는 점을 내세운다. 이러한 언어학적인 접근은 어찌 보면 근거가 있는 것도 같지만 대단히 자의적인 해석이 강해 신빙성이 떨어진다.

한편, 북한의 리지린은 조선의 명칭을 ‘속신’에서 찾는다. 그는 조선의 명칭이 그 주변에 흐르는 3개의 강을 합쳐서 부르는 데에서 나왔다는 장안의 말을 새롭게 보완한 것으로, 습수, 열수, 산수라는 지명으로부터 속신, 식신(息愼), 직신(稷愼) 등 속신족의 종족명이 나왔다고 보고 있다. 말하자면 속신이라는 명칭 자체가 조선의 고대 명칭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고대조선의 명칭이 처음에는 지명을 바탕으로 생겨났고, 그것이 나

중에 종족 이름이나 나라 이름으로 변화되었다는 기본 시각에 기초한 것이다. 이 입론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신채호 역시 숙신이 조선이라는 해석을 했었다. 그러나 숙신이 고대조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조선 명칭의 기원이 되었다고 보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정약용 이래 일부 학자는 숙신이 곧 조선을 뜻하며, 은·주 시대에 이미 중국과 조선이 교통하고 물물을 교환하였다고 보았다. 특히, 북한 학계에서는 숙신족이 뒤에 고조선의 주민으로 편입되어 고조선 서쪽에 살았으며, 서주 초에 당시 중국 본토에 있던 동이족이 주에게 멸망당한 은의 유민과 합세하여 주에 대항하다가 주의 공격을 받아 쇠약해지자 그들에게 막혀 중국과 교통하지 못하던 숙신이 직접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것은 후에 공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기록의 사실성을 확인할 수 있다. 춘추시대에 공자는 진(陳)나라에서 돌화살촉에 맞아 죽은 새매를 보고 그 화살이 숙신씨의 것이라고 하면서, “무왕 때 숙신씨가 싸리나무 화살과 돌로 만든 쇠뇌를 선물한 일이 있다.”라고 말했다. 고전에 정통한 공자만이 그 화살이 중국 가까이에 있던 것이 아니라고 말했던 사실에서 숙신이 주의 중심인 북경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숙신은 춘추시대(기원전 8~7세기) 이후에는 이미 중국 가까이에 있지 않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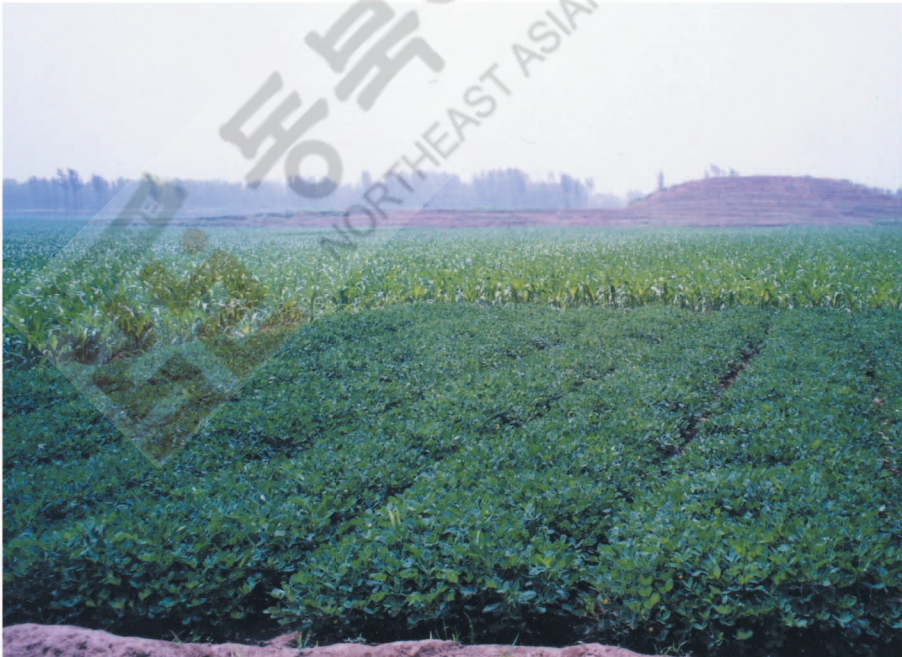
기원전 8세기 말~7세기 초 춘추시대가 기록되어 있는 선진 문헌을 뒤져 보아도, 중국 동북부에서 활약한 종족으로 산유, 영지(令支), 고죽(孤竹), 도허(屠何) 등이 등장할 뿐이며 숙신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기원전 7세기 이전 북경 동북 지방에 숙신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기원전 8~7세기를 전후한 어느 시기에는 길림성 북쪽 일대로 이주하여 음류족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시대 신채호나 북한 학계의 주장처럼, 숙신이 조선과 발음 및 명칭이 유사하다는 점만을 근거로 내세워 고조선과 동일한 실체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공식적인 사료 가운데 ‘조선’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관자』이다. 『관자』는 춘추시대 제(齊)의 재상 관중(管仲)이 편찬했다고 전해지지만 기원전 4세기경에 후대인들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찌 됐든 간에 이 책이 기원전 7세기경의 사실들을 담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런데 『관자』에는 조선이 하나의 지명으로 기록되었을 뿐이며, 그 위치나 명칭의 기원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없다. 전통시대 학자들이 문헌상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로 등장하는 ‘조선’이라는 말의 어원을 밝히고자 근 2천 년 동안이나 노력하였던 것도 그 때문이다.

‘조선’의 존재가 처음으로 명확하게 나타난 기록으로는 『관자』 권23 「경중갑」편과 「규도」편을 들 수 있다. 그 중 「규도」편에서는 제와 조선 등과의 관계를 논하면서 조선의 특산물, 즉 호랑이가죽과 모피로 만든 옷과의 교역이 언급되어 있다. 또, 조선은 제(지금의 산둥반도에 위치)에서 8천 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8천 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거리가 멀다는 뜻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8천 리가 안 되거나 오월(吳越), 우씨(禹氏), 곤륜(崑崙) 등 지역과의 거리도 모두 동일하게 8천 리가 된다고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국식 숫자 표현일 뿐이므로, 이를 가지고 고조선과 제와의 거리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처음으로 역사 무대에 등장한 고조선은 중국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짐승 가죽과 그것을 이용한 특산물을 생산하는 나라로 묘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북경과 가까운 요서 지역에 조선이 위치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관자』의 기록을 통해 고대중국인들이 이미 기원전 4세기(전국시대) 이전부터 조선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의 활동과 그 위치에 관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시대의 사실을 기록한 『전국책(戰國策)』에 나타나 있다. 『전국책』 권29 「연책(燕策)」 1에는 소진(蘇秦)이 연나라 문후



연나라의 도성 유적 연하도

(文侯, 기원전 361~333)에게 당시 연의 주변 상황을 말하면서 “연의 동쪽에는 조선, 요동이 있고, 북쪽에는 임호, 누번이 있다.”라고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같은 기록이 『사기』 「소진열전」에도 실려 있다.

이 기록은 연의 동쪽에 조선과 요동이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전국책』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조선이 연의 변경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며, 연나라의 국세나 대외 관계 등을 논할 때 주의해야 할 세력 집단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늦어도 기원전 4세기 중반에는 조선의 실체가 북중국 지역 사람들에게 뚜렷이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선의 세력에 대해 『위략』에서는 좀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위략』에는 고조선이 연 소왕(昭王, 기원전 311~270) 대 이전 시기에 연과 각축하는 존재였음이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조선의 칭왕(稱王) 시기에 대해서는 역왕(易王) 대로 보거나 기원전 323~318년 사이라고 보고 있다.

고조선은 기원전 320년을 전후해서 왕을 칭한 것으로 보인다. 연의 역왕이 ‘왕’을 칭하면서 연나라 동방의 주요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던 고조선도 왕을 칭하고 연과 세력을 다투게 된다. 이상과 같이 『위략』과 『전국책』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고조선은 분명 기원전 4세기 이전에 존재하였고, 기원전 4세기를 전후하여 그 세력이 매우 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선사와 역사가 만나는 곳, 고조선

오강원 | 고구려연구재단 |

古  
朝  
鮮

흔히 사람들이 아득히 먼 옛날을 가리킬 때 습관적으로 ‘원시시대(原始時代)’, ‘석기시대(石器時代)’, ‘상고시대(上古時代)’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보곤 하는데, 이들 명칭은 때에 따라서 같은 뜻의 낱말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용례를 통해서, 학계는 물론 일반인들이 이들 용어를 시간성이나 성격면에서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이들 용어는 그 개념적인 영역이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는 다른 차원의 것들이다.

즉, 원시시대는 인류사를 문명을 기준으로 하여 문명 출현 이전의 모든 기간을 총칭할 때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그 시대가 석기시대이든 금속시대이든 간에 문명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체의 단계가 모두 원시시대에 속한다. 석기시대는 인류사를 도구의 재질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할 때 제시되는 개념으로서, 대체로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가 이에 해당한다. 이 외에 상고시대는 오늘을 기준으로 아주 먼 옛적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한국에서는 삼국시대 이전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일반에서 흔히 유사 개념으로 통용하고 있는 ‘원시시대’, ‘석기시대’, ‘상고시대’가 내용적인 면에서 성격을 달리하는 것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용어와 함께 선사시대(先史時代)라는 말도 자주 쓰이고 있는데, 선사시대는 글자 그대로 역사시대(史) 이전(先)의 시대(時代)라고 할 수 있다. 즉, 역사시대가 문자 기록을 본격적으로 남기기 시작한 시대를 의미하므로, 선사시대는 글자 그대로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시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개념의 혼란과 함께 고조선을 과연 어떤 시대에 놓아야 하는가에 대

해서도 적지 않은 혼란이 있다. 즉, 근·현대 이래 오늘날까지의 각종 교과서와 개설서에 고조선이 어디에서는 원시시대, 어디에서는 상고시대, 어디에서는 선사시대 등에 포함 되어 있다. 이러한 혼란은 발간 주체와 집필자의 시대 개념에 대한 이해 차이에서 빚어진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조선의 시대적 성격이 그만큼 분명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다.

고조선에 관한 기록은 크게 단군신화를 근간으로 하는 신화적 전승과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적 기록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신화적 전승은 신앙과 믿음과 다양한 전승 과정을 통해 변용된 전설이 섞여 있다는 점에서 엄밀하게 말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역사 자료라고 할 수 없다. 고조선에 관한 역사 기록 중 초기의 믿을 만한 것으로는 『사기(史記)』와 『위략(魏略)』이 있는데, 『사기』에는 기원전 3~2세기의 상황이, 『위략』에는 기원전 4~3세기의 상황이 다루어져 있다.

다시 말해 『사기』에는 위만조선의 성립과 멸망 과정이 주로 다루어져 있고, 『위략』에는 기원전 4세기 전국연과 경쟁 하던 조선후(朝鮮侯)의 고조선과 조선후 직후의 고조선이 전국연의 공격을 받아 서쪽 2천여 리의 땅을 잃고 그 중심지를 동쪽으로 옮기기까지의 과정이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다. 또, 이들 기록에는 조선후의 고조선이 옛적 기자(箕子)의 동천에 의해 개시된 듯이 암시되어 있는데, 정작 기원전 4세기 이전에 고조선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고, 그 정치와 사회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

이와 같이 고조선에 관한 자료는 매우 단편적이고 소략한 편인데, 그나마 기원전 4세기 이후의 상황도 고조선 사람이나 그 직후의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의



1930년대의 단군릉



북한의 개수된 단군릉



요동 지역 청동기문화의 젖줄 태자하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남겨 놓은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기록에 드러나 있는 기원전 4~2세기의 고조선은 엄밀하게 말해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선사시대도, 자신들의 손으로 역사 기록을 남긴 역사시대도 아닌 중간적인 성격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대를 선사와 역사의 영역이 교차하는 원사시대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조선은 선사와 역사가 만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고조선은 여러 자료와 정황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기원전 4~2세기의 원사시대 외에 그 이전의 선사시대로 나뉜다. 이렇게 볼 때, 고조선은 엄밀하게 말해 기원전 4세기 이전의 선사시대 속의 고조선과 기원전 4세기 이후의 원사시대 속의 고조선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고, 그러므로 앞의 단계는 고고학적 영역, 뒤의 단계는 역사학과 고고학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조선에 대한 연구도 시간적인 차이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 기원전 4세기 이전은 당연히 고고학적, 문화적 접근이 절대적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이후는 역사학이 주가 되고 고고학적 접근이 배합되는 방식이 취해질 수밖에 없다. 단, 역사학 및 고고학 이외의 학문 분과에서 고조선 문제를 접근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이



절대적일 수만은 없는데, 그 이유는 신화학이나 민속학 등에서는 기원전 4세기 훨씬 이전으로까지 올라가는 신화적 전승이 유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기원전 4세기 이전의 고조선사를 밝히는 데 고고학과 문화적인 접근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음은 과거 이른 시기 고조선사와 문화에 대한 유추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즉, 1960년대 중반 북한 학계에서는 역사 자료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통해 고조선의 중심지가 해성(海城)과 개현(盖縣)을 중심으로 하는 요동 남부에 있었다는 견해를 정설로 한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은 추론은 어디까지나 늦은 시기의 단편적인 역사 자료를 요동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추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고학적인 물질 자료를 통해 역사학계의 논증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나오게 된 것이 비파형동검, 미송리형토기, 고인돌 등이 복합하는 공반 관계이다. 즉, 북한 학계의 1960~1980년대까지의 20여 년 간에 걸친 이와 같은 노력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고조선의 시대적으로 특수한 성격에서 비롯된 것인데, 어찌 됐든 간에 이와 같은 방법론은 당시로서는 참신한 것이어서 1980~1990년대 요령설이든 평양설이든 이동설이든 간에 한국 역사학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단군릉' 발굴 이전 북한 학계의 위와 같은 견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점차 극복되어 가고 있다. 즉, 북한 학계에서 먼저 제기하였고 이어 1980~1990년대 남한의 일부 연구자들이 수용하였던 비파형동검, 고인돌, 미송리형토기(고조선의 중심 문화)의 표지성이 실상은 비파형동검문화 중심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던 요동 남부의 지역적인 유물복합(쌍방유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유물복합의 발전 관계와 전반적인 물질문화 수준으로 보아 고조선문화의 표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요동 남부의 지역적인 유물복합인 쌍방유형(雙房類型)은 기원전 6세기 때에 심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십이대영자유형(十二臺營子類型) 비파형동검문화를 직접적인 기원으로 하는 정가와자유형(鄭家窪子類型) 비파형동검문화가 출현하게 됨에 따라 점차 변모, 소멸되었고, 늦어도 기원전 5세기 때에 이르면 요동 남부 지역의 고인돌 집단이 묘

제로는 구덩무덤과 돌덧널무덤(石槨墓), 장법으로는 화장하지 않고 곧바로 묻는 장법을, 토기로는 정가와지형호(흑색마연장경호)와 점토대토기를 부장하는 것으로 변모된다.

이와 같은 변모는 요동의 전 지역에서 모두 확인되는데, 요동 북부의 돌널무덤 유적군(대화방유형)과 요동 남단의 돌무지무덤 유적군(강상유형) 또한 이전까지 강한 지역성을 보이며 유지되던 지역적인 유물복합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정가와자유형 비파형동검문화와 유사한



심양 정가와자 6512호 덧널무덤



정가와자 출토 정가와지형호(왼쪽)와 점토대토기(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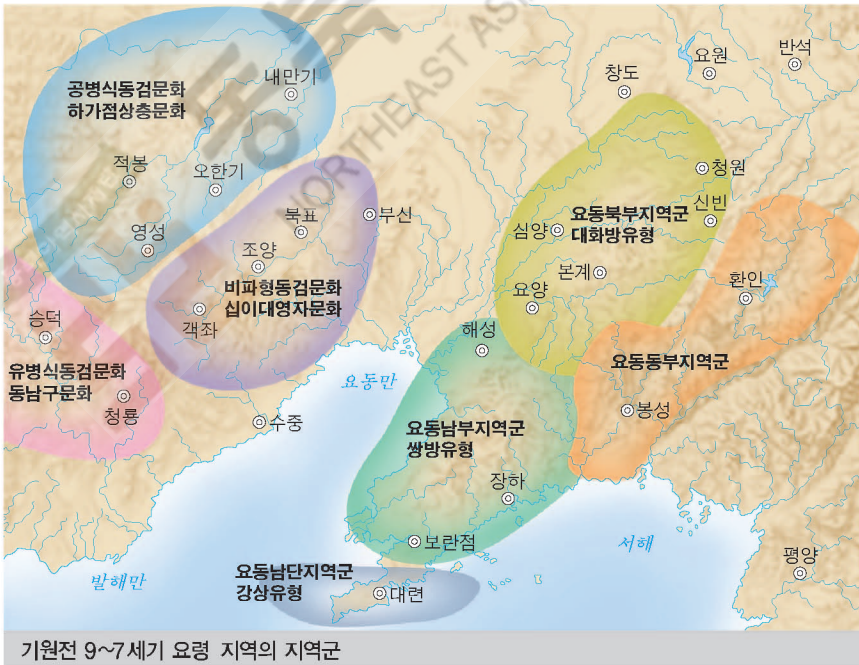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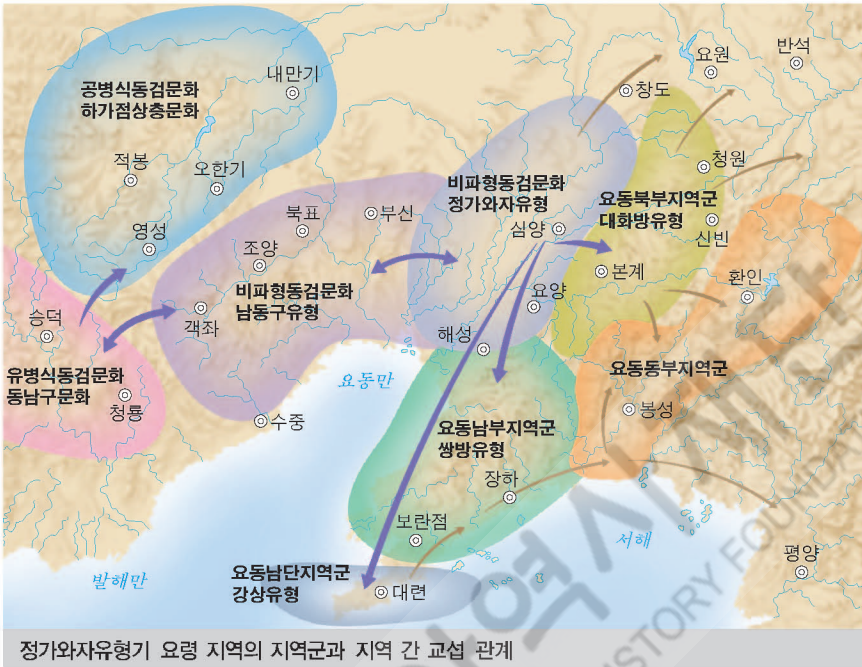
개주 석봉산 탁자식 고인돌

형태의 유물복합으로 점차 변모되어 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구려가 발생한 요동 동부의 유물복합도 비록 정가와자유형과 직접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주변 지역 문화의 변동 속에 새로운 단계로 전환된다.

아울러 기원전 6~4세기 요동 지역이 정가와자유형을 중심으로 하여 위와 같이 변모되는 가운데, 기원전 3세기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서북한 지역에 모든 면에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정가와자유형 비파형동검문화와 연계성을 강하게 보이는 세형동검문화가 형성되기에 이른다. 그런데 서북한 지역의 세형동검문화는 준왕 대의 고조선과 위만조선의 문화가 확실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조선후 대의 고조선과 그 전의 고조선 또한 대체로 위와 같은 문화적 흐름 속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와 같이 최근의 고조선에 관한 연구는 점차 고조선의 시대적인 특수성을 인식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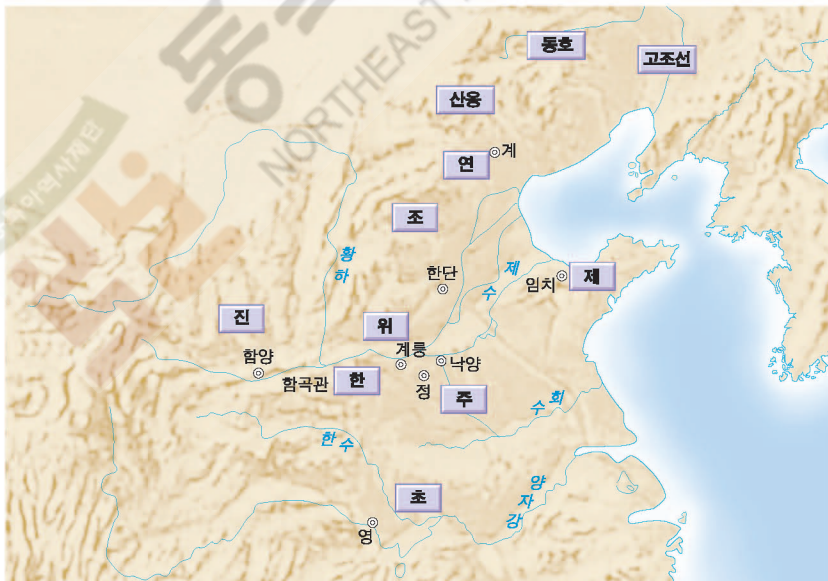
가운데 역사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아울러 문헌 자료에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원사성을 띠고 있는데다, 또 그간 역사학 방면에서 많은 작업이 이루어진 까닭에 최소한의 부분은 어느 정도 밝혀진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고학적인 접근이 더욱 세밀하면서도 폭넓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고조선사, 고조선문화상이 제시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 고조선은 언제 어디에 있었을까

오강원 | 고구려연구재단 |

古朝鮮

고 조선에 관해서는 크게 두 계통의 문헌 기록이 전해져 오는데, 하나는 『삼국유사』나 『제왕운기』류와 같은 신화를 바탕으로 한 전승이고, 다른 하나는 『사기』나 『위략』류와 같은 현실적 사건을 바탕으로 한 전승이다. 신화적 전승에서는 고조선이 시간의 흐름과 통치 집단의 성격 변화에 따라 단군조선과 기자조선 및 위만조선으로 변모되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신화적 전승에 반영되어 있는 고조선은 순전한



전국시대의 중국과 고조선



요동 지역에서 출토된 중국의 군사 유물(도씨검과 편경검)

역사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여러 맥락에 의해 변형된 이야기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고조선의 시·공간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사 자료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사기』와 『위략』에 묘사되어 있는 고조선은, 통치 집단을 기준으로 할 때 위만조선과 그 이전의 고조선으로, 역사적 사건에 드러나 있는 단계성을 기준으로 할 때 조선후(朝鮮侯)대의 고조선, 준왕(準王)대의 고조선, 위만조선으로 나뉜다. 이 중 조선후 대의 고조선은 전국연(戰國燕)에 2천여 리를 빼앗겼다고 한 것으로 보아 위만조선으로부터 서쪽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자세히 설명하면, 고조선은 발달된 청동기문화와 주변의 선진적인 문화를 수용하여 문화와 경제는 물론 정치적인 면에서도 꾸준한 발전을 이룩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기원전 4세기 조선후 대에 이르면 세력이 강성해져 중국의 전국시대 칠웅 중의 하나였던 연나라와 세력을 다툰 정도에 이르게 된다. 즉, 조선후 대 고조선과



요동 지역의 전국시대 연나라의 덧널무덤(심양 신성)

전국시대 연나라의 긴장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연나라의 칭왕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요령 방면으로 진출하려던 연나라와 이에 맞선조선후 대 고조선의 갈등이었다.

조선후 대 고조선과 연나라 간의 긴장 관계는 급기야 기원전 4세기 말~3세기 초 전면적인 전쟁의 형태로 표출되었는데, 조선후 대 고조선은 이 전쟁으로 무려 2천여 리에 달하는 지역을 빼앗기고 그 중심지를 동쪽으로 옮기게 되었다(준왕 대의 고조선). 그러던 중 진·한(秦·漢) 교체기와 한나라 초의 혼란을 틈타 연나라를 비롯한 북중국 사람들이 고조선의 변경으로 많이 망명하게 되었는데, 연나라 출신 위만이 이들과 일부 토착 집단을 결합시켜 준왕을 공격하여 위만조선을 세웠다고 한다.

그런데 고조선에 관한 한 가장 믿을 만한 역사 기록인 『사기』와 『위략』에는 기원전 4세기 조선후 대의 고조선으로부터 기원전 108년 위만조선이 한(漢)과의 전쟁에서 패해 멸망하고 그 땅에 낙랑(樂浪)·현도(玄菟)·진번(眞番)·임둔군(臨屯郡)이 설치되기까지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을 뿐, 고조선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사정이 이러할즉, 그간 고조선의 위치를 난하 유역, 대릉하 유역, 요하 유역, 해성하와 대청하 유역, 제1송화강 유역, 대동강 유역 등으로 다양하게 보아왔다.

이와 같은 혼란은 위만조선이 멸망한 지 두 세기 만인 후한(後漢) 대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점은 후한 사람 응소(應邵)가 요동군 함독현(險瀆縣)을 위만조선의 도읍인 왕침성이라 한 데에 대해 그보다 늦은 시기의 사람인 설찬(薛瓚)이 왕침성이 요동 땅이 아닌 낙랑군 패수(溟水) 동쪽에 있었다고 바로잡은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고조선의 위치에 대한 혼선은 위만조선 자리에 설치된 낙랑군이 고구려에 병합된 뒤로 요서와 하북 등지로 옮겨짐에 따라 더욱 가중되었다.

그런데 고조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를 파악할 필



요동군 고현성지(심양 위가루자)



제3현도군 치소로 추정되는 무순 노동 공원 성지

요가 있다. 그 이유는 낙랑군 조선현이 위만조선의 도읍이 있던 곳 또는 왕성(왕함성) 부근에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낙랑군 조선현이 어디에 있었는가는 북위(北魏) 때 사람인 역도원(羅道元)의 『수경주(水經注)』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수경주』에 북위로 파견된 고구려 사신이 역도원에게 고구려 도성이 패수 북쪽에 있고 패수가 그곳에서 다시 서남쪽으로 낙랑군 조선현을 지나 서북쪽으로 흘러간다고 말한 기록이 있다.

기원후 5~6세기 때에 지금의 대동강을 고구려 사람들이 패수로 불렀다는 점과 대동강 북쪽에 당시 고구려의 도성인 안학궁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평양 토성동 토성에서 낙랑군과 관련된 각종 유물이 다량 발견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낙랑군 조선현이 지금의 대동강 남쪽 토성동 토성에 자리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만조선의 왕성인 왕함성도 이 부근에서 찾을 수 있는데,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한나라 육·해군의 공격로와 전쟁 상황을 감안할 때, 대동강 북쪽 어디쯤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 유역에는 세형동검과 다뉴기하학문경 등이 출토된 유적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데, 이들 유적은 청천강 이북의 전국연계 유물이 출토된 유적들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예를 들면, 같은 시기 요서 전체 지역과 동북 평원 저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요동 및 청천강 이북의 경우, 세형동검과 같은 토착적인 청동기 유물이 배제되어 있는 가운데 전국연계 유물이 공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서북한 지역에는 다량의 토착적인 청동기와 소량의 전국연계 유물이 공반하고 있다.

물론 대릉하 유역으로부터 청천강에 이르는 지역 내에 분포하고 있는 유적이 모두 동일한 문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요서 지역에는 미안구(眉眼溝)류의 전형적인 전국연 유적만이 분포하고 있는 반면, 요동 지역에는 요하 양안의 동북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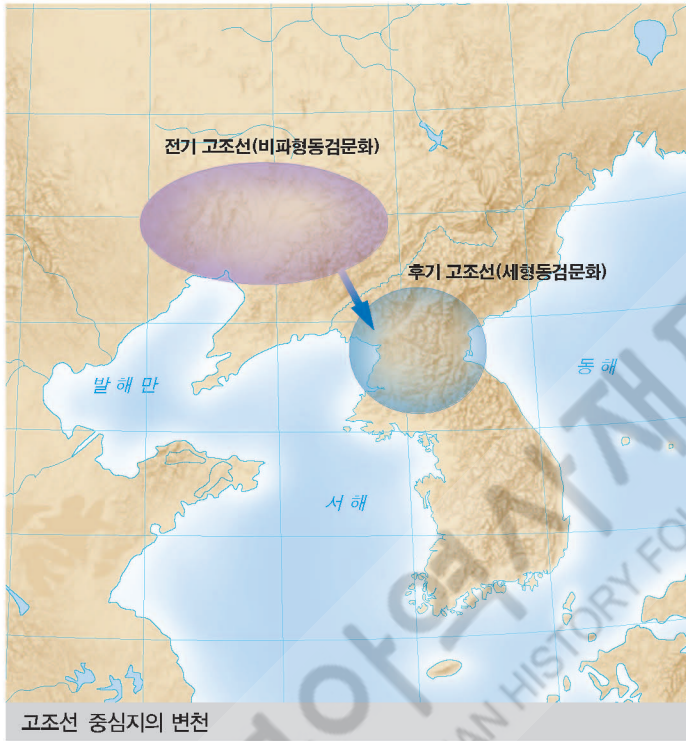
준왕과 위만조선의 왕성이 있었던 평양

원과 심양, 무순, 철령, 대련, 단둥 등 요동 각 지역의 중심 지역과 교통로상의 요충지에 만 전국연 중심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을 뿐이며, 그 밖의 지역, 특히 혼강 유역과 같은 경우 돌무지무덤(積石墓)과 토착적 성격이 강한 토기 등을 부장하는 집단이 상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압록강~청천강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압록강 하류 지역과 황해에 연한 지역을 제외한 하천 상류 지역의 산곡간에는 회색 토기, 주조철기, 명도전 등 전국연계 유물과 함

다뉴기하학문경과 세형동검





고조선 중심지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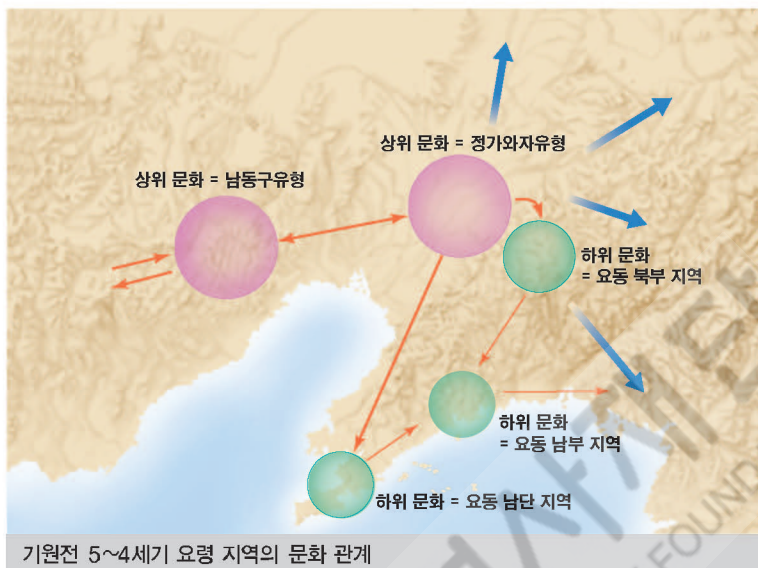
계 돌무지무덤과 발형토기 등 토착적인 유물 요소가 주를 이루고 있다. 아무튼 이러한 유물 양상을 고려할 때,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 유역을 위만조선과 준왕 대의 고조선으로, 요동 동부와 평북 산간 지역을 나중에 고구려로 통합, 발전되는 맥계(貊系) 집단으로, 그 밖의 지역을 전국연의 요동군 등지로 볼 수 있다.

위만조선은 이와 같이 역사학적인 면은 물론 고고학적인 면에서도 평양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위만 집단은 처음 준왕 대 고조선의 북쪽 변경 지대, 즉

조양의 십이대영자 돌덧널무덤 유적



출토된 유물



압록강 이남으로부터 청천강 이북 사이 지역에 고조선의 번병(藩屏)으로 머물러 있다가 기원전 2세기 초 준왕을 축출하고 그 자리에 위만조선을 세웠다. 과거 전국연의 영향 아래 있던 이 지역에 위만 집단이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배경은 한초 중국 세력의 영향력이 청천강에서 압록강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준왕 대 고조선의 왕성 또한 왕협성이 있던 대동강 가의 평양 어딘가에 있었던 셈이 된다.

이처럼 준왕 대 고조선과 위만조선의 중심지는 역사학적으로든 고고학적으로든 간에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준왕 대 이전 고조선의 중심지가 과연 어디였는가 하는 것이다. 준왕 대 이전은 관련 문헌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고조선의 중심지는 물론 공간적 범위도 밝히기가 매우 어렵다. 현재 학계에서 준왕 대 이전 고조선의 공간적, 문화적 범위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준왕 대 이전 고조선과 관련하여 두 개의 단초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고조선이 기원전 4세기 말~3세기 초 전국연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2천여 리의 땅을 빼앗기고 그 중심지를 평양으로 옮겼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준왕 대의 고조선과 위만조선이 세형동검문화를 문화적인 기반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이 중 전자는 고조선이 빼앗긴 땅이 반드시 2천여 리였다고 못박을 수 없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 이전의 고조선이 요령 지역 어딘가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준왕 대 이전의 고조선이 요령 지역에 있었음은 세형동검문화가 서북한의 토착 문화

인 고인돌문화(팽이형토기유형)와는 묘제, 장속, 입지, 토기, 청동기 등의 면에서 차별적인 문화성을 보임과 동시에, 이보다 한 단계 앞선 시기의 요령 지역에서 유행한 비파형동검문화와는 연속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드



심양에 있는 정가와자 유적 기념관

러난다. 즉, 세형동검은 비파형동검과, 다뉴조세문경과 다뉴세문경은 다뉴조문경과, 유견동부는 선형동부와, 정봉리와 고산리류무덤은 정가와자 및 윤기춘류무덤과 각각 대응 관계를 보인다.

다만, 문제는 기원전 5~4세기 요령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비파형동검문화와 관련된 유물양상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요령 지역 중 혼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요동 동부 지역의 경우, 묘제(콘돌뿔개무덤, 돌무지무덤)와 장법(다인이차화장) 및 토기(수환이호, 발형토기) 등의 면에서 서북한의 세형동검문화와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 지역은 준왕 이전 고조선의 중심 지역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중 유력한 지역으로는 객좌(客左), 조양(朝陽), 심양(瀋陽), 대련(大連) 등이 있고, 이들 모두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들 지역 모두 조금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기원전 5~4세기 비파형동검문화는 요서 지역의 남동구유형(南洞溝類型)과 요동 지역의 정가와자유형(鄭家窪子類型)의 두 유형으로 나뉘어 있었고, 이 중 남동구유형은 비파형동검과 묘제 및 일부 장속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북방계와 전국연계로 대체되어 있었다. 반면, 정가와자유형은 기원전 6~5세기 이전 비파형동검문화의 전형적인 유물 요소가 상당수 잔존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물복합이 주변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위의 네 지역 중 심양 일대가 서북한으로 축소되기 직전의 조선후 대 고조선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조선후 대 고조선의 범위를 요하 유역 또는 요동 지역에서 찾되, 대련 일대를 주목하는 견해 또한 적지 않으므로 추후 관련 학계의 논의를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기원전 5~4세기 이전 고조선의 공간적 범위도 논란이 많은데, 만약 조선후 대의 중심지를 심양으로 본다면 자연히 전기 비파형동검문화의 주요 분포지인 요서 지역이 고조선의 범위 내로 들어오게 되고, 대련 등으로 본다면 요동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고조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송호정 | 한국고원대학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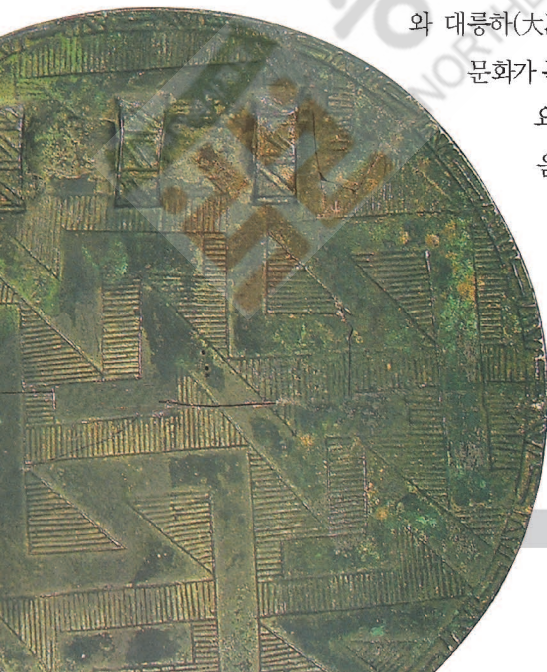
古  
朝  
鮮

**고** 조선은 예(濊)와 맥(貊)이라는 종족이 정치적으로 성장하여 발전시킨 나라이다. 예맥족은 한반도와 요령성 및 길림성 등 현재의 중국 동북 지역에 살았던 주민이다. 이 종족은 청동기시대 고조선의 대표 문화인 비파형동검문화를 형성시키고 발전시켰다. 중국의 여러 사서에는 예맥족에 대한 기록이 많이 보인다. 이는 일찍부터 우리 민족이 중국 등 여러 나라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청동기시대 이래 만주 지방에 살았던 주민들이 남긴 대표적인 문화는 비파형동검문화이다. 비파형동검문화는 요하(遼河)를 경계로 요서 지역 청동기문화와 대릉하(大凌河) 동쪽에서 요동 지역에 분포하는 청동기 문화가 특징적인 차이를 보인다.

요서 지역에서는 유목 생활과 군사 활동이 잦았음을 보여 주듯 청동제 무기나 짐승무늬 장식 청동기가 많이 출토되고 있다. 반면, 요동 지역에서는 정착 농업 생활을 반영하는 기하학무늬 청동기나 농기구 등이 많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요서 지역과 요동 지역의 주민 집단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요동 지역에서 한반도에

다뉴기하학문경 세부



걸쳐 활동하던 주민 집단이 바로 예맥족이고, 이들이 세운 정치체가 바로 고조선이라 할 수 있다.

처음에 고조선은 일정 지역에 위치한 부족 집단에서 성장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일정 지역의 이름이나 종족의 명칭으로 불리다가 나중에 그 사회가 발전하게 되자 국가의 명칭으로 고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 4세기 이전의 일을 기록한 『관자(管子)』나 『전국책(戰國策)』 등에는 ‘요동(遼東)’과 ‘조선(朝鮮)’이 따로 구분되어 나온다. 또, 요동 지역에 살았던 주민 집단은 ‘예맥(濊貊)’이라 표기되어 있다. 문헌 기록에 보면, 청동기문화 단계의 요동 지역에는 예맥으로 불리는 여러 종족 집단이 거주하였고, 고조선은 예맥과 함께 등장하거나 그와 구분되어 요동에서 한반도 서북 지방에 걸쳐 거주한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요동에서 한반도 서북 지방에 걸쳐 탁자식(북방식) 고인돌과 미송리형토기가 특징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에 의할 때, 요동 일대에 펼쳐진 탁자식 고인돌, 돌널무덤, 미송리형토기문화, 비파형동검문화는 대체로 예맥족과 고조선의 문화일 것이라는 점에서는 학계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고조선이나 예맥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라 합치된 결론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고조선을 건국한 예족(濊族)의 문화로 보거나, 고조선의 배경 문화로 보는 견해, 고조선과는 별개로 고구려의 선조인 맥족(貊族)



해성 석목성 탁자식 고인돌

의 문화로 보는 견해, 고조선의 세력권, 기자조선후국(箕子朝鮮侯國)으로 보는 견해 등 다양한 학설이 제기되고 있다. 크게는 고조선의 배경 문화로 보는 입장과 고조선과 예맥을 구분하여 예맥의 문화로 보는 입장으로 나뉜다.

‘예맥(濊貊)’에 대해서는 이를 예와 맥으로 갈라놓고 보려는 견해, 예맥의 범칭으로 보는 견해, 예맥은 맥의 일종이며 예는 예맥의 약칭이라는 견해 등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다. 현재까지의 논의를 통해 보면, 원래 예 계통의 주민 집단이 살고 있던 요하 동쪽 지역에 요서나 중국 북방으로부터 맥 계통의 주민 집단이 이주하여 상호간의 융합을 통해 구별이 없는 ‘예맥’이라는 종족 집단을 형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이해라 생각된다.

통설처럼 이들 예맥(또는 예와 맥)이 언제 어떻게 하나의 종족 집단을 이루고 동쪽으로 이동하였는지는 잘 알 수 없다. 오늘날까지 발표된 여러 견해는 아직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고학 자료를 결부시키는 데에 있어서도 아직 신빙성이 미약하다. 다만, 후대의 『사기(史記)』 기록에 예맥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종족 연합체로 등장하고, 흉노가 성세(盛勢)할 때 이들과 인접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기원전 3~2세기경에 예맥이 하나의 종족으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부여와 고구려가 나왔음이 『삼국사기(三國史記)』와 『후한서(後漢書)』 등에 기록되어 있다.

『여씨춘추(呂氏春秋)』에 보이는 “북쪽 바닷가의 동쪽인 오랑개(夷穢)의 지방에서는 큰 계와 해릉어가 난다.”라고 한 기록은 기원전 3세기 이전 예맥의 위치를 명확히 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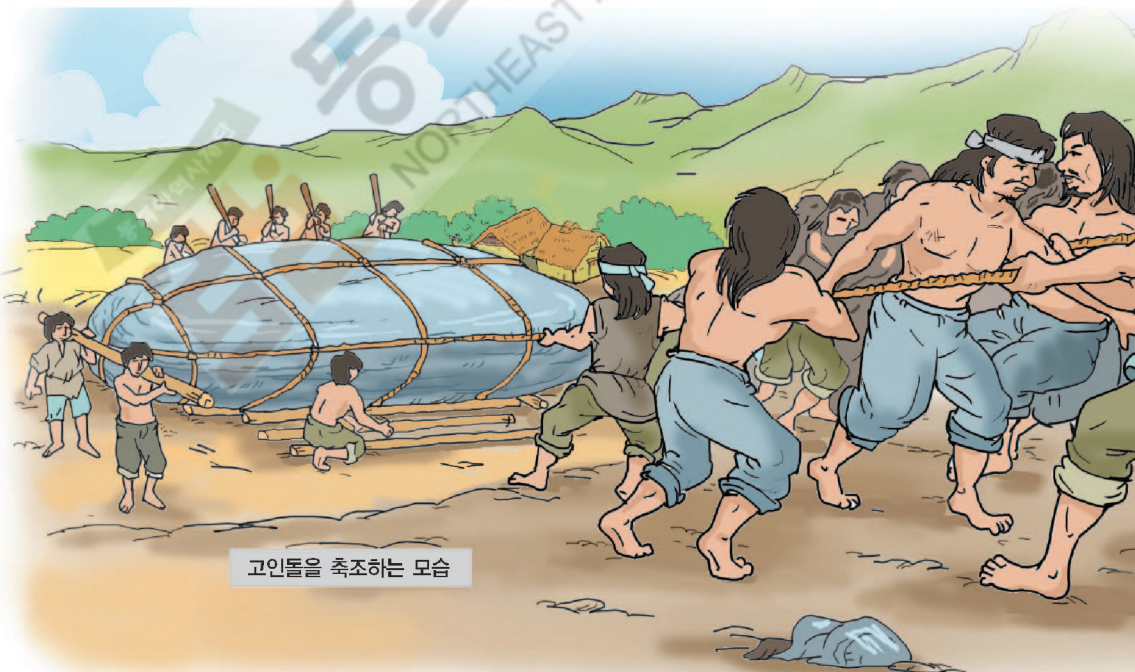
고인돌문화의 요람지 벽류하 유역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문의 “非濱之東”의 ‘非’는 ‘북(北)’자의 오자임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하면 북쪽 바닷가의 동쪽, 즉 발해만의 동부가 예맥의 거주지였던 것이니 그들의 서쪽 한계는 발해만 동부의 바닷가였던 것이다. 이것은 고조선이 기원전 3세기 이후 대동강 유역에 있을 당시 요동 지방에 거주한 주민 집단이 바로 예맥이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선진시대 이래 요하 동쪽에서는 모두 예맥족이라는 동일 계통의 주민 집단이 전체적으로는 비파형동검문화권 내에서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었다. 여기서 성장한 정치체가 바로 고조선인 것이다. 이 주장은 이후의 역사 전개 과정을 고려할 때 매우 합리적이다. 다만, 고조선의 세력권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예맥족이 단독으로 존재했음도 유념해야 한다.

고고학 자료 조사 결과, 고인돌 단계 요동 지역 청동기문화의 중심은 혼하(渾河)~압록강 일대의 돌널무덤·미송리형토기문화권과 요동~서북한 지역의 고인돌·팽이형토기문화권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다만, 요동 지역 전체는 고인돌과 돌널무덤이라는 동일 계열의 묘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계통의 주민 집단이 살고 있었고, 지리적인 차이로 인해문화유형에 차이가 있게 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미송리형토기는 북한 학계의 분류에 의하면 초기 비파형동검과 함께 출토되었기 때문에 출토 지역인 혼하 유역에서 청천강(淸川江)에 이르는 지역을 고조선의 중심 지역으로



고인돌을 축조하는 모습

설정하게 된다. 미송리형토기가 사용된 하한은 기원전 4세기, 그것이 성행한 시기는 기원전 6~5세기경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송리형토기 중 가장 빠른 형태인 혼하유역 돌널무덤에서 출토된 것은 요동에서 동검과 청동 도끼를 주조하기 시작했던 시기, 즉 기원전 8~7세기경으로 볼 수 있다.

미송리형토기 분포권은 요동 지방에서는 넓게 보면 고인돌 분포 범위와 겹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한반도~요동 지역에서 전형적 탁자식(북방식) 고인돌을 수용한 지역은 미송리형토기 중심 분포 지역의 외연 지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요동 지역에서 미송리형토기의 분포권은 대체로 돌널무덤·비파형동검의 출현 지역과 일치하고, 이후의 명도전 분포 지역과 거의 겹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미송리형토기문화는 초기 고조선의 북쪽 지역에 위치한 청동기문화로서, 그 문화의 후기 단계에 와서야 압록강을 넘어 서북한 지방의 국가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문화이다.

그런데 요동 지역에는 일찍부터 예와 맥족이 합쳐서 형성된 '예맥'이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에 근거할 때, 대개 미송리형토기가 나오는 지역은 고조선국가 형성 이전의 '예맥족의 문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송리형토기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한반도 서북 지방에 고인돌과 함께 집중 분포하는 팽이형토기문화가 주목된다. 종래 팽이형토기에 대해서는 북한 학계와 일본 학계에서 한반도의 민무늬토기유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북한 지역 초기 청동기문화의 특징적 요소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압록강 건너의 미송리형문화나 길림 일대 서단산문화 등과의 관련 문제는 그다지 논의가 없었다. 팽이형토기는 현재의 자료에서 볼 때 청천강을 북방 경계로 그 이남의 황해도 일대에 집중



황해도 은율 관산리의 탁자식 고인돌



미송리형토기문화권과 팽이형토기문화권

되어 있다. 즉, 평안남도, 황해남도, 황해북도가 주요 분포 지역이다.

한반도 서북 지방의 고인들과 요동반도의 고인들은 전형적인 고인들의 경우 반출되는 유물들로 보아 거의 동일한 시기의 유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동일 묘제의 분포와 토기, 석기 등의 제작 기법상 유사성은 양 지역에 동일 계열의 주민 집단이 거주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원전 5~4세기가 되면 '예맥' 계통의 종족과 고조선 세력이 급속히 성장하여 요동~서북한에 걸치는 지역에 이른바 '조선후국(朝鮮侯國)'을 형성하게 된다. 문헌에서는 이 당시 요동 지역에서 성장한 세력에 대해 조선후국이라 표현하고, 이들이 성장하여 '칭왕(稱王)'하는 등 교활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요동 지역의 청동기문화를 바탕으로 고조선, 즉 조선후국이 주변 지역을 일정하게 아우르는 상당히 강한 지배 권력을 수립했음을 알 수 있다.

기원전 5~4세기경 고조선은 중국에서 이른바 '조선후국'이라 부르는 정치 권력이 맹주가 되어 그 주변에 위치한 예맥(濊貊), 진번(真番), 임둔(臨屯) 등 소국 세력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사기』 「조선열전」의 주석에서는 진번, 임둔이 동쪽의 소국



한국 출토 세형동검 단계 다뉴기하학문경과 의기루(아산 남성리)

으로서 후에 군(郡)이 되었다고 한다. 『한서』 「지리지」에서는 진번이 고조선의 소국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후기 단계 고조선에는 이미 여러 소국과 진번, 임둔이라는 명칭을 가진 지방이 있었는데, 이는 위만이 정권을 잡기 전에 이미 일정한 독자성을 가진 정치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번, 임둔, 동옥저 등 여러 지역 집단과 계층으로 분열되어 있던 고조선은 기원전 3~2세기 이래 계속되는 중국의 동진(東進) 세력과 대립 관계가 조성되면서 점차 국왕을 정점으로 전 지역을 포괄하는 지배 체제의 정비와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되어 갔다. 그리고 고대 국가 형성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대동강 유역에서는 위만 이전부터 정치력이 성장하여 하나의 우세 지역 집단이 영도 세력으로 등장하는 소국 연맹이 형성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토착 사회의 기반 위에 한족(漢族)의 유이민이 이주하면서 위만 왕조를 수립하였다. 위만은 원래 연나라 사람으로, 중국 동북 지방에서 계속 흘러들어온 유이민과 그들을 포섭하여 세력을 키워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게 된다.

위만조선의 지배층에는 이주해 온 중국인이 많았다. 따라서, 그들은 중국 계통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발전시켰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서북한 지역은 중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게다가 전국시대 문화, 혹은 진·한 초의 문화는 중국 본국 문화에서 벗어나

자립적인 발전을 시작하여 후에 독자적인 지역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제 토착민들도 선진 문명 사회와의 접촉에 의해 새로운 문화를 누리게 되었고, 계급 사회가 성립하였다. 이러한 변화 발전은 남만주에서 서북한 지역에 걸쳐 새로운 단계의 무덤으로 구덩 무덤과 덧널무덤이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들 덧널무덤은 분명 토착민 유력자들이나 그 가족의 무덤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이들 종족은 지역에 따라 약간씩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동예, 옥저, 삼한, 백제, 신라 등 여러 나라의 중심적인 지배 집단이 되었다. 고조선 멸망 후 고조선의 국가적 경험은 한강 이남의 마한 사회에서 청동기문화가 발전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신라 건국 집단인 사로 6촌의 촌장들이 고조선의 유이민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또, 고구려는 고조선 사회의 외곽에서 성장하여 국가로 발전해 나가게 된다.

고조선은 우리 민족이 세운 가장 이른 고대의 정치체였다. 그리고 그 국가적 경험은 이후 삼국이 성장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고조선을 이룬 주민 집단은 바로 예맥족이었다. 예맥족은 초기에 중국 요령성에 있는 요하 유역을 중심으로 고조선을 건국하였고, 이후 지역적 분화를 통해 부여와 고구려로 이어져 주변 민족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문화와 언어를 발전시켰다.

중국의 사서인 『사기』와 『한서』에는 고조선을 구성하는 중심 종족으로서 ‘예맥’과 ‘조선’이 언급되어 있고, 『후한서』나 『삼국지』에는 부여와 고구려의 선주 종족이 예맥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민족 형성의 근간이 된 종족은 고조선 사람들인 예맥족과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삼한을 구성한 한족(韓族)이라고 할 수 있다.

# 고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청규 | 영남대학교 |

古  
朝  
鮮

고 조선은 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에 걸쳐 있었으며, 사회 발전 단계로 보면 군장 사회를 거쳐 국가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었다. 물질문화의 발전에 따라서 전기와 후기 고조선 사람의 삶의 방식은 서로 다르며, 사회 계층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상위와 하위 사람들의 삶의 질이 다른 점이 적지 않다. 이를 전부 망라하여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조선 하면 연상하는 청동기시대의 사회·문화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사람들의 삶이란 의식주를 기본으로 따지므로 이를 주로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생업 활동과 사회 생활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고조선 사람들이 어떤 자연 환경에서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기록은 없다. 『삼국사기』에 고조선 유민들이 진한 지역에 내려와 산곡에 살았다고 하는데, 떠나온 곳의 환경이 그러하므로 똑같은 입지를 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고조선의 영역으로 추정되는 요동과 서북한 지역의 상당한 범위가 산곡이 발달하였고, 이 지역의 많은 청동기시대 유적이 산곡에 위치한다.

이 지역에 청동기시대의 집자리나 그와 관련된 유적을 살펴보면, 해안가와 강변 저지대, 나지막한 구릉, 그리고 산의 능선 등 다양한 입지를 택하여 마을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해안 저지대의 대표적인 예로, 우선 고조선을 대표하는 비파형동검이 부장된 요동 반도 남단의 강상·누상무덤 유적 집단을 들 수 있다. 이들 유적 근처에 그들의 마을이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 바닷가를 기반으로 어로 활동은 물론 해상 교역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 강변의 충적 대지에 위치한 마을은 대동강 유역의 평이형토기를 내는 평양·남경 등의 집자리 유적을 들 수 있다. 바다 대신에 강에서 물고기잡이를 할 수 있지



요동반도 남단 강상 돌무지무덤의 바닥돌과 무덤에서 출토된 비파형동검

만, 기본적으로 농경을 통해 식량을 조달하였을 것이다.

강가와 바닷가에 마을을 조성한 것은 이미 신석기시대부터이지만, 청동기시대 또는 고조선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높은 구릉 정상에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룬다. 요동 서북한 지역에서는 제대로 조사되지 않아 잘 알 수 없지만, 충청남도 교성리 유적, 창원 서상동 유적으로 미루어 보아 주위와의 높이가 100m 가까이 차이나는 높은 지대 위의 마을도 조성되었을 것이다. 이보다는 높지 않지만, 경기도 여주 혼암리, 충청남도 관산리 등도 산구릉 능선에 마을이 있는데, 이러한 고지 마을은 외적으로부터의 방어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청동기시대부터 많아진 마을 세력 간의 다툼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일정한 토지를 기반으로 농경과 목축 생활을 강화하고, 물자의 교역이 중요해지면서 이러한 고지 마을이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마을은 대동강 유역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전기의 마을 유적으로 보아 대체로 20~30채로 이루어진다. 작은 마을은 5~10채, 큰 마을은 그 이상인 경우도 있겠지만, 수백 채가 되는 큰 마을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요령성 심양의 정가와자무덤처럼 다량의 청동기를 소지한 우두머리가 직접 다스리는 국의 중심지, 즉 국읍의 경우에는 100여 채가 넘는 큰 마을일 가능성이 있다. 고조선이 그 중심 도읍지에 수천, 수만 명의 도시를 건설한 것은 성숙한 국가 사회로 발전한 기원전 2세기 이후 위만조선 단계일 것이다. 그 때에 이르러 왕이 거처하는 궁정지와 지배 귀족과 장군들이 거주하는 고급 주택지가 조성되었으리라 짐작된다.



대련 바닷가의 쌍타자 유적

그 이전 기원전 1000년 초에 고조선은 여러 소국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며, 이들 소국은 다시 다수의 크고 작은 마을로 이루어졌다. 청동기시대 마을에는 도랑으로 만든 환호와 나무 울타리로 에워싸서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비하기도 한 환호 마을이 고조선 지역에서는 조사되지 않았으나, 부여 송국리 등지의 예를 볼 때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고조선의 일반 사람들이 살았던 집은 쌍타자 유적에서 보듯 돌을 쌓아 만든 집도 있지만, 30~50cm 정도의 깊이를 파서 평면 장방형을 만들고 진흙과 풀을 이겨서 벽체를 세운 것이 대부분이다. 벽체를 세울 때 나무 기둥을 촘촘히 박아 기본 틀을 만든 경우가 많으며, 고급 주택인 경우 판자를 조립한 경우도 있음이 유적의 불탄 목탄 흔적을 통해 알 수 있다. 대동강 유역의 평양 남경, 울산 무거동 옥현 유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집자리 평면이 원형이고, 벽체와 지붕이 구분되지 않는 원뿔 모양의 집자리는 남한에서는 확인되었으나 고조선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장방형의 평면이 대부분으로, 집 바닥에서 발견되는 화덕을 이용하여 취사와 난방을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지붕은 대부분 맞배지붕으로서, 집자리 바닥에 남긴 기둥 구멍을 통하여 확인되는 2~3렬의 기둥으로 떠받친 모양을 하고 있다.

집 안에 칸막이 시설은 거의 확인되지 않지만, 식량 저장과 도구 제작, 조리·식사와 취침 등이 별도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 한쪽에는 돌도끼, 돌화살촉, 돌단검 등 남자들이 주로 쓰는 도구, 다른 쪽에는 그릇, 실 뽑는 가락바퀴 등 여자들이 쓰는 도구가 남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남녀 간의 생활 공간도 구분된 것으로 보인다.



평양 남경 유적과 탄화미



진주 대평리 청동기시대의 밭 유적

집자리 내에 화덕이 두 기 이상 배치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화덕별로 다수의 핵가족(단위 가족)으로 구성된 확대 가족이 한 집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그것은 연령이나 성별로 모인 것일 수도 있다.



초기 철기시대의 나무 극쟁이

그러면 이제 농업과 교역 활동에 대해 알아보자.

중국 화남 지역에서는 신석기시대에 논에서 벼가 재배되었지만, 고조선 지역에서는 이 단계에 와서 벼농사가 이루어졌다. 요동 반도 남단의 대취자 유적, 대동강 유역의 남경 유적에서 발견된 탄화미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남한에서 조사된 같은 시기의 논과 밭 유적을 통하여 고조선 지역에도 경작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울산 무거동, 경상남도 밀양 등지에서 논두렁과 관개 수로가 시설된 논 유적이 발견되었고, 진주 남강 대평리에서는 이랑과 고랑이 정연한 밭이 강가 가까이에 조성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논밭이 대동강 유역에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논·밭농사의 발전은 물론 농기구의 발달과 맞물리는데, 함경도 함주 주의리에서는 이 시대의 나무 극쟁이가 발견되어 가래 농사가 시작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 신석기시대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알곡 수확 도구로서 다양한 형태의 반달돌갈과 돌로 만든 예리한 날의 돌낫이 발견되어 벼 등의 알곡 작물의 수확량이 많아졌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준다. 알곡은 썩어서 발견되는 것이 없지만, 한반도에서 건너간 것이 분명한 일본의 논

농사와 관련된 유적과 광주 신창동 등의 남한 지방의 조사 사례로 미루어 보면 근대화 이전까지 농촌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목제 농기구인 가래, 보습 등은 이미 고조선시대에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농사를 포함한 생업 활동에 필요하거나 이 시대에 빈번해진 집단 간의 싸움에 필요한 도구는 대부분 석기로서 곱게 갈아 만들어 썼으며, 아울러 구리와 주석을 섞어 만든 청동기를 처음 만들어 사용하였다. 청동 야금술은 그 이전의 도구 제작 시스템과 달리, 전문적인 장인이 일정한 공방 시설을 갖추고 원료를 조달하여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그 공정을 담당하는 전업적인 수공업 체제를 본격적으로 갖춘 것이 주목된다. 이는 많은 집자리에서 완성되지 않은 석기 가공품(돌회살촉, 돌도끼, 돌단검, 돌칼 등)이 발견되는 예로 미루어 농경 등의 다른 생산 활동에 참여하면서 반전업 혹은 여가 형태로 석기 제작이 이루어진 것과 비교가 된다.

청동기 생산은 생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의식주가 해결되는 전문 장인이 등장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전문 장인은 구리와 주석 원료를 직접 광산에서 캐거나 교역을 통해서 확보하고, 야금을 위한 공방 시설과 제련을 이용하여 구리 소재를 만든 다음, 거푸집을 만들고 녹인 구리를 부어 제품을 만드는 복잡한 과정을 습득하고 이를 행하는데, 이는 실력 있는 사람이나 권력 기구의 후원이 없으면 곤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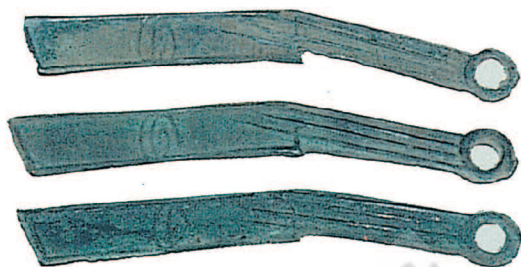
물자를 교환하는 것은 신석기시대에도 있었지만, 이 시대에 더욱 활발해졌다. 우선 다양한 입지에 거주하므로 각각 얻을 수 있는 자원이 달라 서로 생산하는 물자가 다르기 때문이지만, 야금술 등의 전문화된 신기술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정 지역의 제품이 보급되면서 교환과 교역이 촉진되었다.

고조선시대의 이른 단계부터 생필품을 맞교환하는 공간이 마을 간의 중간 지점, 또는 교통 거점지에 성립되었을 것이나, 고조선 후기에 가서야 본격적인 시장이 갖추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내륙에서는 목제품과 짐승 가죽 등을, 해안 지역의 마을에서는 소금과 해산물 등을 상품으로 사고 팔았을 것인데, 전문적인 상인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



초기 철기시대의 농경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농경문청동기

다. 문헌 기록에서, 위만조선 단계에 고조선이 삼한과 중국과의 원거리 무역에서 중계 역할을 하는 것을 볼 때, 정치적이거나 공적인 후원을 받은 사람들이 전문적인 상인으로서 활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명도전

또, 중요한 것은 물품을 교환할 때에 화폐를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이다. 동북 지방과 서북한에 걸쳐 다량의 명도전이 발견되는데, 이 화폐가 이 지역에서 중요 상품 거래에 사용되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연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고조선과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 고조선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화폐를 발행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나, 고조선 8조법금에 화폐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에 화폐가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중국 전국시대나 진·한대의 화폐를 제한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조선 지역에서의 화폐 주조를 입증하는 거푸집은 고조선 붕괴 이후의 한 근현 지역에서 발견되는바, 일화전 등의 고조선 화폐 주조설은 아직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끝으로, 지배층의 생활과 종교 활동에 대해 알아보자.

농업 위주의 정착된 마을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전문 장인의 출현으로 사회가 급속도로 분화된다. 또,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국가 세력과 북방의 유목 민족과의 전쟁과 교역 등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고조선 지역의 사회 조직은 급속도로 분화되고, 지배 엘리트가 출현한다.

지배 엘리트의 출현과 그 생활을 말해 주는 증거는 대롱하, 요하, 대동강 유역에서 다량의 청동기를 부정하는 덧널무덤, 널무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들은 청동으로 만든 무기, 검과 창을 보유하게 된다. 평상시에는 권위의 상징으로서 휴대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로 사용하였으며, 일반 군사들은 돌로 만든 검이나 목기로 무장한 것으로 보인다.

심양 정가와자 등의 무덤 유적을 살펴보면, 이미 전기 고조선 단계에 지배 엘리트는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다녔으며, 또 지배층 사람들은 금빛이 나는 청동 단추로 장식한 장화를 신었음을 알 수 있다.

청동기시대 초기의 웅만한 집자리에서는 실을 뽑는 데 사용되는 가락바퀴가 다량 출

토되는 것으로 보아, 옷감과 옷을 만드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마나삼과 같은 식물에서 뽑은 고운 세사의 천으로 만든 옷을 입었을 것이다. 다소 늦은 시기 삼한 지역에서 비단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고, 일본 야요이시대의 유적에서 비단과 관련된 증거가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위만조선 단계의 최고 신분층이 비단 옷을 입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왕이 거처하는 궁정 시설은 고조선 말기에 와서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발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지는 못하였다. 위만조선 단계의 왕실과 지배 귀족이 거처하는 집이 당시 고조선과 전쟁과 교역을 통해서 교류하였던 연나라 수도인 연하도에서 많은 기와가 발견되어, 기와를 덮은 목조 건물일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지붕은 초가 양식일지라도 일본 야요이시대 후기의 고상 가옥처럼 지상에 여러 층의 목제 기둥과 보를 만든 다층 가옥으로서, 규모가 큰 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건물일 가능성이 있다.

고고학적으로 고조선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죽어서 묻힌 무덤과 그 장송 의례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다량의 청동기를 부장한 특별한 무덤의 주인공과 달리, 대부분의 토착 지역 사람들은 처음에는 돌로 짠 무덤에 묻히거나 돌무더기를 쌓아 올린 예가 요동 지역의 여러 곳에서 확인된



장하 대영산의 탁자식 고인돌

다. 토착 주민 중에 상위 신분에 있는 사람들, 족장 또는 군장 및 그에 버금가는 사람들은 요동~서북한 지역에 걸쳐 많은 사람이 장기간 동원되어 축조할 수 있는 거대한 탁자식 고인돌에 묻혔다. 고인돌로 가장 큰 것은 요령성 개주 석봉산과 황해도 은율 관산리의 예로, 높이가 3m, 상석 길이가 8m 정도 된다.

이러한 탁자식 고인돌이 주위보다 우뚝 높은 구릉 정상부에 세워져 멀리서 잘 보이는 바, 마을의 권역 내지 수호의 상징물로 보인다. 이러한 탁자식 고인돌이 있는 구릉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죽은 조상에 대한 의례 행위뿐만 아니라 마을 구성원이 전부 참여하는 공동체 전체의 축제를 치르기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조상 숭배에 대한 제사가 마을 구성원들에 의해 치러졌지만, 앞에서 보듯이 다량의 청동기를 부장한 지배 집단이 새로 대두되면서 그들이 주재하는 하늘에 대한 제의 행사가 활발하게 치러졌다. 또, 토착 고인돌 집단 세력의 공간을 피하여 무덤의 위치를 잡은 새로운 세력의 최고위층은 조상 숭배보다는 하늘이나 태양에 대한 제사에 더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소장한 기하학문경은 태양을 상징한 것으로, 제사장의 종교적 위세를 상징한 신성스러운 의기이다. 고조선 영역에서 벗어나지만, 삼한 지역에서는 청동 거울과 함께 각종 청동 방울이 더 나와 그들이 제의 행사를 주재하는 제사장임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최고 실력자가 하늘에 대하여 직접 주재하는 제사 의례를 통하여 각 소국의 구성원들은 결속력을 다지고, 나아가 소국 간의 연맹이 더욱 공고히 되면서 고조선은 성숙된 국가 사회로 발전하였을 것이다.

# 신화 속에 그려진 고조선

서영대 | 인하대학교 |

古  
朝  
鮮

**한** 국사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국가는 고조선이며, 고조선은 단군에 의해 건국되었다고 전한다. 그렇다면 단군이 누구인지가 궁금해진다. 단군과 관련한 가장 오래 된 문헌은 알다시피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이다. 이들 사료는 비록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고조선의 건국 시조인 단군을 하늘신과 지상을 대표하는 신의 결합을 통해 태어난 신성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인 구조를 같이하고 있고, 이러한 점이 바로 단군 전승을 이해하는 데에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신화를 보는 데에는 어떠한 관점이 있으며, 또 어떠한 관점이 필요할까?

『삼국유사』를 통해 전해지는 단군 전승은 일종의 신화라고 할 수 있다. 초자연적 존재들이 활동하고 초현실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군신화에 대해 일종의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신화란 허구이며, 사실을 말하는 역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나아가, 단군신화라는 표현은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단군의 존재를 말살하기 위해 붙인 것이라고까지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 학자들이 단군신화가 아니라 단군 전설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그만두고라도, 이것은 신화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역사를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신화 역시 일종의 역사이다. 왜냐하면, 신화는 우주, 인류, 문화의 기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화에서는 주인공이 현실 세계의 인물이 아닌 신이나 영웅이며, 배경도 현실적 시간과 공간의 좌표를 벗어난 초현실적인 시공까지 포함한다. 나아가, 사건의 전개 과정도 경험적 인과 관계에



아달산(평양시 강동군) | 최근 북한에서는 이 산이 단군의 아사달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한 마디로 신화에서는 어떤 주어도 용납되며, 모든 주어는 어떤 술어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화는 실제 있었던 일, 즉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신화에서 사실 여부를 따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첫째, 신화는 사건을 전함에 있어 직설적 표현이 아니라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왕은 사자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자가 왕 노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왕은 사자처럼 용맹하다는 의미이며, 일종의 은유이다. 이러한 은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자가 왕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진다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신화는 사실보다 진실을 말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을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진실은 있었다고 여겨지는 일이다. ‘여겨진다는 것’은 일종의 해석이 가해진 것으로,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가령, 예수님의 부활이란 비(非)기독교인들에게는 사실이 아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사실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진실이며, 신앙의 절대적 근거이다.

이렇듯 사실과 진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화는 사실보다 진실을 우선한다. 다시 말해서, 신화는 과거 사실의 객관적 전달보다 그것의 현재적 의미를 드러내는 데에 중점을 둔다. 여기서 현재적 의미란 현실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모든 질서는 신화시대 신들의 섭리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하며,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신화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때문에, 정당화의 필요성에 따라 강조되는 신화가 바뀌기도 한다. 로마의 경우, 건국신화가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트로이 유민인 아에네아스(Aeneas)에 의해 건국되었다는 신화이고, 다른 하나는 군신 마르스와 베스타 신전의 무너 사이에서 태어난 로물루스(Romulus)에 의해 건국되었다는 신화이다. 그런데 로마가 헬레니즘 문화의 계승자를 자처하면서 그리스 문명에 개입할 때는 전자의 전승이 강조되었고, 로마의 독자성을 지킬 필요가 있을 때는 후자의 전승이 강조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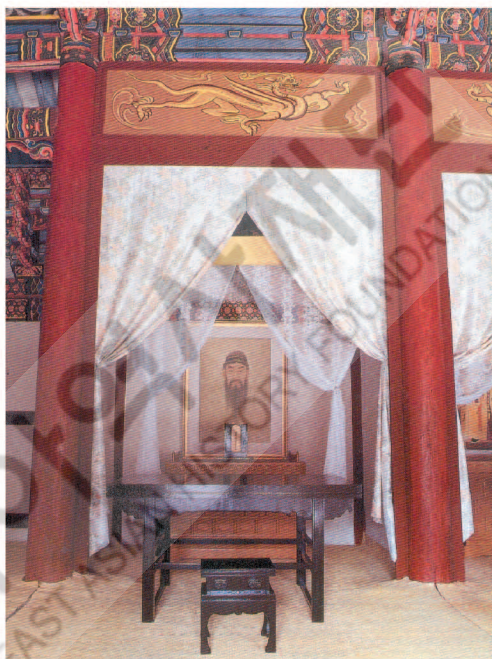
그러므로 신화의 사실성에 집착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의 사실을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화의 본질을 간과한 질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신화에 대한 올바른 질문은 무엇일까? 그것은 신화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신화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는 작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군신화를 해석하면, 단군신화란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해서 등장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군신화는 고조선의 건국신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군이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고조선을 건국했는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고, 단군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뿐이다. 그렇다면 고조선의 성립을 말하면서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갔을까?

단군의 할아버지인 환인(桓因)은 하늘신이다. 하늘신은 많은 종교에서 최고의 신(supreme being)으로 숭배된다. 바로 이 환인으로부터 지상의 통치권을 위임받아 지상을



승령전 내부



평양의 단군 사당인 승령전

통치한 신이 단군의 아버지 환웅이다. 또, 단군의 어머니인 곰은 유라시아 북방이나 북아메리카 여러 민족 사이에서 산신, 신의 사자, 샤먼(shaman)의 수호령, 토텐(totem) 등으로 숭배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고조선 당시에는 곰도 신성 동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군의 어머니도 신성한 존재가 된다. 이렇듯 단군은 부모 양쪽으로부터 신성한 피를 이어받았으므로, 그 자신도 신성한 존재로서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1908세의 수명을 누리다가 아사달에 들어가 산신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단군신화는 고조선의 시조가 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정치 권력도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가능할 때 권력(power)은 권위(authority)를 획득할 수 있으며, 지배층, 피지배층을 막론하고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권력은 합법성을 가지지 못하고 폭력에 불과하게 된다.

정당화의 논리는 다양하다. 개인의 카리스마나 인간적 장점일 수도 있고, 전통적 권위의 계승자라는 것일 수도 있으며,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다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단군신화는 고조선의 정치 권력을 권위화하는 논리라 할 수 있다. 즉, 고조선의 시조는 혈통상 지극히 신성한 존재이므로, 그에 의한 지배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 단군신화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화와 의례는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신화를 연극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신화이며, 의례의 존재 이유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신화이다. 이와 같은 일반론이 단군신화에 적용될 수 있다면, 단군신화는 고조선에서 정기적으로나 비정기적으로 재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우주의 질서를 갱신하는 신년 제의(new year ceremony)는 전자의 경우에 해당할 것이고, 국가의 질서를 새롭게 정립하는 군장의 즉위식은 후자의 경우를 대표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례들을 통하여 단군신화를 재연함으로써 정치 권력의 유래를 설명함과 동시에,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과시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조선의 정치 철학의 일면을 읽을 수 있다. 즉, 왕의 자격으로 영웅적 행위보다 초월적 영역에 가까이 갈 수 있는지가 우선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왕은 초월적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상에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군의 아버지 환웅이 인간 세상을 교화하면서 바람의 신, 비의 신, 구름의 신을 거느렸으며, 인간의 질병 및 수명 문제에도 관계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다.

뿐만 아니라 단군의 말뜻도 이를 뒷받침한다. 단군의 완전한 명칭은 단군왕검이다. 그

런데 단군왕검이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단군은 무당 내지 제사장이라는 뜻으로 종교적 지도자를 나타내며, 왕검은 임금과 통하는 것으로 정치적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군왕검이란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 고조선에서 군장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라 할 수 있으며, 단군의 재위 기간이 1500년이 넘는다고 한 것도 역대 단군의 재위 연수를 합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고조선 단계의 정치 권력은 신성 왕권(divine kingship)이며, 고조선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단계의 사회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이상에서 신화는 사실보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단군신화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신화에는 역사적 사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까? 신화 역시 시대의 산물인만큼 당시인의 사고나 관념이 투영되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가운데 역사적 사실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먼저 고조선의 성립 과정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신화에서 개인은 집단을 표상하는 경우가 많으며,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종족의 이동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환웅의 천강(天降)은 보다 앞선 문화를 가진 종족이 이동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 곰은 토데미즘의 존재, 나이가 토렘으로 상징되는 집단의 존재를 시사한다. 그러나 이 집단은 토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진적인 사회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할 때, 환웅과 곰이 혼인하여 단군을 낳았다는 것은 선진적 이주 세력과 후진적 토착 세력이 연맹하여 고조선을 탄생시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단군신화가 고조선의 정치 권력의 출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정치 권력이 등장하는 것은 언제일까? 이에 대해 『삼국유사』에서는 중국의 이상적 군주인 요(堯) 임금 50년이라 했고, 조선 초에 나온 『동국통감』에서는 요 임금 25년이라 했으니, 단기 원년을 기원전 2333년으로 보는 것은 『동국통감』의 설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연대를 그대로 믿어도 좋을까? 또, 고고학에 의하면 기원전 2333년은 신석기시대인데, 고조선은 신석기시대에 이미 출현했다는 것일까?

단군신화에는 그것의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환웅이 곡식의 문제를 주관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고조선이 수렵 채집 단계에서 벗어나 농경 사회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나타낸다. 또, 환웅과 곰, 그리고 호랑이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사회 집단을 표상한다고 여겨지는데, 고조선은 여러 집단으로 이루어진 다세포적(多細胞的) 사회였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환웅이 곰과 호랑이 위에 군림하는 점으로 미루어, 계급이 출현하고 집단 간의 불평등 관계가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신석기시대는 농경이 보편화되지 못했고, 사회 계층의 분화도 뚜렷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정치 권력도 등



금주 오금당무덤 출토 유물들



요령성 출토 비파형동검

장하지 않은 사회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므로 고조선의 성립을 지금으로부터 약 5천 년 전인 신석기시대로 보기는 어렵다.

농경이 확대되고 사회 계층의 분화가 진전되면서 정치 권력을 중심으로 집단 간의 결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청동기시대에 와서이며, 우리 나라 청동기시대의 시작은 기원전 천수백 년을 넘지 못한다. 따라서, 단군신화의 시대적 배경도 기원전 10세기 전후의 청동기시대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환웅이 홍익인간(弘益人間), 즉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지상에 내려왔다는 점이다.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현재 우리의 교육 이념으로 채택되고 있지만, 이것을 청동기시대의 분위기와 관련시켜 볼 때, 청동기시대로 오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정치 권력을 중심으로 여러 집단이 비교적 평화롭게 결속해 나가는 이념적 토대가 바로 홍익인간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치열한 전투와 정복이 아니라, 상호 관계를 통해 연맹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단군신화의 시간적 배경이 청동기시대라면, 공간적 배경은 어디일까? 『삼국유사』에 의하면, 단군이 처음 도읍한 곳은 아사달 또는 평양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단군신화의 지리적 무대는 대동강 유역이 된다.

그러나 고대의 지명은 오늘날처럼 한 지명이 한 곳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명이 여러 곳에서 사용되었다. 그것은 종족이 이동하면서 지명도 함께 따라다니거나, 지형이나 방위가 비슷하면 같은 지명으로 불렀던 데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평양만 하더라도 강을 끼고 있는 넓은 벌판이라는 의미로, 고대에는 지금의 평양뿐만 아니라 서울도 평양으로 일컬어졌으며, 압록강 유역에도 평양이라는 지명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므로 단군신화의 평양을 대동강 유역으로 한정시킬 수만은 없다.

오히려 고조선의 중심지는 중국 요령성의 요하 유역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왜냐하면, 『관자』, 『산해경』, 『전국책』 같은 중국의 고대 기록들이 고조선이 일찍부터 중국과 교역하는 등 중국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조선의 표지적인 유물·유적으로 비파형동검, 다뉴기허학문경, 미송리형토기, 돌덧널무덤, 고인돌, 돌널무덤 등을 꼽고 있는데, 이들이 함께 출토되는 지역이 대체로 요하 유역~청천강 이북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단군신화는 청동기시대에 요령성의 요하 유역을 중심으로 고조선이라는 정치적 사회가 성립되었음을 배경으로 하는 신화라 할 수 있다.

# 동북공정 속에 그려진 고조선

조법종 | 우석대학교 |

古  
朝  
鮮

## 최

근 중국은 동북공정의 중심 연구 과제로서 고구려, 발해 문제와 함께 고조선 및 동북 고민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고구려의 전 단계 역사로서 고조선까지도 중국사의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근거로서 중국의 태양 숭배 신화인 탕곡(湯谷)신화와 명이(明夷)라는 표현이 조선(朝鮮) 명칭의 기원이



동북공정을 주관하는 중국사회과학원

라고 주장하고, 단군신화도 중국신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먼저 '조선'이라는 표현은 『산해경(山海經)』에 나타나고 있는 탕곡(湯谷)이 조선의 명칭이며, 『주역(周易)』에 나오는 명이가 은나라 시대 조선의 명칭이라고 주장하여 조선 명칭 또한 상·주(商·周) 때 만들어진 중국 문자라고 보고 있다. 또, 『사기(史記)』에 나타난 삼황오제 중 황제의 후손인 전옥고양(顓頊高陽)족단의 문화 가운데 새알을 삼키고 자식을 낳는 신화 등을 연결시켜 이것이 동이족의 고이(高夷) 문화이고, 고이가 고구려문화의 연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적 중화주의가 강하게 피력된 일부 후대 기록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은·주 교체기에 기자(箕子)가 조선으로 갔다는 이른바 '기자 동래(箕子東來)' 설화에 근거하여 '기자조선'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즉, 중국민족을 구성하는 화하민족과 함께 역시 중국민족의 한 부분으로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동이족 계통의 기족(箕族)이 이미 갑골문, 금문에 존재하였고, 은말 주초 은나라의 신하였던 기자가 동쪽 조선으로 피난하였다는 설화가 중원민족인 기족이 '동북 고민족(東北古民族)'의 하나가 되는 계기로서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동북공정의 1차 기획 연구인 장벽파(張碧波)의 『기자여기자조선연구(箕子與箕子朝鮮研究)』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기자 문제에 대한 중국 및 한국, 일본의 인식 내용을 소개하고, 조선반도의 고문명 형성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탕곡부상십일신화(湯谷扶桑十日神話)와 전옥고양문화(顓頊高陽文化), 그리고 은·상문화(殷·商文化)가 한국문화에 고르게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은나라의 후예가 조선반도에 세운 지방 정권으로 중국사에 포함되며, 기자는 실재한 철학자, 정치가로서 기자조선에서부터 중국 동북사가 시작된다고 보고 있다. 또, 기자조선은 주(周)에 신속하였고 진(秦)에도 신속한 해외 속국이고, 위만조선은 한(漢)의 외신으로 속국이었다가 한 무제의 조선 공략으로 한의 변강 지역으로 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자조선이 있으므로 위씨조선이 있었고 한의 4군이 되었으며, 고구려사와 발해사로 연결되어 기자조선이 바로 중국 동북사의 개시라고 천명하고 있다.

또, 중국의 고대 동북 지구 3대 종족을 숙신계(肅慎系), 예맥계(濊貊系), 동호계(東胡系)로 구분하고, 이들 세 계통의 민족 기원과 성장, 발전, 유향, 귀속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이들의 활동 무대가 현재의 중국 영역이라는 사실과 중국과의 단편적인 접촉 사실 등을 근거로 "동북 고민족의 발전사는 중국 역사의 범주에 종속된다."라는 것을 연구의 결과로서 부각하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학계의 단군조선-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로 연결되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변강사지연구중심

는 역사 계승 인식은 비합리적, 비역사적 연구의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연구가 “중국 동북 고민족의 발전 맥락을 어지럽히고 중화 민족의 혈연 계통을 끊었다.”라고 피력하고 있다.

결국, 중국 학계는 동북공정을 통해 한민족의 뿌리인 단군과 고조선의 성립부터 중국 계통의 문화와 종족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역사 왜곡을 행하고 있으며, 이들 역사는 중국 역사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여 고구려 이전의 역사까지도 중국사로 바꾸려는 역사 침략을 자행하고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내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민족과 관련된 구체적 역사 사실을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사실과 연결지어 특수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즉, 조선 명칭의 기원을 중국의 태양 숭배 신화인 ‘탕곡부상십일신화’와 연결짓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탕곡부상십일신화’는 “열 개의 태양이 하나씩 동쪽 탕곡이라는 계곡에서 목욕하고 부상나무 위의 가지로 올라가 하늘로 여행을 떠나 서쪽편에 도착하여 하루가 된다.”라는 『산해경』에 나오는 내용이다.

여기서 중국 학계는 단지 해가 뜨는 곳이라는 내용만을 근거로, 단순히 아침을 의미하는 한자인 조(朝)가 명칭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선(朝鮮)과 이 신화를 연결짓는 논리 비약을 행한 것이다. 또, 굳이 탕곡 명칭



중국의 고구려 연구 전담반 간판

과 관련된 기록을 찾아본다면 이는 『사기』에 우이(嵎夷)와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의 동쪽인 현재의 산둥반도 일대 청주(靑州) 지역에 대한 표현으로, 이 곳과 조선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역사적, 지리적 근거가 전혀 없다.

즉, 『사기』 「오제본기」에서 언급된 내용은 동방 청주 지역에 우이가 거하며, 그 곳은 해가 뜨는 곳으로 별이 잘 들고 밝은 땅(陽明之谷)이라는 의미이다. 이 내용은 결국 중국의 동쪽, 현재 산둥 일대의 청주 지역에 대한 표현으로, 이 곳과 조선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역사적, 지리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단지 '일출(日出)'이라는 현상을 근거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어 이 같은 인식의 근거가 매우 박약함을 보여 주고 있다.

또, 『산해경』에서 탕곡은 흑치(黑齒)의 북쪽이라고 하였는데, 이 역시 앞서 지적된 산둥 일대와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이 지역은 결코 현재의 요동반도나 한반도 지역과 연결지을 수 없는 일출 지역에 대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또, 조선 명칭은 이미 『사기집해(史記集解)』에서 지적된 것처럼 습수(濕水), 열수(冽水), 산수(山水) 등 세 강과 관련된 명칭으로서, 일출 지역이라는 현상보다는 강의 합류처와 관련된 지리적 성격이 강한 명칭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단군신화를 중국신화에 나타나는 신성한 존재의 출현이 초인간적인 상황 속에 전개된다는 일만론을 바탕으로 중국신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에 근거하여 단군신화가 중국문화의 반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단군 관련 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곰 숭배 신앙으로, 중국신화와는 소재와 신화 구조 형태가 전혀 연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 민족과는 전혀 무관한 한국의 신석기문화를 담당한 고아시아족의 곰 숭배 신앙과 연결되는 내용임이 이미 우리 학계의 연구 성과로 확인되었다.

한편, 중국 학계는 중국의 동북 지역 확장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계기로서

기자 동래(箕子東來)를 들고 있다. 이는 중국의 현인인 기자가 신하인 주 무왕이 은나라를 붕괴시키고 새롭게 왕이 되자 그를 섬길 수 없다 하고는 조선으로 피난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는 기원전 12세기경의 사실인데, 이 내용은 허구라는 사실이 한국 및 일본 학자에 의해 확인된 상황이다. 즉, 이 사실을 전하는 『상서대전(尙書大典)』 등의 사료는 중국이 가장 우월한 민족이라는 인식을 대표하는 기록으로, 기자가 조선으로 갔다는 내용은 다른 역사서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유독 이 기록에만 나온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같이 사료의 문제성과 기자 자체의 실존도 부정되는 상황에서 기자 동래라는 가공의 상황으로 고조선에 중국문화가 이식되어 꽃피었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특히, 이 시기가 한국에서 청동기문화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점과 이 청동기문화가 중국과는 계통과 성격이 다른 비파형동검과 돌널무덤 및 고인돌 등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동북 고민족이라는 용어를 통해 고대 종족이 동북 지역에서 하나의 동일한 명공동체로 유지되었다는 견해를 중국 학계는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른바 동북 고민족이라는 개념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내용에 문제가 많다. ‘동북’이라는 표현은 현재 중국에서 동북 방향에 위치한 지방을 의미한다. 즉, 현재의 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을 함께 지칭하는 동북 3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중국의 행정 구획에 의한 명칭일 뿐이며, 이 지역이 하나의 동일 문화나 역사에 의해 포괄된 지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데 동북 고민족이라는 표현은 마치 이전부터 이곳이 하나의 동일 문화권이나 정치적 통일체가 존재하여 이를 단일 개념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 이는 우리가 인식하는 ‘동북’ 개념과도 다르다. 즉, 현재의 ‘동북아시아’ 개념의 동북과는 기준과 범위가 다른 지극히 중국적인 명칭이며, 이 같은 현재 중국에 의해 정치적 포섭과 영유권이 전제된 목적성이 있는 명칭 속에 계통과 문화가 다른 고대 종족을 ‘고민족(古民族)’이라는 표현으로 망라하는 것은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과거에 그대로 투영한 것으로서 중국의 패권주의적 역사 인식을 명확히 보여 준다.

특히, 이 인식의 문제점은 동북 고민족이 전통 중국 사서에 나타난 동이나 북적 등 외국인으로 파악된 존재를 망라하고 있는 점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화이관(華夷觀)에 입각하여 외국사로 명확히 기록되었던 존재였다. 더욱이 진시황의 만리장성 이래로 공간적으로도 중국사에서 제외된 지역을 중국사로 편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진시황이 쌓은 만리장성의 동쪽 끝인 갈석(碣石)은 현재의 산해관(山海關) 지역에서 찾는 견해가 유력하며, 가장 확대된 연(燕)시대의 경우도 현재의 요하 및 훈하 부근의 요동 지역에

서 찾아진다. 이들 지역은 현재의 요령성에 국한된 영역으로 흑룡강, 길림 지역은 포함되지 않아 '동북' 지역의 극히 일부에 국한되어 이런 인식의 문제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 밖에도 위만조선의 정치적 신속을 강조하거나 한 군현의 존재를 부각하는 중국측 입장은 위만의 종족적 성격이 동이계임이 이미 확인되었고, 한과의 정치·군사적 갈등 속에 설치된 한사군은 위만조선 내부의 정변에 의한 한과의 정치적 타협으로 나타난 결과이며, 삼군이 20여 년 만에 폐지되거나 중국 내륙으로 이동한 것은 고구려 등 토착 세력의 정치·군사적 성장에 의한 것으로서, 고조선-고구려로 연결되는 역사 계승성과 독자성을 반증하는 내용이다.

이상에서 정리한 것처럼, 중국 학계는 최근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고구려사만이 아닌 우리 민족사의 근간인 고조선 문제를 중국적 입장에서 왜곡하여 고구려 이전 단계에서부터 중국사에 우리 민족사가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기자 동래설 등을 근거로 설명하는 이상의 논리는 기자 동래설 자체가 허구이며 중화적 우위성을 부각하기 위한 역사적 가공이라는 사실에 의해 성립될 수 없는 역사적 사상 누각이다. 특히, 고고학적으로 중국의 청동기문화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고인돌과 비파형동검문화로 대표되는 이 지역의 독자적 문화 내용에 대해 중국 학계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적극적으로 역사 문헌적 반론과 함께 이 지역의 고고학적 독자성을 부각시켜 중국문화와의 차별성과 독자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 풀어야 할 과제들

오강원 | 고구려연구재단 |

古  
朝  
鮮

고 조선은 역사와 문화 두 방면에서 우리 민족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역사적인 면에서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근세조선의 예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한국민족의 정치와 역사적인 원형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문화적인 면에서는 고조선문화가 철기시대 전기 또는 원삼국시대 요동, 길림, 한반도에 소국(小國) 등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정치체의 형성에 직접, 간접으로 물질문화적 바탕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조선은 이처럼 한국사, 한국민족, 한국민족문화 모두에서 역대 한국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려시대의 고승 일연(一然)은 『삼국유사』의 첫머리를 고조선으로부터 시작하였고, 같은 시기의 학자 이승휴(李承休)는 『제왕운기』에서 고조선 이후 요동, 길림, 한반도에서 일어난 고구려, 신라, 북옥저, 남옥저, 북부여, 동부여, 예맥이 모두 단군(高조선)의 후계라고 하였으며, 조선 태종 대의 정치가 허조(許稠)는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을 특별히 제사 지낼 것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고조선은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면이든 문화적인 면이든 간에 그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즉, 어떤 사람은 단군신화에 나타나 있는 고조선 개국 연대와 이야기를 실재적인 역사 자체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준왕 대의 고조선과 위만조선만을 고조선으로 보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이 빚어지게 된 원인은 익히 알고 있듯이 고조선에 관한 초기의 믿을 만한 기록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고조선문화의 경우에는 더욱 모호하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문헌 자료와 고고학적 현상을 바탕으로 하여 위

만조선 전후의 최소한의 상황이 밝혀지게 되었다. 즉, 기원후 6세기 전반 북위(北魏)의 역도원(郦道元)이 고구려 사신으로부터 직접 들은 전문, 준왕 대 고조선과 위만조선 및 낙랑군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준왕 대 고조선의 중심지와 위만조선의 왕험성 및 낙랑군의 조선현이 지금의 평양에 위치하고 있었고,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한 지역의 세형동검문화가 곧 준왕 대 고조선과 위만조선의 문화라는 것이다.

고조선에 관한 위와 같은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그간 꾸준히 이루어진 관련 연구의 개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조선, 고조선문화에 관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것이 많다. 고조선은 평양을 지역 기반으로 성장한 한반도 토착의 나라인가, 아니면 준왕 대 이전에 다른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었는가, 준왕 대 이전에도 고조선이라는 정치적 실체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그 사회는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었는가, 고조선 문화의 실제와 근간은 무엇인가 등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즉, 어떤 연구자는 고조선이 서북한의 토착 문화인 고인돌 집단이 기원전 5~4세기 요동 지역의 발달된 청동기 제작 기술을 수용하여 이를 발전시키는 가운데 세형동검문화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물질 문화의 성숙이 결국 고조선 탄생의 배경이 되었다고 보는 반면, 어떤 연구자는 고조선과 그 문화의 원류가 내몽고 동남부의 후기 신석기시대 지역 문화인 홍산문화(紅山文化)에 있고, 고조선의 탄생 배경이 홍산문화의 후계 문화인 같은

요령성 능원현 우하량 홍산문화 유적



출토된 토기들



서북한 지역의 세형동검 관련 유물(황주 흑교리 출토)



소파적 유적에서 바라본 비파형동검문화의 요람 대릉하와 조양

지역의 하가점하층문화(夏家店下層文化)에 있다고 보기도 한다.

또, 어떤 연구자는 고조선 문화의 원류가 요서 지역의 십이대영자유형 비파형동검문화에 있고, 이러한 유형의 문화가 정가와자유형을 거쳐 서북한의 세형동검문화로 발전해 나갔으며, 세형동검문화 이전은 군장 사회에 속해 있었다고 보는 반면, 어떤 연구자는 십이대영자유형을 고조선 및 고조선문화와는 무관한 북방 유목 민족의 것이고, 고조선이 요동 남부의 고인돌문화를 근간으로 출현하였다가 전국연과의 전쟁으로 평양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 중 준왕 대 고조선과 위만조선이 성립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견해는 모두 나름의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서북한 고인돌 문화와 집단의 내적인 발전 견해는 고인돌문화가 묘제, 장속, 장법, 토기, 입지, 금속 기술 등의 면에서 뒤이은 세형동검문화와 전혀 다른 문화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즉, 세형동검문화와 고인돌문화는 물질은 물론 정신적인 문화, 생활문화와 상징문화를 전혀 달리하고 있다. 이 견해는 고조선의 2천여 리 상실 등 문헌 기록과 상충된다는 점에서도 무리한 점이 있다.

아울러 고조선과 고조선문화를 멀게는 홍산문화, 조금 가깝게는 하가점하층문화로부터 보는 견해 또한 이들 문화가 후기 신석기시대~전기 청동기시대 내몽고 동남부 지역의 지역성을 반영하는 문화로서 요령과 한반도 지역의 문화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즉, 만일 하가점하층문화, 나아가 하가점상층문화가 고조선의 출발점이라면 고조선은 한국사, 한국민족문화라기보다



요동 지역 고대문화의 요람 요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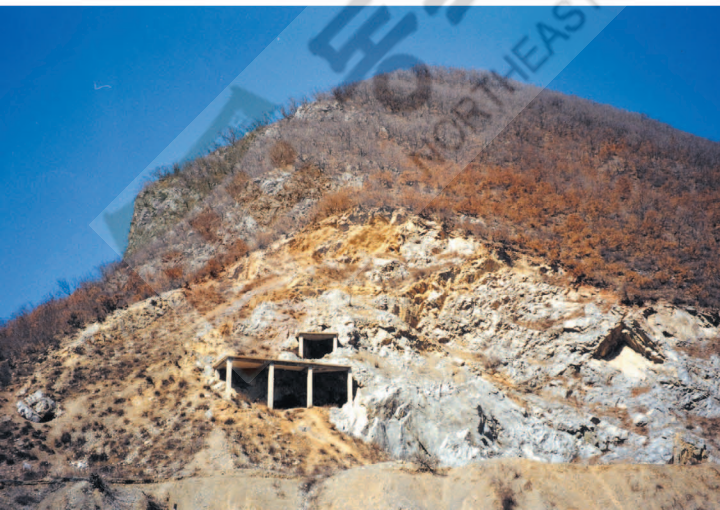


는 중국사도 한국사도 아닌 북방의 제3의 역사, 제3의 문화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고조선과 고조선문화를 요령과 서북한 지역에서 찾고 있고,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령에서 서북한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문제는 고조선의 구체적인 시·공간성이 어떻게 되는가, 결코 단일하지만은 않은 요령 지역의 여러 문화 양상 중 과연 어느 시기 어느 지역의 어떠한 유물 양상을 고조선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라고 할 수 있는데, 솔직하게 말해 아직까지 학계의 이렇다 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

따라서, 역사적이든 문화적이든 간에 고조선의 시·공간적 변천을 밝히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데, 고조선에 관한 신뢰할 만한 기록이 기원전 4세기 때(『위략(魏略)』)까지만큼, 결국 고고학적 접근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접근은 동북아시아 청동기문화의 문화 지형과 환경을 읽어 낼 수 있는 거시적인 분석과 함께 준왕 대 고조선과 위만조선의 물질문화인 세형동검문화를 기점으로 그러한 문화의 형성 과정과 요건을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는 미시적인 분석이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논의와 함께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이 사회적, 인류학적 접근인데, 관련 지역에서의 고고학적 조사의 불충분성과 소략한 보고가 주된 원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역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시각과 방법론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오동 북부 지역의 전기 청동기문화인 마성자문화의 대표 유적인 본계 모후산 동굴 유적 | 이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후기 청동기시대 같은 지역에서 돌널무덤으로 상징되는 대화방유형이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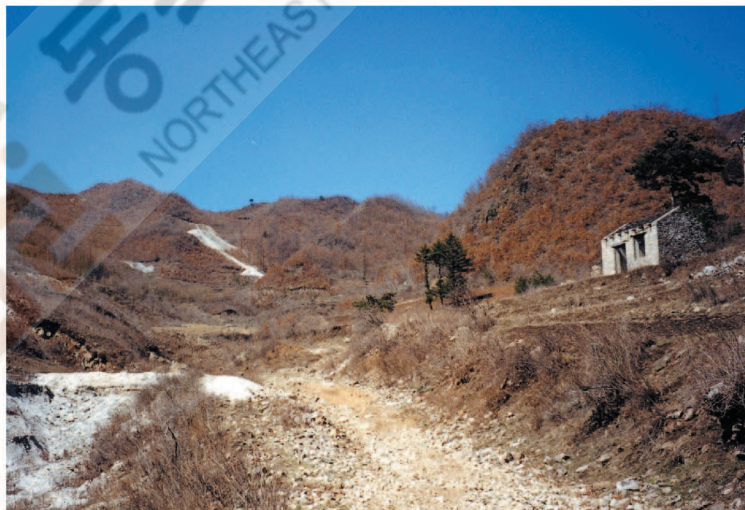


모후산 동굴 유적 세부

있는 것 또한 원인이다. 물론 그간의 연구가 문화권역, 유물·유적의 계통과 시간성, 족속 문제에 치우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관련 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충분하게 진행되어 있지 않았던 것과 연관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령과 길림 등지에서 기왕에 조사된 여러 유적을 새로운 시각에서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간 관련 연구자들이 지역군을 나누고 시간을 설정하는 사이에 놓쳤던 여러 사회·문화적 양상을 새롭게 밝혀 낼 수 있다. 선사·원사 시대 마을 유적의 입지와 배치 및 공간 활용, 개방형 마을과 방어성 마을, 마을과 무덤 유적 간의 관계, 유적 전반의 입지와 자원 활용 영역, 그리고 이러한 유적들을 통해 유추되는 사회적 관계와 생활상은 어찌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과제를 풀어 주는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

한편, 그간의 연구는 전통고고학의 범주에 놓여 있으면서도, 아이러니컬하게도 전통고고학적 방법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적·유물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은 허점을 보이고 있다. 익히 알고 있듯이, 유적·유물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통해 도출된 중상위 이론은 실제가 허약한 이론을 위한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요령 등지에서 확인되는 각종 토기와 청동기 및 석기, 그리고 무덤과 집자리 등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분석(고고학, 자연과학)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대화방유형 초기 단계의 돌널무덤인 본계 호구 유적

예를 들면, 과거 고조선의 표지 유물로 보았던 미송리형토기의 경우, 그간 꾸준히 이루어진 기초적인 분석을 통해 고조선을 대표하는 표지유물이 되기보다는 요동 북부 지역의 토착 문화인 돌널무덤 유적군(대화방유형)의 지역 형식일 뿐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비파형동검 또한 형태와 진화론적인 인식만을 근거로 요동 지역에서 발생하여 주변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의 연구를 통해 요서에서 발생하여 주변 지역의 모사 단계를 거쳐 점차 기술 자체가 확산되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왕에 유물·유적에 대한 인상주의적이면서 막연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기되었던 고조선과 그 문화에 관한 논의들은, 비록 아직까지 관성적으로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씩 수정되어 가고 있다. 즉, 고조선과 그 문화와 관련하여 세형동검 단계의 한반도에서 확인되는 유물복합을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문화적인 면에서는 십이대영자와 이도하자 단계(기원전 9~7세기)의 요서 지역과 정가와자 단계(기원전 6~4세기) 요동



청동기시대의 마을

고고학적인 접근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접근은 하나의 대상을 연구하는 데에 두 방법을 모두 활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조선사 중 일부분이 역사학(문헌학)의 범주를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필요하다. 즉, 고조선사 중 문헌에 드러나 있는 부분은 고작해야 기원전 4~2세기뿐이고, 그 이전은 제 손으로 기록한 것이든 남의 손을 통해 기록한 것이든 간에 완전한 무문자의 시대이다.

물론 단군신화까지를 고려한다면 고조선의 문헌 자료는 기원전 2333년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사건과 실재를 엮은 순수한 역사 자료라기보다는 상징과 이념 및 믿음의 요소가 깔려 있는 신화이다. 이렇게 볼 때, 기원전 4세기 이전의 고조선은 선사시대에 속하고, 그러한만큼 역사가 아닌 고고학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조선은 고고학과 역사학의 영역이 교차하는 지점이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시대보다 역사학자, 고고학자, 인류학자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 檀君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단군

단군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신화가 들려주는 단군 이야기

단군 사실을 전하는 기록들

신화속의 단군

신화속의 전설, 기자와 기자조선



# 단군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노태돈 | 서울대학교 |

檀君

단군은 한국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존재인가? 오늘날 우리가 지녀야 하는 단군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는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주장을 개진해 왔는데, 그간의 논의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역사적 실체로서의 고조선과 단군에 대한 연구이다. 다른 하나는 상징으로서의 단군이 지닌 의미에 대한 이해로서, 우리 선인들이 한국사의 각 시기마다에서 단군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그런데 그간 우리 사회에서 제기된 단군에 대한 각종 논의를 보면, 양자를 혼동하거나 그 중 한 측면만을 중시함에 따라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던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과거 어느 시기의 역사 인식을 반영한 단군과 고조선사에 대한 이러저러한 상(象)을 그대로 실재했던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변하는 식의 주장들이 그러한 예이다. 이와는 반대로, 그런 식의 주장이 허구임을 지적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사에서 민족적 상징으로서 단군이 지녀 왔던 의미 자체를 아예 외면하려고 하는 시각이 또다른 한 예이다. 전자가 비합리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면, 후자는 비역사적인 사고라고 하겠다.

단군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들 두 측면을 함께 아우르는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까지 학계에서 논의되었던 연구 성과를 두 측면으로 나누어 먼저 역사적인 실체로서의 단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단군에 관한 기록을 담은 가장 오래된 책이 『삼국유사(三國遺事)』이다. 그런데 『삼국유사』는 고조선 멸망으로부터 무려 천수백 년이 지난 뒤인 13세기에 저술되었다. 이 점



코끼리를 탄 인드라

이 『삼국유사』에 실린 단군신화가 과연 고조선 때의 산물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단군신화를 담은 기사 중에는 후대적인 것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 요소가 적지 않다는 점도 의문을 더하게 한다. 가령, 환인(桓因)은 산스크리트어(梵語)의 Sakrodevanam Indrah'라는 말의 음을 한자로 표기한 '석가제환인타라(釋迦提桓因陀羅)'에서 그 어원을 찾아볼 수 있다. 'Sakrodevanam Indrah'는 원래 고대인도의 신화를 모은 『리그 베다(Rig Veda)』에 나오는 신인데, 뒤에 불교 신앙 체계에 수용되어, 수미산 도리천에 거주하며 사방을 진호하고 선악을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되었다. 그런데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4세기이므로 단군신화는 그 이후에 성립된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 밖에 단군신화에는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 등의 도교적 용어도 적지 않게 보인다. 이 역시 단군신화가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기되었다. 그래서 단군신화는 고려 후기 몽고에 대한 항쟁을 벌이던 시기에 민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신화는 생성된 이후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다가 어느 시기에 문자로 정착된다. 그 때 신화는 문자화된 그 시기의 용어와 표현 양식으로 기술된다. 이런 속성을 이해한다면, 표기된 단어가 후대적인 것이라고 하여 신화 자체가 후대의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환인이라는 단어는 하늘님, 천신이라는 뜻을 당시 고려시대의 불교적 용어로 표현한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제석(帝釋) 신앙이 성행했다. 그 밖에 단군신화에 보



구월산 삼성사의 삼성전 | 근세까지 이 곳에서 단군에 대한 신앙 행위가 치러졌다.

이는 불교적, 도교적 용어들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가령, 비를 오게 하는 신 (rain maker)은 농경 사회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나 중시되던 존재였는데, 그것을 후기 고려인들이 도교적 용어를 빌려 우사(雨師)라 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단군신화가 후대적인 것인지의 여부는 본질적인 그 신화의 구조 자체에 의거하여 판단해야 한다.

단군신화의 요체는, 하늘신의 아들과 웅녀가 결합하여 낳은 이에 의해 고조선이 건국 되고, 그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갔다는 것을 내세우는 데에 있다. 즉, 고조선 왕의 정통성과 존엄성의 근거를 그 신성한 핏줄에서 찾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럴 때 고조선 왕은 천손(天孫)으로서 신이한 능력을 지닌 존재가 된다. 즉, 단군신화는 고조선 왕실의 신성한 내력을 밝힌 일종의 '본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단군신화는 신앙의 즉위식과 일년 중 일정한 날에 그 시기 나름의 제의나 연회를 통해 재현되었을 것이다. 그 제의에 각지의 족장들이 참석하였을 것이다. 당시 고조선은 왕의 휘하에 속해 일정한 통제를 받지만 자치력을 강하게 지니고 있던 여러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집단의 장들이 고조선 왕이 집전하는 제사 의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왕의 권위에 귀속함을 서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수도에서 제의가 행해질 때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 상호 교류와 물자 교환 등도 하였을 것이다. 무엇보다, 자기 나라와 왕실의 신성함을 내세우는 의례에 참여하는 것은 고조선 주민들의 정서적 일체감을 함양하는 데 큰 작용을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단군신화는 당시 사회에서 일종의 정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녔으며,



단군신화와 같은 천손강림신화(주몽신화)가 새겨져 있는 광개토대왕릉비 (1930년대의 모습)

정치·사회적 통합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삼국의 건국신화와 제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단군신화와 같은 천손강림신화는 주몽신화, 혁거세신화, 수로왕신화 및 일본의 고대신화 등 동북아시아 고대국가들의 건국신화 유형으로 널리 분포한다. 특히, 짐승과 결합하여 한 나라의 신성한 시조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고대적인 관념의 반영이며, 고려시대와 같은 후대에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곰을 조상신으로 여기는 토tem 신앙은 시베리아에 거주하는 소박한 사회 단계의 퉁구스족이나 고아시아족 사이에서 널리 보이며, 특히 흑룡강 유역에 살던 퉁구스족의 토tem 신앙은 단군신화와 유사한 면이 있다. 단군신화는 동북아시아 고대국가들의 건국신화 중 가장 고졸한 면을 지닌다고 할 수 있고, 이는 고조선이 이 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



몽고족 샤머니즘과 제의 공간 오보 | 오늘날 서낭당의 원시 형태가 이와 유사하지 않았을까?

에 등장한 국가였다는 사실과 연관되는 사항이다.

그러면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단군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단군이라는 말의 어원을 검토해 보자.

단군의 어원에 대해 이를 호남 지역의 말에 무당을 가리키는 ‘당꿍’이나 몽고어에서 하늘(天)을 뜻하는 ‘탱그리’와 연관시킬 수 있으며, 『삼국지』 「동이전」에서 전하는 한(韓)의 국읍에서 하늘신(天神)에게 제사 지내는 일을 주관하였던 천군(天君)과 그 성격을 함께하는 면이 있다고 한 견해가 일찍이 제기된 바 있다. 즉, 단군이 하늘신에게 제사 지내는 제사장적인 성격을 지닌 존재였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물론 단군이 제사장적인 면만 지녔다는 것은 아니다. 단군신화에서 환웅이 무리 삼천을 거느리고 신단수 아래에 ‘신시(神市)’를 열고 인간 사회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였다는 것은 정치적 권력자로서의 면모를 지녔음을 말한다. 이에서 전하는 신시의 시(市)는 후대의 도시나 시장의 의미가 아니다. 상고 시기에 제정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는 제의가 행해지던 신성한 곳이며, 그와 함께 시는 처형이나 사면의 장소이고, 재화의 재

분배 장소로 정부의 중심처이기도 하였다. 단군신화에서

말하는 신시는 그런 성격의 곳으로, 정무 기능과 제의 기능이 혼효된 정교(政敎)의 중심처였다고 여겨진다. 곧, 이런 면을 통해 단군은 제사장적인 존재인 동시에 정치적 군장으로서의 면모를 지녔던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단군’이라는 말 자체는 자연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고조선 시기에 임금을 나타낸 칭호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이제 상징으로서의 단군에 대하여 알아보자.

고조선 멸망 후, 고조선 지역의 외곽에서 삼국이 차례로 흥기하였다. 삼국의 지배층들은 각각 독자적인 기원신화를 가지고 있었고, 고조선에 대한 계승 의식을 지니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 그에 따라 단군에 대한 인식은 옛 고조선 지역의 일부 사람들 사이

부리아트 몽고족의 무당



에서 민간 신앙 형태로 이어져 내려왔을 뿐이었다. 고조선 또한 옛적에 있었던 나라 정도로 막연히 이해되었던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을까 한다. 그런 면은 고려시대에 들어서도 지속되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전개된 것은 고려 후기에 접어들면서였다. 30여 년에 걸친 몽고와의 항쟁 속에서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재인식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새로운 인식이 지니는 의의는 단군 전승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한국인의 '우리 의식'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주요한 한 단계의 진전을 가져왔다는 데 있다.

강대한 외적과의 장기간에 걸친 항쟁을 치르는 동안, 고려인들은 그 동안 그들의 의식의 한 모퉁이에 끈끈하게 이어져 왔던 삼국 유민 의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우리'를 재인식하는 고양된 민족 의식 속에 '신라계, 고구려계, 백제계'를 각각 내세우는 그간의 분립적 계승 의식의 잔재는 녹아내려 청산되었으며, 단군이 새롭게 재인식되었다.

몽고와의 항쟁기 때 쓰여진 『단군본기(檀君本紀)』에서 신라, 고구려, 남·북옥저, 동·북부여, 예, 맥 등은 모두 단군의 자손(壽)이라 하였고, 이를 이어받은 이승휴의 『제왕운기(帝王韻紀)』에서는 “삼한 70여 국의 군장은 모두 단군의 후예”라고 하였다. 즉, 삼국·삼한 이전 시기에 존재하였던 고조선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기원하였다고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 삼국 유민 의식은 더 이상 논리적, 정서적 근거를 지닐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이 이후로는 반란 등 각종 움직임에서 삼국 부흥을 내세우는 등 삼국 유민 의식에 호소하는 일은 역사상에서 일절 보이지 않게 되었다.

나아가 이런 의식은 구체적으로 역사서 체계에 반영되었다. 『삼국유사』에서 우리 역사의 첫머리에 고조선이 등장하였다. 『제왕운기』에서 전(단군)조선과 후(기자)조선, 삼한, 삼국으로 이어지는 역사 체계가 세워졌다. 이런 식의 역사 체계는 그 뒤 조선시대에 들어서 각종 역사서에 널리 채택되었다. 아이들을 위한 학습서인 『동몽선습(童蒙先習)』과 같은 책에서도 단군에 관해 서술하였다.

이렇듯 고려 후기 이래로 단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것을 통해 동족 의식도 더 심화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단군으로 상징되는 '우리 의식'은 한계를 지녔다. 비록 『단군본기』에서 “삼한 70여 국(주민)은 모두 단군의 자손이다.”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몽고와의 항쟁이라는 비상한 상황하에서 제기된 것이다. 주인과 종(主奴), 양반과 상민(班常)이 엄격하게 차별되던 신분제 사회에서 평상시에도 널리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단군에 대한 인식에서 또 한 차례 변화가 있게 된 것은 근대 사회에 들어서부터였다. 즉, '뿔천만 동포, 한 핏줄 한 겨레, 단군의 자손' 하는 식의 구호에 담긴 단군 인식이 그것이다. 동포 의식과 결합한 새로운 단군 인식은 20세기 초에 제기되어 널리 일반화되었다. 이에는 우리 민족 구성원 모두가 민족의 이름 앞에서 대등한 자격으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는 의식이 담겨 있다. 이제 단군은 근대적 민족의 상징으로 새롭게 재인식되었다.

그런데 근대적인 민족 의식을 담은 새로운 단군 인식이 대두한 이후, 그것이 그 뒤 어떻게 전개되었고 또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까? 그것이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시민 사회의 논리와 결합한 민주적 민족공동체 의식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개인을 사상(捨象)한 채 민족의 집단적인 운명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전체주의 논리와 결합한 국가지상주의로 치달을지, 또는 사회주의와 결합한 제3의 형태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일단 형식 논리상으로는 모두 가능하다. 이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단군에 대한 인식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근본적으로 달려 있다.

오늘날 바람직한 단군에 대한 인식 방향은 곧 단군을 민주적 민족공동체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이며, 이럴 때 단군은 남북한 모두에게 여전히 살아 숨쉬는 민족의 소중한 유산으로 다시한 번 거듭나게 될 것이다.

# 신화가 들려주는 단군 이야기

박준형 | 동은의학박물관 |

檀君

**단** 군신화는 고조선의 건국신화로서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 단군신화는 오랜 기간 구전되면서 다양한 형태를 낳았고, 문자로 기록되면서 일정한 형태로 정착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단군신화는 바로 문자로 정착된 이후의 모습이다.

이러한 단군 및 단군신화에 대한 접근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다. 하나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서 단군과 단군신화에 반영된 고조선의 역사·문화적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단군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에 대한 이해로서, 우리 선조들이 한국사의 각 시기마다 단군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가, 즉 단군 인식의 변천에 대한 연구이다.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이해가 서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역사적 사실로서 단군의 의미를 살펴본다.

단군신화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신화가 가지는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개 신화는 전승된 그대로 모두 역사적 사실이 기록된 것은 아니다. 가령, 하늘님의 아들이 내려 웅녀와 결합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나라를 세웠다는 기록을 사실로 믿을 수



단군 영정

있겠는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믿으려 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대상이다.

신화는 어디까지나 신성하고 신이한 내용이 담긴 이야기이다. 합리적, 과학적 사고로만 보면 신화는 모두 허구이다. 그렇다고 신화를 모두 허구로 보아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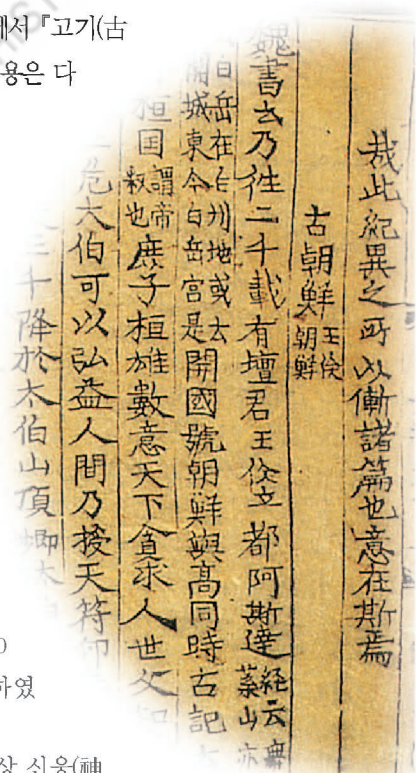
신화는 단순히 허구 또는 진실이 아니라, 그 신화가 만들어질 당시 사람들의 집단적인 경험과 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화를 만들어 낸 당시 사람들의 신비적, 초경험적인 논리와 언어로 이루어진 이야기를 그들의 시각과 정신 세계를 통해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좀더 많은 역사적 사실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단군신화를 전하는 대표적인 기록으로는 고려시대의 『삼국유사(三國遺事)』와 『제왕운기(帝王韻紀)』, 조선 초기의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와 『응제시주(應製詩註)』 등이 있다. 이들 각각의 전승 간에는 구체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중에서 『삼국유사』의 것이 가장 고졸한 모습을 띠고 있다. 또, 『삼국유사』는 단군신화를 담고 있는 책 중에서 가장 오래 된 것이며, 오늘날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단군신화의 내용도 바로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도 『삼국유사』에 소개된 단군신화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연은 『삼국유사』 「기이(紀異)」 제1 「고조선(古朝鮮) 조에서 『고기(古記)』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단군신화를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옛날 환인(桓因, 제석(帝釋)이라 한다.)의 서자(庶子) 환웅(桓雄)이 있어 자주 하늘 아래에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구하기를 바랐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아래로 삼위태백(三危太伯)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한지라(弘益人間) 이에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주어 보내며 이를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은 무리 3천 명을 거느리고 태백산(태백은 지금의 묘향산이다.) 꼭대기 신단수(神檀樹) 아래로 내려오니 이를 신시(神市)라 이르고 그를 환웅천왕(桓雄天王)이라 하였다. 그는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를 거느리고 농사, 생명, 질병, 형벌, 선악을 주관하는 등 무릇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에 살면서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신웅(神



雄)에게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빌었다. 이 때 신은 영험 있는 썩 한 심지와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 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의 형상을 얻으리라.”라고 하였다. 곰은 이것을 얻어먹고 스무하루 동안 금기하여 여자의 몸이 되고, 범은 금기를 못 하여 사람이 되지 못했다.

웅녀(熊女)는 혼인할 상대가 없어서 매번 신단수 아래에서 야기를 가지게 해 달라고 빌었다. 환웅은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그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단군왕검이라 하였다.

단군왕검은 당요(唐堯) 즉위 50년 경인(庚寅, 당요 즉위원년은 무진년(戊辰年)이니 50년은 정사년(丁巳年)이지 경인년(庚寅年)이 아니므로 사실인지 의심스럽다.)에 평양성(平壤城, 지금의 서경)에 도읍하고 비로소 조선(朝鮮)이라 칭했다. 또, 도읍을 백악산(白岳山) 아사달(阿斯達)로 옮겼는데, 이 곳을 일명 공홀산(弓忽山)이라고도 하며, 또 금미달(今彌達)이라고도 한다.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며, 주무왕(周武王)이 즉위한 기묘년(己卯年)에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하니 단군은 이에 장당경(藏唐京)으로 옮겼다가 후에 돌아와 아사달에 숨어 산신이 되었는데, 나이가 1908세였다.

단군신화에는 환인(帝釋)과 같은 불교 용어와 풍백, 우사, 운사와 같은 도교 용어가 나타난다. 우리 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4세기 정도인데, 단군이 조선을 세웠을 때가 기원전 2333년이니 그 당시에 불교와 도교가 있었을 리가 없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단군신화가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이 식민 사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즉, 몽고와 항쟁을 벌이던 시기에 민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승려인 일연이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자, 신화는 만들어진 이후 구전되다가 어느 시기에 문자로 정착된다. 그 때 신화가 당시의 용어로 표현, 기록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세계의 중심에 수미산(須彌山)이 있고 그 수미산 꼭대기에 도리천(兜利天)이 있다. 제석은 도리천의 임금으로서 선견성(善見城)에 머물면서 33천과 4천왕을 통솔하고 불법에 귀의하여 그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호법신이다.

환인은 산스크리트어의 Śakrodevendra라는 말을 한자로 음역한 석제환인타라(釋提桓因陀羅) 또는 석가제파인타라(釋迦提婆因陀羅)에서 나온 것으로, 고대 인도신화에 등장하는 인드라(Indra, 인타라(因陀羅)신을 가리킨다. 이 인드라를 한자로 음역한 것이 제(帝)이며, 석가라(釋迦羅)Śakra를 음역한 것이 석(釋)이기 때문에 환인과 제석은 같은 인드라신의 다른 번역이다.

결국 제석이라는 말은 본래 하늘님, 천신이라는 의미의 한국 고유의 말이었을 것이나,

고려시대 단군신화가 문자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당시 유행되던 천신이라는 뜻을 가진 제석이라는 불교 용어로 표현된 것이다. 또, 바람, 비, 구름신은 어느 농경 사회에서나 중요한 존재였는데, 이것이 고려 후기의 도교적 용어를 빌려 풍백, 우사, 운사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단군신화가 후대에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인류는 보편적으로 신석기시대 후기에 청동기시대로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농경 생활에 진입하게 된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기후와 관련된 바람, 비, 구름과 같은 요소는 농경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다. 그렇다면 환웅이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세상을 다스렸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군신화가 고조선 형성 시기인 초기 농경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면 단군(왕검)의 의미는 무엇일까? 호남 지역에서는 무당을 '당굴'이라고 하며, 혈통과 문화에 있어서 우리 민족과 비슷한 몽고에서는 하늘(天)을 '탱그리'라고 한다. 이 모두 단군의 발음과 유사하다. 고대사회에서 무당은 하늘신과 직접 연결할 수 있고 하늘신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사장의 성격을 가진 유일한 존재였다. 오늘날 무당은 중세 및 근·현대를 거치면서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지만, 신을 영접할 수 있는 그들의 기본적인 절대적인 능력은 여전히 보전되고 있다.

신라의 제2대 왕인 남해차차웅(南解次次雄)의 명칭에서 '차차웅'의 뜻이 '무(巫)를 가리키는 것을 보면, 단군도 이 무당과 같이 제사장적인 성격을 지닌 존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신의 아들인 환웅이 신단수를 통해 내려오고, 웅녀가 신단수에서 기도한 것을 보면, 신단수 아래의 신시가 제사 장소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왕검은 왕(王)의 우리말인 '임금', 정치적 지배자(군장)를 가리킨다. 환웅이 무리 3천을 거느리고 신단수 아래에 신시(神市)를 열고 인간 사회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했다는 것은 정치적 지배자의 모습을 보여 주며, 이 때에 신시가 정치의 중심지였던 것이다.



「무당내력」

단군왕검은 정신적, 종교적 지배자인 제사장과 정치적 군장의 권위를 지녔던 존재였다. 이처럼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고 한 사람에 의해 지배되는 '제정일치'의 군장이 바로 단군왕검이었고, 제정(祭政)과 정교(政敎)의 중심지가 바로 신시였다.

환인의 손자 단군이 하늘신, 환인에게 제사 지내는 것, 즉 제천의례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여기서 천신의 후예, 즉 천손 관념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된다. 이 천손 관념은 지배자 혈통의 신성성과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하는데, 천부인 3개는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하늘의 징표였을 것이다. 이러한 천손 관념은 고구려를 비롯한 한국 고대국가의 신화에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한국에서 천손 관념은 중국의 천자(天子) 개념과 전혀 다르다. 중국에서 환인에 해당하는 존재는 지고신인 상제(上帝)이다. 이 상제는 유덕자(有德者)에게 천명을 내려 천자로 옹립한다. 이 천자가 상제를 대신하여 인간을 다스리는 것이다. 여기서 상제와 천자는 혈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하늘에 제사하는 원구(圓丘)와 혈연적인 조상에게 제사하는 종묘(宗廟)가 엄격하게 구분된다.

그러나 한국의 신화에서는 천명을 받은 자가 아니라 환인(하늘님, 천신)은 그 아들 환웅에게 지상의 통치권을 위임했고, 환웅은 아들 단군에게 다시 물려주었다. 즉, 하늘의 순수한 혈통을 이어받은 자가 직접 내려와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하늘에 대한 제사와 조상에 대한 제사가 일치되는 형태, 즉 제천의례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 고대사회에서 단군과 천자의 차이는 한국인과 중국인들의 하늘에 대한 인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서로의 역사와 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단군신화에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이 단군의 나이이다. 단군은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1908세에 산신이 되었다고 하는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 이미 조선 초기에 권근은 단군의 자손이 왕위를 이어간 기간을 통산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최근에는 고조선의 역대 군장을 신성한 시조신의 육화로 여겼던 관념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그럴 경우 새 군장의 즉위 의례는 시조왕의 혼령을 받아들이는 절차였고, 군장의 교체가 되풀이되더라도 통치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시조왕이기 때문에 시조왕의 재위 기간이 인간 수명의 한계를 넘어 장기간에 걸쳐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이집트의 파라오(Pharaoh)는 태양신이 육화한 것이며,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는 중생 제도를 위한 관세음보살의 현신이며, 여러 대를 거쳐도 여전히 달라이 라마인 것이다. 따라서, 단군이라는 명칭을 고유 명사가 아니라 고조선의 임금을 나타내는 보통 명사로



북방 샤머니즘문화의 요람 바이칼 호수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구려 각저총 벽화 중 나무 아래 호랑이와 꿈의 모습 | 연구자에 따라 이를 단군신화가 고구려 사회에 전승된 근거로 보기도 한다.

보는 것이 합리적인 듯하다.

이제 곰과 호랑이의 문제를 살펴보자. 곰을 조상신으로 여기는 토tem 신앙은 시베리아에 거주하였던 퉁구스족과 고아시아족 사이에서 널리 보이며, 특히 흑룡강 유역에 살던 퉁구스족의 신화는 단군신화와 유사한 면이 있다. 또, 『삼국지(三國志)』 「동이전(東夷傳)」 ‘예(濊) 조에서는 동예(東濊) 사회에서 호신(虎神)을 숭배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동물을 자기 조상으로 모시거나 숭배하는 관념은 고대사회에 이미 보편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침승과 결합하여 한 나라의 신성한 시조가 태어났다고 하는 수조신화(獸祖神話)는 지극히 고대적인 관념의 반영이다. 이와 달리 주몽, 박혁거세, 김알지신화 등에서 말이나 닭 같은 동물은 시조가 신성한 존재임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부여 금외왕 신화에서는 금외왕 자신이 금빛 개구리의 모습을 띠고 있어 수조신화적 요소가 상당히 변질된 형태로 남아 있다. 그러나 단군신화에서는 곰이 인간의 조상으로 표현되어 수조신화적 요소가 전면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삼국의 다른 신화보다 단군신화가 가장 고졸한 신화의 형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쑥과 마늘, 100일, 3·7일, 금기 등의 요소는 오늘날의 민간 의약과 출산과 관계된 민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민속은 실로 오랜 생활 경험에서 성립된 것으로, 단군신화의 전승 과정에서 민족 시조의 탄생에 붙여 설명하면서 보다 친밀감을 가지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단군신화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환인, 환웅의 천신이 거주하는 신의 세계와 곰과 호랑이로 대표되는 자연의 세계, 그리고 인간 세계가 태백산 신단수(宇宙木) 아래 신시에서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전형적인 샤머니즘 문화와 세계관을 보여 준다. 이런 모습은 단군신화가 고조선 당대의 산물임을 방증하는 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단군신화의 핵심은 하늘신의 아들과 웅녀가 결합하여 낳은 단군에 의해 고조선이 건국되고 그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갔다는 것을 내세우는 데 있다. 고조선 왕의 정통성과 존엄성을 신성한 혈통에서 찾아 강조할 때, 고조선 왕은 천손으로서 신비한 능력을 지닌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단군신화는 새로운 왕의 즉위식과 제천 의례와 같은 행사를 통해 재현됨으로써 왕권의 신성함과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고조선 주민들을 정신적으로 하나로 묶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단군신화는 당시 사회에서 일종의 정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녔으며, 고조선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통합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단군 사실을 전하는 기록들

박준형 | 동은의학박물관 |

檀君

한 국사가 고조선(古朝鮮)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상, 단군(檀君)은 한 왕조의 시조라는 의미를 넘어 자연스럽게 민족의 시조로 받아들여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민족의 정체성을 찾거나 민족적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단군은 끊임없이 주목되어 왔다. 시대적 상황과 단군을 주목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단군의 의미는 다양각색으로 달라지게 마련이다. 여기서는 고려·조선시대에 단군신화를 수록한 대표적인 사서를 중심으로 단군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단군신화를 전하는 현존하는 최고의 문헌은 고려 충렬왕(忠烈王, 1274~1308) 때 일연(一然, 1206~1289)이 지은 『삼국유사』이다. 단군신화에서는 천손인 단군왕검이 중국 요(堯)임금 50년에 단군조선을 세웠으며, 단군은 1500년 동안 조선을 다스리다가 기사가 조선으로 오자 장당경으로 옮겨다가 1908세에 아사달에 들어가 산신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부여와 고구려의 시조인 부루(夫妻)와 주몽(朱蒙)을 단군의 배다른 형제(異母兄弟)라 하였다.

일연은 우리 역사가 중국과 거의 대등한 시기에 하늘님(환인)의 신성한 혈통을 이어받은 단군왕검이 세운 고조선에서부터 시작하며 고조선의 혈통이 부여와 고구려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삼국 이전의 역사를 단군조선에서부터 체계를 세운 일연의 역사 인식은 고조선에 대한 체계적인 언급이 없었던 김부식(金富軾)의 『삼국사기』보다 한 단계 나아간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일연은 왜 단군의 역사적 위치와 의미를 부각시켰을까? 당시 고려는 몽고 침입의 장기화로 인하여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이념적 토대를 모색하게 하였고, 여기에



『삼국유사』 '고조선' 조

서 단군이 자연스럽게 부각되었던 것이다. 결국 일연은 단군을 통해 민족사의 유구한 전통과 문화의 우위성을 내세워 외세의 압력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했던 것이다.

『삼국유사』가 저술된 것과 비슷한 시기인 충렬왕 13년(1287)에 이승휴(李承休, 1224~1300)가 저술한 『제왕운기』에는 『삼국유사』의 것과 약간 차이가 있는 단군신화가 수록되어 있다. 『제왕운기』에 소개된 단군신화는 전체적인 큰 흐름에 있어서 『삼국유사』의 것과 큰 차이는 없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다.

첫째, 단군의 계보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삼국유사』에서는 부모가 환웅과 웅녀라고 하여 단군이 부계로 천신과 연결된다. 이에 비해 『제왕운기』에서는 단수신과 단웅의 손녀로 되어 있어 모계로 천신과 연결된다. 그러나 『제왕운기』 본문에서는 “석제(釋帝)의 손자 이름은 단군”이라 하여, 이승휴는 궁극적으로는 『삼국유사』의 계보와 같은 인식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단군의 개국 연대가 다르다. 『삼국유사』에서는 요 50년 경인년이라고 한 반면에 『제왕운기』에서는 요 원년 무진년이라고 했다. 개국 연대에 대한 논란은 이후 조선 초기의 『동국통감』에서 마무리된다.

셋째, 단군과 기자의 계승 관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삼국유사』에서는 기자의 동래(東來)로 말미암아 단군이 장당경으로 옮겼다고 했는데, 『제왕운기』에서는 기자가 오기 전에 단군이 아사달 산신이 되었으며, 164년 후에 기자가 온 것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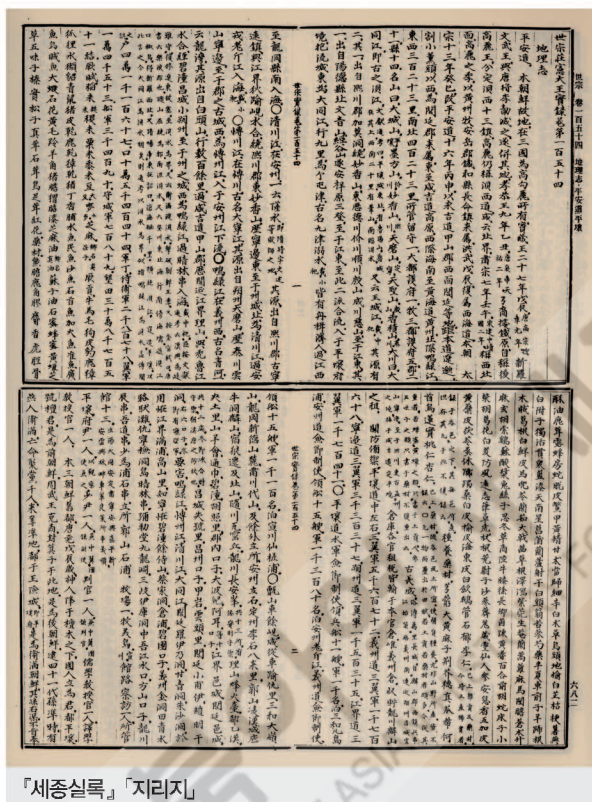
『제왕운기』의 고조선 관계 기사

넷째, 단군의 후예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삼국유사』와 달리 신라, 옥저, 예맥, 비류국 등 고조선 이후의 국가를 모두 단군의 후예로 보고 있다.

특히, 단군과 기자의 계승 관계와 상고사 체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삼국유사』에서는 기자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부기(附記)하는 정도로 그치면서, 고조선(단군조선)에서 바로 위만조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인식했다. 반면에 『제왕운기』에서는 단군조선(檀君朝鮮)을 전조선(前朝鮮)으로, 기자조선(箕子朝鮮)을 후조선(後朝鮮)으로, 뒤이어 위만조선(衛滿朝鮮)을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두 사서의 이러한 특징은 승려와 유학자 사이의 우리나라 국가의 기원과 문화의 원류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이승휴에게 단군은 ‘조국지주(肇國之主)’로서 민족의 동질성과 독자성의 원천이며, 기자는 문명화의 상징으로서 인식되었음을 말해 준다. 그리고 비록 ‘참주(僭主)’이지만 위만의 조선을 더하여 고조선사 체계를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으로 이어지는 삼조선설(三朝鮮說)을 정립시킨 것은 이후 사대부들의 역사 의식의 전개 방향과 민족사 체계의 이해 방향을 일단 제시해 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연은 승려이며, 이승휴는 유학자로서 서로 활동 영역을 달리하는데도 이들이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인식한다는 큰 틀에서는 생각이 같다. 이러한 단군 인식은 당시 사회에 상당히 퍼져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단군 인식은 조선 왕조의 건국과 함께 조선



『세종실록』 「지리지」

계승 의식으로 분명하게 정립되면서 조선 사회에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다.

조선 왕조에서는 국가의 명칭을 ‘조선’ 이라고 정하여 조선 계승 의식을 명확하게 하였다. 조박(趙璞)은 조선이 개창한 1392년에 “조선의 단군은 동방에서 처음으로 천명을 받은 임금이고, 기자는 처음으로 교화를 일으킨 임금”이라 하여 조선 왕조 군주권의 정당성을 천명과 교화에 입각한 통치에 둔 것으로서 이러한 통치의 전형인 단군과 기자를 국가적으로 제사할 것을 건의하였다.

정도전(鄭道傳)은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에서 『제왕운기』에서 체계화된 삼조선설에 입각한 국호 사용을 제시하였다. 이는 국가의 기본 법전에서부터 중국과 대등하게 역사공동체가 출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조선 계승 의식, 곧 전통적 민족 의식을 수용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후 세종 11년(1429)에는 평양에 단군과 동명왕을 함께 모시는 사당이 세워졌고, 세조 2년(1456)에는 단군 위패를 ‘조선 시조’로, 기자 위패를 ‘후조선 시조’로 확정하였다.

그런데 성리학적 가치관을 신봉하는 조선 왕조 지배층에게는 하나의 모순이 있었다.



강화도 마니산에 있는 참성단

단군의 역사적 의미는 강조할 필요가 있지만, 단군에 관한 전승(출생 과정이나 재위 연수 등)은 비합리적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이였다. 그래서 그들은 단군의 역사성은 최대한 살리면서 단군과 관련된 비합리적 요소를 제거하는 길을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권근(權近, 1352~1409)의 『응제시(應製詩)』에 보이는 단군에 대한 이해이다. 권근은 『응제시』에서 단군은 단목(檀木) 아래로 내려와 요 원년 무진에 조선의 왕이 되었으며, 그 후손들이 천 년 이상 왕위를 이어 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단군 즉위년은 『제왕운기』의 설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단군의 신비한 출생 과정이 생략되고, 단군은 직접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보았다. 권근은 단군의 역사성은 살리되 신비성은 최소화하여 단군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한 것이다.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서 역사적 측면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은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나타난다. 첫째, 단군 유적이 언급되고 있다. 강화도 참성단은 단군의 제천단(祭天壇)이며, 삼랑성은 단군이 세 아들을 시켜 쌓았다는 것이다. 또, 문화현 장장평(庄庄坪)이 단군이 한때 도읍했던 곳이라는 것이다. 둘째, 단군이 태자 부루를 파견하여 하(夏)나라 우임금의 도산회맹(塗山會盟)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록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단군의 실재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단군과 기자의 계승 관계를 『제왕운기』의 설을 택하였다.



북한이 개수한 단군릉

기자가 동래했기 때문에 단군이 도읍을 옮긴 것(『삼국유사』의 설)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단군이 산신이 되었다는 것이다. 『제왕운기』의 설이 단군의 자주성을 높이면서도 기자의 도덕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측면은, 『세종실록』 「지리지」가 『제왕운기』의 설을 따른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단군은 성종 7년(1476)에 편찬된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와 성종 15년(1484)에 나온 『동국통감(東國通鑑)』의 첫 장에 실리게 된다. 이들 사서를 통해 단군이 한국사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된다. 두 사서에서 단군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와 조선을 개국했으며, 기자가 동래하기 전에 아사달에 들어가 산신이 되었다고 보았다.

『동국통감』에서 주목할 점은 단군 즉위년에 대한 이해이다. 『동국통감』에서는 단군의 즉위년을 『제왕운기』 이래 통설에 따라 무진(戊辰)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통설은 이 해가 요(堯) 원년에 해당한다고 하여, 단군이 요와 같은 해에 즉위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동국통감』은 요 원년을 무진으로 보지 않고 갑진(甲辰)으로 보아, 단군 원년 무진은 요 25년이 된다는 것이다. 이후 조선 왕조에서 단군 원년은 요 25년 무진설이 통설로 자리잡게 되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단기 원년, 기원전 2333년은 『동국통감』의 연대 산정법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동국통감』에서 단군조선이 본기(本紀)가 아닌 외기(外

紀)로 처리된 점은 편찬자들의 역사 인식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성종 17년(1486)에 나온 『동국여지승람』에는 단군릉이라 전해지는 대총(大塚)이 평안도 강동현 서쪽 30리에 있다는 것이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 따르면 단군은 아사달 산신이 되었기 때문에 무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단군릉이 등장했다는 것은 단군을 국가의 시조로서 역사성을 더욱 높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참고로 이 무덤이 단군릉인지의 사실 여부를 떠나, 1993년 북한에서는 이 무덤을 발굴하여 단군의 실제 무덤이라고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선 초기 단군의 역사화, 국조화 작업은 16세기 사림 세력이 등장하고 존화사대 의식이 팽배하면서 서서히 역사적 위상이 변한다. 16세기는 왕도 정치를 강조하는 도학적 사관이 주류를 이루었다. 중국의 삼대(하·은·주)를 특히 존중하여 이 문화와 직접 연결된다는 기자조선과 그 후예인 마한의 역사가 핵심적 위치에 오르게 되고, 상대적으로 단군조선의 위상은 기자조선의 부수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북인계의 한백겸(韓百謙, 1552~1615)은 『동국지리지(東國地理誌)』(1615)에서 우리 나라 상고사를 남과 북의 병치 관계로 파악함으로써 민족의 근원이 단군에 귀일된다는 의식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 그는 단군조선의 문화에 대한 관심보다 평양성 일대에서 은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는 기자의 정전(井田)을 찾아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영남 남인계의 홍여하(洪汝河, 1621~1678)가 지은 『동국통감제강(東國通鑑提綱)』(1672)은 주자(朱子)의 강목법을 철저하게 도입하여 『동국통감』을 재구성한 것으로서, 이제까지의 삼조선설을 부정하고 한백겸의 삼한설을 받아들여, 단군조선은 동이족의 네 계열의 한 흐름일 뿐이며, 나라도 끊어지고 후손도 없었다고 하여 단군조선의 의미를 크게 약화시켰다.

17세기 후반으로 오면서 단군에 대한 논의는 다시 활발해진다. 양 난을 거치면서 성리학이 지도 이념으로서 한계를 드러냈고, 명·청의 교제로 화이론적(華夷論的) 세계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속에서 단군 논의가 다시 일어난 것이다.

기호 남인계인 허목(許穆, 1595~1682)은 『동사(東事)』(1667)에서 단군을 ‘단군세가(檀君世家)’라는 독립 항목으로 묶었다. 이것은 『동국통감』에서 외기나 기자에 부속해서 언급되던 것과 비교하면, 단군조선의 역사적 위상이 높아진 것이라 하겠다. 우리가 소중화(小中華)라는 의식 속에서 단군을 민족사의 시발점으로 간주한다는 의식의 소산인 것이다. 허목은 단군의 할아버지 환인씨(桓仁氏), 아버지 신시(神市)가 있다고 함으로써 단군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동국통감』 이래의 통설을 부정하였으며, 천 년이 넘는 단군의 수명도 그대로 인정하였다.

서인계 가문 출신이지만 만년에 소론계와 가까웠던 홍만종(洪萬宗, 1634~1725)은 『동국역대총목(東國歷代總目)』(1705)에서 단군조선을 정통 국가로 하고 기자→마한→삼국→통일신라로 이어지는 정통론을 수용하였다. 『동국역대총목』에서 특징적인 점은 백성들에게 ‘편발개수(編髮蓋首)’, 군신 상하의 질서, 음식 거처의 예를 가르쳤으며, 팽우(彭吳)에게 국내 산천을 다스려 백성들의 거처를 정하게 했다는 등 단군의 구체적인 치적이 언급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군조선이 원시적인 사회가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문화를 가진 사회이며, 한국문화의 기원도 단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18세기부터 주자 성리학에 비판적인 실학자의 우리 나라 역사에 대한 관심은 치밀한 사실 고증과 민족 의식 재발견이라는 방향으로 본격화된다. 양명학을 받아들인 소론계 이종휘(李鍾徽, 1731~1797)는 『동사(東史)』(1780)에서 단군, 기자, 삼한, 후조선(위만)을 본기로 하는 기전체로 정리하였다. 우리 나라를 ‘동하(東夏)로 호칭하면서 단군조선을 중국 황제와 대등하게 본기로 기록한 것은 조선시대에는 이것이 유일한 사서이다.

이처럼 18세기에는 단군시대의 문화를 우리 고유 문화의 뿌리로 보고 이를 학문적 비판을 통하여 복원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단군 정통론에까지 도달한 견해가 나왔던 것이다.

19세기에는 청대 고증학의 영향을 받아 단군 인식에도 일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남인계를 대표하는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강역고(疆域考)』에서 15세기의 삼조선설과 한백겸의 상고사 체계를 절충하면서 단군조선을 이해하였다. 그러나 역사서에 전해지는 단군 관계 기록을 대부분 신뢰하지 않아서, 우리 문화의 기원을 기자조선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았다. 즉, 기록이 없는 단군조선의 문화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남인계 학자 한치윤(韓致堯, 1765~1814)이 지은 『해동역사(海東譯史)』에서는 우리 역사와 문화의 출발로서 단군조선 앞에 「동이총기(東夷總紀)」라는 편목을 설정하고 군자국과 문명국에서 동이문화가 출발한다는 독자적인 인식을 보여 준다. 그러나 실제 단군 관련 사실은 황당하여 믿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치윤은 화이관에서 일정하게 탈피하였으며 정통론적 역사 인식을 청산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단군조선에 관한 문화적 독자성 및 고유 신앙에 대한 인식은 이전 시기보다 부족했다고 본다.

이처럼 19세기 전반에는 고증학풍의 영향으로 학자들 사이에서는 문헌 고증에 입각하여 단군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많이 나타났다. 19세기 후반에는 조선 사회에서 근대화의 과제가 대두되고 제국주의 침략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단군에 대한 인식은 다시 한 번 변화를 맞게 된다.

# 신화 속의 단군

서영대 | 인하대학교 |

檀君

신화는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신화에서 ‘어떻게’는 신이나 문화 영웅들의 활동이다. 따라서, 신화는 우주 만물의 기원을 신이나 문화 영웅들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신화는 비현실적 존재인 신이나 문화 영웅을 통해 우주 만물의 유래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당무계한 내용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사의 초기 단계에서는 신화가 우주 만물을 이해하는 지식의 원천으로 기능했다. 이렇듯 신화가 살아 움직이며 신화적 사고가 지배하는 단계에서는 국가나 정치 권력의 출현도 신화의 형식을 빌려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초기국가나 고대국가 단계에서 건국신화가 흔히 발견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한국사의 첫 장을 장식하는 고조선도 예외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고조선의 건국 과정도 신화를 통해 전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에 관한 것이므로 단군신화라 한다.

현재 단군신화는 문헌 자료, 구전 자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오래 된 것은 13세기에 나온 일연(1206~1289)의 『삼국유사』와 이승휴(1224~1300)의 『제왕운기』이다. 그렇다고 해서 13세기 이전에는 단군에 관한 전승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단군신화는 고조선의 건국신화로서 고조선만큼이나 오래 된 신화였을 터이고 일찍부터 기록되었겠지만, 그것이 현재 남아 있지 않을 뿐이기 때문이다.

단군신화를 전하는 자료들은 단군이 고조선의 시조라는 점에서는 한결같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자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거의 같은 시기에 나온 『삼국

유사)와 『제왕운기』조차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단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군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삼국유사』부터 살펴보자. 『삼국유사』에서는 고조선이라는 항목을 두어 단군신화를 서술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옛날 환인이라는 이름의 하늘신에게는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환웅은 늘 인간 세상의 구제를 염원했다. 아버지 환인은 아들의 뜻을 알고 인간 세상을 관찰했더니, 인간들은 구원할 가치가 있는 존재였다. 그래서 환웅을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들과 함께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냈다. 환웅은 태백산 신단수를 통해 지상에 내려와 이 곳을 중심으로 인간 세상을 다스렸다.

이 때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는 곰과 호랑이가 있어 환웅에게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빌었다. 환웅은 썩과 마늘을 먹고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이들 중 호랑이는 시련을 견디지 못하여 중간에 포기했지만, 곰은 끝까지 금기를 지켜 마침내 인간 여인으로 변신한다. 여인이 된 곰은 완전한 인간의 길을 걷기 위해 어머니가 되고자 하였다. 그래서 신단수 아래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환웅이 잠시 인간으로 변신하여 곰 여인과 혼인했고, 그 결실로 단군이 태어났다. 단군은 400여 살에 평양을 중심으로 고조선을 건국했고, 1500년간 나라를 다스리다가 1908세 되던 해에 아사달이라는 산으로 들어가 산신으로 좌정했다. 그 동안 단군은 강의 신의 딸과 혼인하여 부루를 낳기도 했다.

한편, 『제왕운기』에서는 단군신화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환인이라는 하늘신의 아들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를 통해 지상으로 내려온다. 환웅은 자신의 손녀에게 약을 먹여 인간으로 변신하게 한 다음 박달나무의 신과 혼인하게 했고, 여기서 단군이 태어난다. 단군은 고조선을 건국했고, 재위 1038년에 아사달로 들어가 산신이 된다.

그렇다고 할 때 『제왕운기』의 앞부분, 즉 환웅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삼국유사』와 다르지 않다. 또, 아사달 산신이 되었다는 것도 같다. 그러나 지상에서 전개되는 부분은 상당히 다르다. 우선 『제왕운기』에서는 곰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곰이 인간으로 변신하는 부분도 없다. 대신 환웅의 손녀가 등장하여 단군의 어머니가 된다. 또, 박달나무의 신이 단군의 아버지가 되면서, 환웅은 단군의 외증조할아버지가 되어 버린다. 그 결과 단군과 하늘신의 관계가 변한다. 하늘의 신은 아버지를 통해 연결되는 부계친이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 연결되는 모계친이라는 것이다.

조선시대로 오면 또 새로운 유형의 단군신화가 확인된다. 1396년(태조 5년) 권근(1352~1409)의 『응제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여기서는 단군이 직접 신단수로 하강했고, 나라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고조선의 왕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단군 혼자 천 년 넘게

제위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대대로 왕위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응제시』에서는 단군 이상 세대를(신적 존재들임.) 그것이 부계이든 모계이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또, 단군의 초인적인 수명도 부정했고, 단군이 산신이 된 사실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응제시』 전승은 단군신화에서 신화적 요소를 최대한 탈색시킨 것, 다시 말해서 최대한 합리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주의를 표방하는 조선 왕조 사회에서 공인된 단군상은 바로 이것이었다. 조선시대의 각종 기록에서 확인되는 단군 기록의 대부분이 이 유형이었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다.

그런가 하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단군신화도 있었다. 그것은 주로 단군 유적이 분포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었는데, 이러한 곳으로는 먼저 묘향산 일대를 들 수 있다. 묘향산은 단군이 출생했다는 단군굴을 비롯하여 단군대, 강무대(단군이 무술을 연마하던 곳), 후장암(단군이 과녁을 세운 바위) 등 단군 관련 유적이 산재한 곳이다. 이러한 묘향산 지역에서 전해지는 전승은 환인의 아들 환웅이 백호와 혼인하여 단군을 낳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환웅(桓熊)의 웅을 ‘곰 웅’ 자로 쓴 점으로 미루어 환웅의 신체가 곰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단군의 어머니가 백호라고 한 점도 흥미롭다.

또, 황해도 지역은 단군이 산신으로 좌정한 아사달, 즉 구월산이 있는 곳으로, 곳곳에 단군 유적이 있다. 예컨대 삼성사(환인, 환웅, 단군을 제사하는 곳), 장장평(단군이 도읍한 곳), 사궁석(射弓石, 단군이 활을 쏘던 곳), 단군대(단군이 도읍이 될 만한 곳을 조망하



묘향산의 단군굴



묘향산의 단군대



단군이 앉았다는 전설이 깃든 구월산의 단군대

던 곳), 장재이별(단군이 쌓은 토성이 있는 곳), 단군 발자국(단군이 증산에서 성당리로 넘어갈 때 디뎠던 발자국 흔적), 백운대(단군이 승천한 곳), 아사봉(단군이 승천한 곳), 삼성대(단군의 아들 부루가 놀던 곳)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곳이기 때문에 황해도 지역에서도 재미있는 단군신화가 전해진다.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는데, 남근이 너무 커서 짝이 되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 때 곰이 자원하여 혼인을 해서 단군을 낳았고, 다음에는 여우가 혼인하여 기자를 낳았다는 것이다.

한편, 현대에 와서는 또다른 단군 전승이 등장한다. 『규원사화』, 『단기고사』, 『환단고기』 등이 전하는 바가 그것인데, 물론 이들 사이에도 차이는 있다. 그러나 고조선이 강대한 문명국으로 그려지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리고 단군을 특정인의 이름이 아니라 왕을 뜻하는 보통 명사로 풀이하고, 47대 단군의 계보와 구체적인 치적을 제시한 점에서도 같다. 그렇다고 할 때 이들 자료는 『삼국유사』나 『제왕운기』에 비해 단군을 더욱 비(非)신화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단군의 수명을 역대 왕의 재위 기간의 합산으로 치환하여 단군의 역사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응제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응제시』에서는 단군의 자손이 이어 나간 시기라 한 데 비해, 47대라는 구체적인 계보와 치적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자료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출현했다. 그러나 편찬 시기는 『삼국유사』나 『제왕운기』보다 빠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신화화의 정도를 고려할 때, 신빙성 있는 옛 자료로 보기에는 주저되는 점이 많다. 그

러므로 이들 자료에 대한 논의는 그 가치가 판명된 다음에 하더라도 늦지 않다.

이상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단군신화의 여러 형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단군신화에는 다양한 이전(異傳)이 전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화에 이전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신화는 한동안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것이 보통이고, 이 과정에서 화자(話者)에 따라 가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단군신화에는 이전이 많은 편이다. 다른 한국의 건국신화를 보더라도 이처럼 이전이 많은 경우는 없다.

그렇다면 유독 단군신화에는 왜 이전이 많을까? 그것은 단군이 한국사의 시발점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역사의 시발점이란 사회나 개인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특정 시점을 인위적으로 지정한 것이다. 그래서 역사의 어떤 시점보다 주목이 많고 의미 부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의 출발점이다. 단군신화에 이전이 많은 것도 다른 신화보다 의미 부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부연하자면, 13세기에 『삼국유사』나 『제왕운기』가 함께 단군신화를 수록했던 것은 몽고의 침입이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맞이하여 민족의 단결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4세기 『응



산동성 무씨사 화상석 그림

제시』는 조선 왕조의 개창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전통의 재해석이 필요했던 시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가 하면 20세기에 출현하는 『규원사화』 등은 식민지 상황을 극복하려는 모색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전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단군신화에는 불변의 구조가 있다. 단군은, 그것이 부계를 통해서든 모계를 통해서든 간에 하늘의 자손이라는 점이다. 한국 고대사회에서 하늘의 신은 모든 신 가운데 으뜸 가는 신, 최고의 신으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단군신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군이 최고 신의 자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고조선 사회에서 왕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되었다. 그리고 민족사적으로는 한국인에게 자주 의식의 근거를 제공했던 것이다.

끝으로, 단군신화를 그림으로 표현한 자료라는 것들에 대해 잠시 언급해 두자. 이러한 것으로는 먼저 중국 산둥성 가상현 무씨사의 화상석 그림을 들 수 있다. 무씨사란 후한 시대에 이 지역의 호족 세력이었던 무씨 집안의 사당으로, 그 좌석실 천장부의 그림이 단군신화와 통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곰과 호랑이가 마주 보고 있고, 호랑이의 입에서는 아이가 나오는 제3층의 그림이 단군신화와 흡사하다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호랑이라 한 것은 실은 호랑이가 아니고 법관이라는 모자를 쓴 사람이며, 곰도 곰이 아니라 치우신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다.

또, 고구려의 서울이었던 중국 길림성 집안 소재 고구려 벽화 고분에 단군신화가 표현되어 있다는 주장이 있다. 즉, 각저총과 장천 1호분의 나무 밑 동굴 같은 곳에 곰과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것이 단군신화를 그린 그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그림들은 곰과 호랑이라는 것 이외에는 단군신화와의 연결 고리를 찾기 어렵다. 곰과 호랑이만 있으면 무조건 단군신화라는 것은 비약이고,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단군신화를 그림으로 표현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고 하는 것이 옳다.

# 신화 속의 전설, 기자와 기자조선

송호정 | 한국고원대학교 |

檀  
君

일 연의 말년 저작인 『삼국유사』에는 단군신화를 통해 왕검조선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환웅과 곰이 변한 여인이 결합하여 탄생한 단군은 아사달에 도움을 했다가 장당경에 들어가 산신이 되고 왕위를 기자에게 물려준다. 일연의 이러한 상고사 인식 체계는 사실상 단군조선은 전조선, 기자조선은 후조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기자가 동쪽 조선의 땅에 와서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실린 책은 한나라 때 쓰여진 『상서대전(尙書大典)』이다. 이후 사마천의 『사기(史記)』나 반고의 『한서(漢書)』에도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다.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이처럼 기자가 고조선에 와서 왕이 되었다는 전설을 그대로 믿었으며, 평양에 기자묘(箕子廟)를 세운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평양에는 기자묘(箕子墓)라고 전해지는 무덤과 기자가 실시했다고 하는 정전제(井田制)의 옛 터가 남아 있다. 또, 한씨(韓氏), 기씨(箕氏), 선우씨(鮮于氏)의 족보에는 기자가 시조로 되어 있다. 모두 '기자조선' 과 연관이 있는 흔적들이다.

이상의 사실은 기자조선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들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남북한 학계 모두 기자가 조선에 왔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 학계의 역사 인식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중·고등 학교 국사 교과서의 내용에는 아예 기자조선에 대한 언급이 없다. 만일 학교 현장의 교사가 우리 학계의 논의를 소개하여 기자조선에 관한 주장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은 기자조선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하게 되어 버린 것이다.

『상서대전』에 실린 기자와 기자조선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나라 말엽에 ‘기자’라는 현인이 있었는데 주왕(紂王)의 폭정을 말리다가 투옥되었다. 은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 무왕이 풀어 주었으나 그는 곧 ‘조선’으로 도망하였다. 나중에 이를 알게 된 무왕은 그를 조선의 왕으로 책봉하였다. 기자는 조선의 제도와 문화를 발전시켰고, 8조법금을 제정하여 조선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계몽하였다. 후에 기자는 무왕을 찾아가서 ‘홍범구주’를 전수하여 통치의 기본 규범으로 삼도록 권유하였다. 기원전 194년 위만에 의해 쫓겨난 조선의 준왕은 기자의 후예이다.

고려와 조선의 유학자들은 이러한 전설을 그대로 믿었다. 기자를 우리 나라에 예의범절을 가르친 성현으로 숭배하면서, 그 교화를 입은 문화국가임을 자랑으로 여겼다. ‘중국과 우리 나라는 기자 이래 문화적으로 한 집안을 이루었으므로 외국으로 보기 어려우며, 우리의 문화 수준은 중국의 그것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었다. 기자가 조선의 왕에 책봉되었다는 사실은, 대외적으로는 명나라와의 사대 관계를 역사적으로 정당화해 주는 한편, 조선이 중국과 대등한 문명국이라는 ‘소중화(小中華)’ 의식을 가지게 하였다.

이와 같은 기자족의 동방 이동설은 한국민족의 기원을 종족 이동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기자조선의 실재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이다. 신채호의 조선족 이동설을 바탕으로 한 이 주장은, 우리 민족의 원주지를 북중국 방면에까지 확대시켜 그 이동 경로를 살피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기자 집단은 초기에는 화북 지방에 있다가 뒤에 점차 동으로 조선 방면까지 이동하여 기자조선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이 때 기자는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주나라 계통과 구별되는 동이족 가운데 하나인 기자족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은(殷)이 멸망한 시기나 주(周)가 견융(犬戎)의 침입을 받아 수도를 동쪽으로 옮긴 때를 전후한 격동기에 북중국 → 남만주 → 평양으로 이동하여 기자조선을 세우고 한반도에 청동기문화를 보급하기 시작하였다고 이해한다.

이와 같은 내용의 기자족 동방 이동설은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다만, 그 내용이 고고학적으로 명확하게 뒷받침되지 못하는 약점을 지닌다. 고조선 주민이 살았던 곳으로 이야기되는 요동 지방이나 한반도의 청동기문화는 황하 유역 청동기문화의 영향이 약하고, 그것도 시대가 내려와서야 나타난다. 따라서, 황하 계통의 청동기를 소유한 종족이 이동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기자는 특정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기국(箕國)의 제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것은 중국 고대의 문헌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는 주나라 초기의 제후국으로 기국(箕國)이 있었고, ‘기자가 춘추시대 진나라의 장래

문제를 논한 대목이 나온다. 또, 『국어(國語)』라는 책에는, 기국을 정복한 진나라 고대의 성씨에 기씨가 있다는 사실이 전한다. 한편,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기자가 양국(梁國) 문헌에서 죽었고, 거기에 그의 묘가 전해진다.”라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후(箕侯)를 중심으로 한 기씨 일족이 주나라 초에 연후(燕侯)를 따라 북방 정복 활동에 종사하다가 후에 산서에서 산동으로 이봉(移封)되었고, 일시 주나라 소공(召公)을 따라 북방 정벌에 참가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기후(箕侯)의 존재는 고고학 유물들을 통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 대릉하 유역의 객좌현 고산(孤山) 북동(北洞) 유적에서는 은대 청동예기(靑銅禮器)에 ‘箕侯와 ‘孤竹’ 이라는 명문이 나와 요서 객좌현 일대가 기후와 관계가 있고, 여기서 기후는 기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주장이 일찍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기후명 청동예기가 한 곳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기씨조선이 처음에는 고죽국 또는 그 인근 지역에 있었고, 문헌에 나오는 기자조선과 관계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요서 객좌현 일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는 연후명(燕侯銘) 청동예기 등 연나라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 주는 그릇이나, 고죽(孤竹)이라고 해석되는 이름을 가진 그릇 등 당시 중국 동북 지방을 인식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 은·주 청동기들은 요서 대릉하 연안의 30km 범위 안에 밀집되어 있고, 현재까지 약 70여 점이 나왔다.

기후명이 있는 청동예기가 출토되어 유명한 객좌현 북동촌 유적 하나만 보아도 저장강은 대릉하에 임한 곳으로 가능한 한 관망하기에 좋은 곳에 위치한다. 그 밖에 마창구 저장강이나 산만자 저장강의 경우도 구릉 사면이고 역시 주위를 관망하기에 좋은 곳에 위치한다. 또, 교장 주위에는 주거 공간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청동기를 가진 집단은 거주지의 주변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청동기를 매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상(商)·주(周) 두 왕조는 모두 요서 지역에 제후국을 건립하고 중국의 문화를 전입시켰다. 상 왕조 분봉(分封)의 중심은 노룡(盧龍)의 고죽국(孤竹國)에 있었으며, 주초(周初) 분봉의 중심은 북경의 연나라에 있었다. 이들은 현지의 소수 민족에 대한 통치를 진행하였다. 당시 주나라에서 관할한 주요 지역은 하북(河北)의 역수(易水)에서 요서(遼西) 대릉하 상류 일대에 이르는 곳으로 북경 서남의 계성(薊城)이 그 도성이었고, 전국시대 말기에는 또 하도(下都)를 무양(武陽, 지금의 하북성 역현(易縣) 남쪽)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일대에서 출토한 일련의 청동기 명문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연후(燕侯)가 언제나 대릉하 유역에 있던 고죽(孤竹) 등의 우두머리에 대해 상을 내리고 그들 사이에는 정치상의 연속 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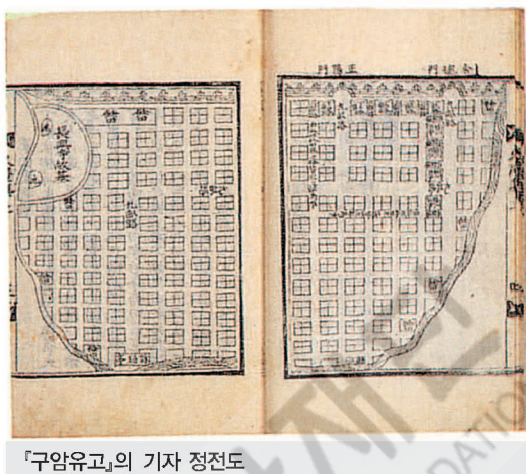
요서 객좌현 고산 북동촌 청동예기 저장갱 출토 유물

당시에 일부 유목 상태에 있던 소수의 토착 종족들은 그 주위에서 활동하였는데, 특히 이북의 광활한 대지에서 많은 부락을 형성한 종족은 문헌에 기록된 용적(戎狄, 오랑캐족)이라 할 수 있다. 기족(箕族) 또는 그 한 지족(支族)은 서주 초기에 요서 지역에 위치하면서 연후(燕侯)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후에 결코 동북방으로는 이동하지 않았으며, 그와 반대쪽인 산둥성 지방으로 집결하여 영주(永住)하였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대릉하 유역에 정거하고 있던 은(殷) 유민들은 아마도 일시적인 변고 때문에 씨족을 상징하는 전승 가보를 황급히 땅에 묻고 다시 서쪽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요서 객좌현 일대 청동예기 명분의 족명을 가진 씨족들을 ‘기자 집단’으로 이해하여 대릉하 유역에 기자조선이 있었다는 주장은 기자조선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고대 문헌 어디에도 난하(濛河) 유역이나 대릉하(大凌河) 유역을 ‘조선(朝鮮)’이라 한 일이 없으며, 산옹(山戎)은 물론이고 거기에 거주한 영지(令支), 고죽(孤竹), 도하(屠何) 등이 고조선의 주민으로 기록된 일도 없다. 더욱이 문헌상으로도 이들이 주나라 때 산둥반도 동쪽에 있다가 주나라 소공을 따라 북방 정벌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동쪽으로 이동한 사실을 보여 주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기자 동래설’ 자체는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수백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사실로 믿

어 왔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조선 후기에 토지 제도에 대한 개혁 방안을 강구하던 일부 실학자들은 농민이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의 역사적 근거를 정전제에서 찾기도 하나, 정전제의 옛터는 고구려 수도인 장안성의 방리(坊里)를 구획했던 흔적일 가능성이 크다.



「구암유고」의 기자 정전도

20세기에 접어들어 민족 의식

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기자가 조선으로 왔다는 전설은 부정되었다. 그 근거로는 이를 기록한 문헌들이 모두 기원전 3세기 이후에 씌어졌다는 점이 제일 먼저 거론된다. 기자는 기원전 1000년 전후에 살았던 인물이다. 은나라 멸망기에 주왕(紂王) 밑에서 신하로 있었던 실존 인물로 등장한다. 따라서, 만일 기자가 한반도 지역에 와서 기자조선을 세웠다면, 기원전 3세기 이전에 저술된 『논어(論語)』나 『죽서기년(竹書紀年)』 같은 책에 “기자가 조선으로 갔다.”라는 기록이 당연히 보일 법한데 그렇지 않다. 다만, 주나라 무왕 대에 “기자가 존재하였다.”라는 기록만 나타난다. 한편, 기자의 무덤이 하남성이나 산동성 등지에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

이러한 기록을 감안하면, “기자가 조선에 왔다.”라는 전설은 실제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기원전 3~2세기 무렵에 한나라 사람들이 꾸며 낸 것으로 판단된다. 고고학적으로도 고조선 등 동북아시아의 청동기문화는 그 계통상으로 황하 유역의 청동기문화와 뚜렷한 차이가 있다. 만약 기자 집단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조선에 와서 왕조를 세웠다면 두 지역의 청동기문화에 긴밀한 상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 지역에서 출토되는 청동기시대 고고학 자료 가운데 기자의 이동을 입증할 만한 은주시대 청동기 자료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고 그 교화를 받아서 주변 민족(오랑캐)들이 문명 개화하였다는 중화 사상 은 한(漢)나라 때 성립되었다. 따라서, 기자가 조선에 와서 왕이 되었다는 전설도 아마 이러한 배경에서 생겨났을 것이다. 한 무제는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을 멸망시킨 뒤 그 곳에 군현(한사군)을 설치하였다. 여기에 토착 세력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진번군과 임둔군이 곧 폐지된 것도 토착 세력의 반발 때문이었다. 따라서 한(漢)의 역사가

들이 중국의 군현 설치를 합리화하고, 토착 세력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목적에서 유교 문명을 가지고 기자가 조선에 왔다는 전설을 만들어 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에서 기자를 대표로 하는 주민 집단의 존재는 인정할 수 있어도 요서 대릉하 유역이 ‘기자조선’이었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 기자조선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고죽이나 기자 집단, 영지 등은 대개 은의 유이민이 중심이 된 집단들이었지만, 결국은 토착 용적(戎狄) 문화에 흡수되어 존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복생(伏生)의 『상서대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주 무왕이 은을 이기자 기자가 북쪽을 향해 조선으로 갔다.”라는 고사는 ‘기자조선’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광대한 지역에 기후(箕侯)가 존재하였



평양 토성동의 낙랑군 치소성

고, 또 '상(商) 왕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기자가 '한국인인가, 중국인인가'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국적'을 따져 보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알타이 인이나 퉁구스족을 오늘날의 어느 특정 민족에게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이다. 마찬가지로, 비록 기자가 은나라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오늘날의 중국인을 형성한 많은 요소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 설령 기자의 '동래(東來)'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후의 기자족은 오늘날의 한국인을 형성한 많은 요소 가운데 일부일 뿐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夫餘



# 부 여

우리에게 부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신화가 들려주는부여 건국 이야기  
부여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부여의 나라와사회  
부여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또다른 부여 동부여와 작은부여두막투



# 우리에게 부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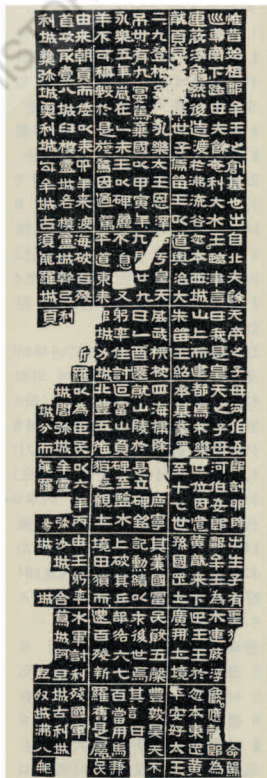
박경철 | 강남대학교 |

夫餘

**부**여는 공시적으로 고조선과 병존하였고, 통시적으로도 고구려, 백제가 모두 부여를 자기들의 뿌리로서 인식, 자임하고 있었다.

기원후 5세기 초의 고구려인들은 <광개토대왕릉비문>의 앞머리에 시조 추모왕(鄒牟王), 곧 주몽(朱蒙)의 창업 기반이 북부여에서 나왔다고 한 바 있다. 또, 472년에 백제의 개로왕(蓋鹵王)이 북위(北魏)에 보낸 외교 문서에서 “신(臣)의 나라는 고구려와 더불어 근원이 부여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백제의 부여씨 왕실을 고구려와 동족, 동원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고구려, 백제가 부여와 공존하고 있던 이 시기마저 각각 부여 계승 의식을 강조하고 있었던 점은 부여사가 당시 이들이 간직한 역사의 기억 속에 접하는 유의미성을 짐작하게 해 주는 대목이다.

특히, 부여가 위만조선의 국망(기원전 108년) 이후 기원전 37년 고구려가 출현할 때까지 예맥문화권을 지탱하는 핵심적 세력으로 굳건히 버티어 온 점은 결코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구나 이러한 부여가 기원후 5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고구려와 더불어 동북아시아 일각에 자



<광개토대왕릉비문>의 탁본

리하며 우리 민족사 흐름의 큰 줄기 가운데 하나를 담당하는 역사적 실체로 존재했다는 점은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될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러한 부여사가 우리의 상고사 및 고대사 인식 체계에 있어 접하는 위상은 고조선, 삼한, 삼국의 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초라하다.

이제 우리는 고조선 멸망 이후 삼국 성립 사이의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국가 연속성의 단절이라는 단선론적 계통론에 의한 역사 계승론을 지양하여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예맥문화권 내 여러 집단의 발전의 불균형성을 전제로 한 제 세력 집단의 공시적 병존 가능성을 인정한 위에서, 통시적 계기성에 입각한 한국사 인식 체계 정립을 위한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이 시기 부여사가 함축하고 있는 역사적 유의미성을 부각, 제고, 검증하고자 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료와 시대적 제약이 빚어 낸 우리 전통 사학의 부여에 대한 인식 부족은 18세기 말 이종휘(李鍾徽) 이래 몇몇 실학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전환의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불씨는 잇단 외세의 침탈하에서 근대 민족주의 사학의 표상인 신채호(申采浩)의 부여, 고구려 중심의 고대사 인식 체계 속에서 내연되었을 뿐이다.

한편, 일본은 그들의 한국 강점과 대륙 침략의 역사적 합리화라는 학문 외적 목적하에 만선사관(滿鮮史觀)을 구상하였고, 실제로 이를 통해 중국사에 대한 만주사의 독자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조선사'의 타율성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만선사관을 기조로 하여 진행된 그들의 연구가 정당한 부여사 인식에 부정적 그림자를 던지고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만선사관의 비판적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그 첫발을 내디딘 우리 학계의 새로운 부여사 인식을 위한 노력은 그 짧은 연구 전통에 더하여 무엇보다도 냉전 구조, 분단 상황에서 비롯된 현장성의 상실이라는 시대적 여건의 어려움을 헤치고 적지 않은 학문적 축적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학계는 최근 중국과의 학술 교류가 진행됨에 따라 중국측의 부여사 연구 성과를 참작, 이를 우리의 시점에서 비판적으로 소개, 수용, 원용하여 부여사 인식에 있어 새로운 지평의 일단을 제시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여사가 우리 민족사 인식 체계에서 접하는 유의미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학계의 부여사에 관한 연구는 질량면에서 겨우 입문 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모든 역사 인식은 그 대상 객체가 되는 과거에 대한 인식 주체의 당대적 의미 부여일 따름이다. 우리 선사문화와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등이 차지한 공간적 지형도가 한반도 북부와 중국 동북3성에 걸쳐 그려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역사 인식



의 동시대성은 이 지역 역사 인식에 있어서도 하나의 강요항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남북한과 중국, 일본 학계 모두가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

이 점과 관련하여 최근 중국 학계가 수행 중인 동북공정의 존재는 올바른 부여사 인식의 새로운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곧, 중국 학계는 종래 자신들의 역사 해석 지침인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한층 굳질, 강화시켜 고구려사를 결절점으로 고조선, 부여, 발해의 역사적 정체성을 훼손하여 중국의 역사 주권 아래로 재구성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있다.

최근 중국 학계의 한국사 인식에 있어 이러한 통일적 다민족 국가 논리가 한층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 채택 이후 중국 사회 전반의 우경화 흐름 속에서 꿈틀대고 있는 제 소수 민족의 정치적 민족주의 성향을 새로운 화이론적 민족주의, 곧 '대(大)중화주의'로 압도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참된 역사 인식이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과거의 역사적 사실 자체를 왜곡, 은폐,



부여의 숨결이 살아 있는 송화강변의 길림시 | 왼쪽에 솟아 있는 구릉이 부여 왕성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동단산이다.

호도하여 지나간 역사상을 분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정책적 역사 인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대 동북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선사문화를 포함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등 우리 민족·국가사와 문화의 정체성, 가치성을 자리매김하기 위한 거시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면서 예맥과 부여의 정체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만주와 한반도에서의 청동기시대는 우리 민족과 문화의 원형이 ‘예맥(濊貊)’이라 지칭되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시기였다.

바로 이 시기의 예맥이 중국 청동기문화의 영향권하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오히려 그들은 몽고 고원, 시베리아 방면 유목 문화권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예맥 1기 문화’, 곧 비파형동검문화를 창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예맥이 우리 민족문화의 원형을 형성하던 바로 그 출발점부터 중국문화와는 계통을 달리하

고 있었음을 뜻한다.

따라서, 예맥은 '예맥 2기 문화', 즉 세형동검문화를 바탕으로 한 철기문화로의 진전 상황 아래에서 마주쳤지만, 질량면에서 압도적이며 침투력과 동화력에서 빼어난 중원 문화와의 만남 가운데서도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중원 문화를 자기들의 문화 역량 증대를 위한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예맥은 제 세력 집단의 '발전의 불균등성'을 전제로 한 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의 계기적 진전상 가운데에서 동질적 기저문화에 바탕한 이형 동질적(異形同質的) 사회·국가로의 발전을 기약함과 동시에, 중원의 한(漢)을 비롯한 제 이질적 존재와의 차별성을 보다 뚜렷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예맥을 주체로 한 고조선과 부여의 국가 형성, 고구려 사회와 삼한 사회의 성장은 바로 그 역사적 표현이었던 것이다.

청동기시대 이래 만주와 한반도에 걸쳐 동질적 기저문화를 향유하는 주민 집단들은 '예맥'이라 범칭되어 왔다. 그런데 이들 주민 집단은 기원전 8~7세기를 전후하여 이들 거주 지역별 생태적, 지형학적 조건에 적응한 '발전의 불균등성'이나 생태적 적응 전략의 차별성에 따른 이형 동질적 종족·주민 집단(ethnic group, ethnicity)으로 분별되기 시작한다.

특히, 부여는 송화강 유역에 사는 예맥계 주민들을 주체로 대략 기원전 3세기 이후 동북아시아 역사 무대에 그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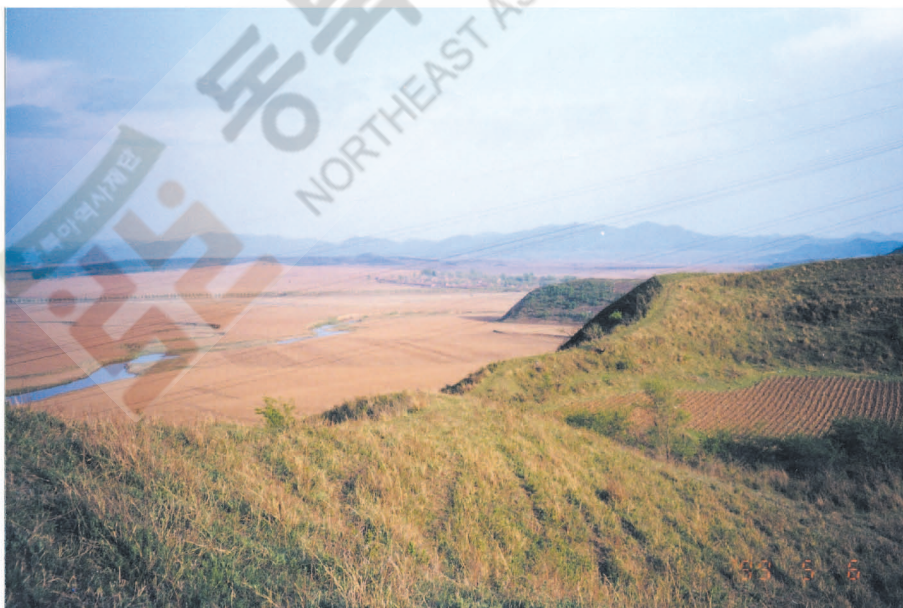
아무튼 부여는 예맥의 한 동이리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송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600~700여 년 간 고조선, 고구려 등 예맥계 제 세력뿐만 아니라 한(漢), 음루·물길(曷婁·勿吉), 선비(鮮卑) 등 이질적 세력들과 일정한 화전(和戰)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민족사의 한 줄기를 지켜 온 나라였다. 이 부여의 역사가 펼쳐진 공간적 범위와 그 중심지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우리 학계는 1980년대 말까지 부여의 초기 중심지를 이통하(伊通河) 유역의 농안(農安), 장춘(長春) 일대라고 보아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 및 우리 학계는 중국 동북 지방에서의 고고학적 발굴 성과와 제 문헌 사료 등을 참작하여 부여의 초기 중심지를 길림시 일대로 파악하고 있다.

또, 논자에 따라서는 길림시 동단산(東團山) 남성자(南城子)는 궁성으로, 용담산성(龍潭山城) 일대는 도성에 해당하며, 이 두 성이 합쳐져서 부여 전기의 왕성을 이룬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 학계의 다수설은 농안 지방을 기원후 4세기 이후의 후기 부여 중심지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연구자에 따라 부여 후기의 중심지를 서풍(西豊) 성



부여 후기 중심지 중의 하나인 서풍 성산자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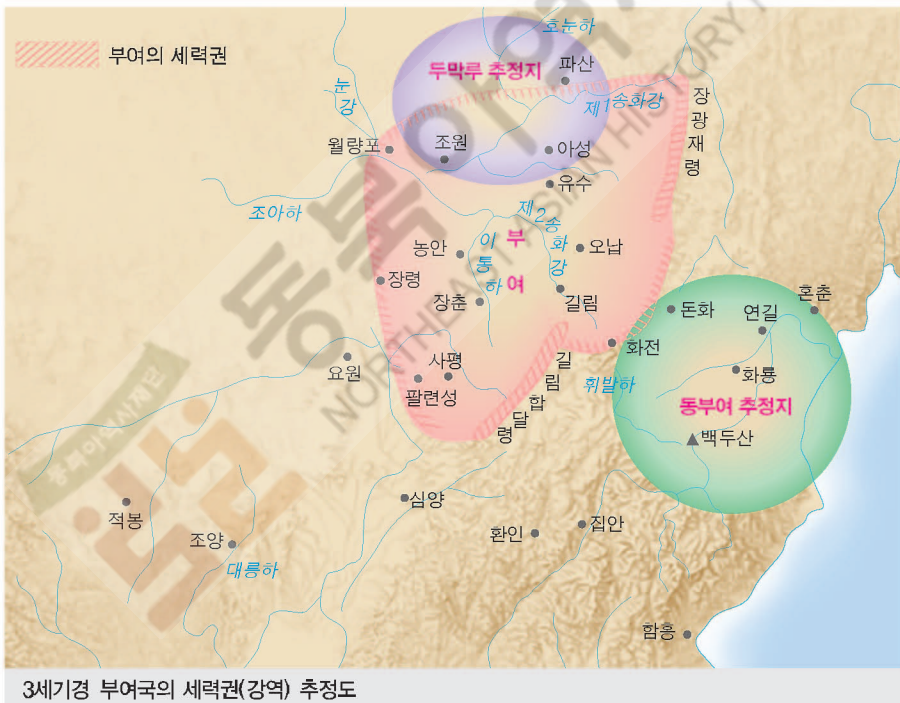


부여 후기 중심지 중의 하나인 요원(공릉산성에서 바라본 모습)

산자산성(城山子山城)이나 요원(遼源) 일대로 추정하기도 한다.

오늘날 학계는 부여의 초기 중심지를 길림시 일대로 비정한다는 전제 아래 기원후 3세기경까지의 부여 세력권이 제1송화강을 그 북한으로, 동으로는 장광재령(長廣才嶺), 서로는 이통하(伊通河) 유역, 그리고 남으로는 휘발하(輝發河) 유역을 포섭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를 좀더 구체화시켜 기원후 1~3세기 부여국이 대략 북으로 눈강(嫩江)과 송화강 일대까지 포괄하면서, 서쪽으로 조아하(洮兒河) 하류의 건안(乾安), 장령(長嶺), 쌍요(雙遼), 또는 그보다 안쪽인 농안, 사평(四平) 선 등지를 경계로 하며, 서남으로는 요동의 중국 세력과 접하고, 동으로 위호령(威虎嶺)을 경계로 목단강(牡丹江) 유역에 이르고, 남으로는 길림 합달령(哈達嶺)을 경계로 휘발하 이북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기원후 3세기경 부여국의 세력권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신화가 들려주는 부여 건국 이야기

조법증 | 우석대학교 |

夫  
餘

**한** 국 고대사에서 부여는 고조선과 함께 우리 민족 형성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가장 중요한 역사체이다. 문헌에 나타난 기원전 2세기경 이전부터 494년 까지 현재의 북만주 지역에 존재한 예맥족 계통의 국가로서 한국 고대사의 핵심인 삼국 중 고구려와 백제의 모체로서 모두 부여 별종이라 칭하여 한국사의 근간으로서 부여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최근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려는 역사 왜곡을 진행함에 있어 고구려의 선역사체인 부여 및 고조선까지도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상황에서 부여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부여의 실체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의 부족과 우리 역사 영역 인식의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외곽에 존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정당한 평가와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부여는 시조인 동명 관련 신화가 고구려 건국 시조인 주몽 관련 신화와 결합되면서 부여의 독자적인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거나 혼동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즉, 부여 시조와 고구려 시조가 동일시되어 역사 인식에 혼동이 초래되기도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같은 부여 건국신화의 내용과 관련 의미를 정리하여 한국 고대사의 지평을 마련한 부여의 역사문화적 위상을 정립하고, 이와 관련된 역사 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부여의 건국신화를 전하는 기록은 중국 기록인 『논형(論衡)』, 『위략(魏略)』, 『수신기(搜神記)』, 『신론(新論)』, 『후한서(後漢書)』, 『양서(梁書)』, 『수서(隋書)』, 『북사(北史)』, 『법원주림(法苑珠琳)』과 우리측 기록인 『삼국유사』 등이 있다. 이들 문헌 가운데 가장 최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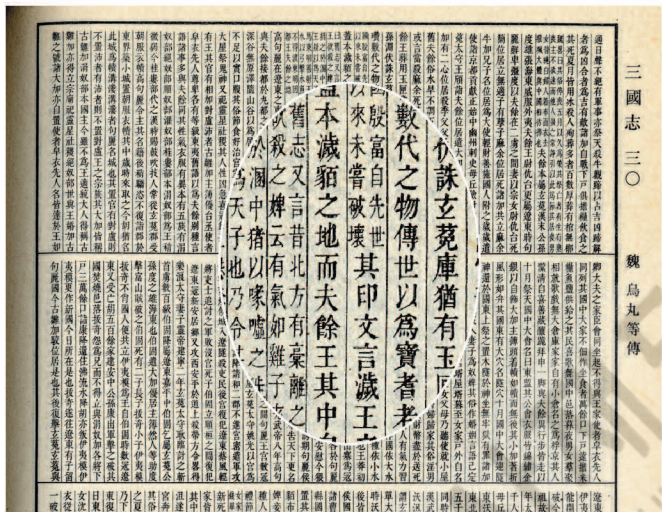
의 것은 기원후 1세기 말에 이루어진 『논형』인데, 여타 기록들은 이것과 대동소이하다. 먼저, 『논형』 「길협」편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 북이(北夷) 탁리국(橐離國) 왕의 시비가 임신하였다. 왕이 그 여자를 죽이려 하니 대답하기를, “달같은 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까닭에 제가 임신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후에 아들을 낳자 돼지우리 안에 버렸더니 돼지가 입김을 불어 주어 죽지 않았다. 다시금 마구간 안으로 옮겨 말에 깔려 죽게 했으나 말도 입김을 불어 주어 죽지 않았다. 왕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천제(天帝)의 아들이라 여겨 그 어미로 하여금 거두어 기르도록 하였다. 그 이름을 동명이라 하고 소와 말을 치게 하였다. 동명은 활을 잘 쏘았는데, 왕은 나라를 빼앗길까 두려워 동명을 죽이려고 하였다. 동명은 남쪽으로 도망하여 엄호수(掩濩水)에 이르렀는데,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이루었다. 동명이 건너가자 물고기와 자라가 흩어져 버려 추격병은 건너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도움을 정하고 부여의 왕이 되었다. 그런 까닭에 북이(北夷)에 부여국이 있다.

이 기록의 내용은 부여의 시조 동명의 출생담과 국가 건국 이야기를 보여 주는 것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북이 탁리국 왕의 시비가 하늘에서 내려온 기에 의해 임신함.
- ② 태어난 동명을 왕이 버림.
- ③ 돼지와 말이 동명을 보호해 줌.
- ④ 동명은 활을 잘 쏘았으며, 소와 말을 치는 일을 함.
- ⑤ 왕이 나라를 빼앗길까 봐 죽이려 하자 남쪽으로 도망함.
- ⑥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으로 엄호수를 건너감.
- ⑦ 부여를 건국함.

이 같은 내용은 앞에서 제시한 다양한 사서에도 거의 비슷하게 수록되어 있다. 단, 북이 탁리국이 『삼국지』 「부여전」에 인용된 『위략』과 『후한서』 「부여」조에는 고리국(橐離國)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결국 부여는 선 정치체인 탁(고)리국에서 왕실 이탈 세력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화에서는 시조를 동명으로 삼고 있는데, 일광(日光)에 의한 감정 출생이란 몽고, 만주에 널리 퍼져 있는 이른바 감정



『삼국지』 인용 『위략』의 부여 건국신화

형신화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물고기와 자라 떼가 다리를 이루어 큰물을 건넜다는 설화상의 모티프는 동명신화가 북방의 동절기 결빙과 춘계 해빙에 따른 환경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그 내용에 북아시아의 풍토적 현상을 배경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부여의 건국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즉, 북방 계통의 고리국 출신인 동명 집단이 그 곳에서 세력 갈등을 겪다가 송화강 쪽으로 남하하여 정착하면서 그 곳에 있던 예족(濊族)을 중심으로 부여를 건국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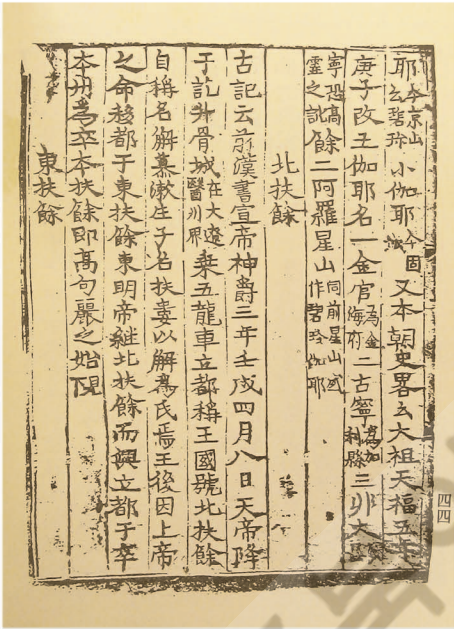
그런데 414년에 건립된 고구려인의 기록인 <광개토대왕릉비>에 처음 나타나는 부여국은 북부여국(北夫餘國)이다. 즉, ‘옛적 시조 추모왕(鄒牟王)이 나라를 세웠는데 (왕은) 북부여에서 태어났으며, 천제(天帝)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하백(河伯)의 따님이었다.’라고 한다.

이 곳에서 말하는 북부여가 고구려 수도에서 볼 때 북쪽에 있는 부여를 뜻하므로 북부여와 부여는 같은 나라로 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 생각이었다.

그러나 <광개토대왕릉비>에는 북부여와 부여를 서로 다른 나라처럼 구별하여 사용한 내용이 있다. 이에 따르면, 북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한 집단이 강을 건너 세운 나라가 부여로 되어 있다. 따라서, 북부여를 고리국(또는 탁리국)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부여의 기원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서는 부여의 기원이 동부여에 있다고 전한다. 이는 고구려의 건국신화와 연결되어 나타난 것으로,

해모수 전설이 중심이 되었으며, 중국측 기록에 나타난 부여의 건국신화와는 다른 측면을 보여 준다.

『삼국유사』에 나타난 부여 관련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삼국유사』 '북부여' 조

〈북부여〉

『고기』에 이르기를, 전한(前漢) 선제(宣帝) 신작 3년 임술 4월 8일에 천제가 흠승골성에 내려왔는데 오룡거(五龍車)를 탔다. 도움을 정하여 왕이라 일컫고 북부여라 하고 스스로 이름을하여 해모수라 하였다.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부루라 하고 해(解)로써 성을 삼았다. 왕을 위해 상제의 명령으로 동부여로 도움을 옮겼다. 동명제는 북부여를 계승하여 일어나 졸본부여에 도움을 정하여 졸본부여를 이룩하였으니, 이가 곧 고구려의 시조이다.

〈동부여〉

북부여 왕 해부루(解夫婁)의 대신인 아란불(阿蘭佛)의 꿈에 천제가 내려와서 말을 하였다. “장차 나의 자손으로 하여금 이곳에 나라를 세울 것인즉 너는 다른 곳으로 피해 가라. 동해 바닷가에 가섭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땅이 기름지니 왕도를 세울 만한 곳이다.”라고 하였다. 부루는 늦도록 아들이 없었는데, 하루는 산천에 제사를 지내어 후사를 구하고자 하였다. 이 때 타고 가던 말이 곤연(鯤淵)에 이르러 큰 돌을 보고 마주 대하여 눈물을 흘렸다. 왕이 이를 이상히 여겨 사람들을 시켜서 그 돌을 들추니, 거기에 금빛 개구리 모양의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다. 왕이 기뻐하여 “이는 하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심이다.” 하고 그 아이를 거두어 기르고 이름을 금와(金蛙)라 하고, 그가 장성하자 태자로 삼았다. 이후 부루가 죽자 금와가 대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리고 다음의 왕위를 태자 대소(帶素)에게 전했다. 그러나 지황 3년 임오에 이르러 고구려 왕 무휼(無恤)이 이를 쳐서 대소를 죽이니, 이로써 나라가 망하였다.

여기에서는 북부여의 왕으로 해모수가 등장하고 고구려 주몽의 건국과 연결되어 부여의 역사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여 건국신화의 성격보다는 고구려신화를 설명하는 측면이 강하다. 문제는 북부여와 동부여 등 방위명 부여가 고구려 광개토태왕 당대에 이미 개별적 존재 개념이었고 고구려의 모체로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비록 『삼국유사』의 인식이 고구려적이라 하더라도 당대 관념을 반영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이 같은 문헌적 사실을 고고학적으로 검토해 보면, 동부여는 길림(吉林) 일대를 중심으로 서단산문화(西團山文化)를 이끌었던 예족 세력이, 송눈 평원(松嫩平原)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던 원부여(북부여)의 세력이 이주해 와 성장하자 이를 동부여(부여)라 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단산문화는 길림시 일대를 중심으로 나타난 청동기문화로, 대략 기원전 9~8세기에 시작하여 기원전 3세기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단산문화의 중심 분포 지역은 송화강 중류로, 이 곳은 옅은 농사에 적합하였다. 이 문화에서는 대개 반지하 또는 석축으로 집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길림시 동단산 일대에서 한(漢)과 한 이전의 유적 중에서 거의 원형을 이룬 토성이 발견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 서단산 돌널무덤 때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씨족 공동 묘지로 농업 생산 도구(돌도끼, 반달돌칼, 돌끌, 돌갈판 등)와 여러 토기(세발그릇, 시루, 물동이, 굽접시 등), 그리고 돼지뼈와 어망추가 많이



서단산문화의 토기와 석기



눈강 유역의 송눈 평원



발견된다. 따라서, 이 사회가 경제적으로 농업과 함께 가축 사육 및 어업이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보다 북쪽으로嫩江(嫩江) 지역인 송눈 평원 일대에도 일찍이 농경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하였다. 대표적으로 춘추시대 이전에 속하는 백금보(白金寶)-한서(漢書) 하층문화와 전국에서 서한시대에 속하는 한서 상층-망해둔(望海屯)문화가 있다. 이 중 한서 상층-망해둔문화가 당시 송눈 평원 일대에서 활약하던 부여족에 의해 이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지 그것을 부여의 조기문화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부여 건국설화에 나오는 '고리국'의 문화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서단산문화와 한서 상층-망해둔문화의 성격을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남과 북에 위치한 두 문화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다가 기원전 4~3세기 즈음에 이르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해진다. 즉, 한서 상층-망해둔문화가 고리국(또는 탁리국)의 문화이고, 그 중 일부 주민들이 남하하여, 먼저 내려와 서단산문화를 누리고 있던 앞선 부여족 주민들과 융합하여 부여국을 세웠던 것이다.

이와 같이 부여는 만주의 송화강 유역에서 고조선과 같은 시기에 예맥족 계통의 국가로서 출현하여 우리 민족사 영역을 확충하는 근간으로 존재하였으며, 특히 동명(東明)으로 상징되는 시조신화가 고구려와 백제의 시조로서 동치되거나 활용됨으로써 단군신화와 함께 가장 중요한 문화적 근간을 이루었다. 특히, 천손 신앙 개념의 원형으로서 일광신앙을 뚜렷이 보여 줌으로써 중국과는 차별화된 문화적 계통성을 확립해 주고 있다.

또, 부여의 동명신화는 이후 『위서』에 나타난 백제 개로왕의 국서나 『일본서기』에 나타난 백제 성왕 때의 고구려-백제 동족 인식의 원천으로서 표방되고 있으며, 모든 사서에 부여의 계통으로서 고구려, 백제가 강조되고 있어 우리 역사 체계 인식을 확고히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최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논리에서 부각되는 고구려족은 중국족이라는 논리의 허구성을 반증하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 부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송호정 | 한국고원대학교 |

夫餘

**부**여는 기원전 2세기 무렵부터 기원후 494년까지 북만주 땅에 있었던 예맥족 계통의 국가이다. 무려 700여 년의 성상을 만주를 주된 활동 무대로 하던 우리 고대 역사이다. 부여를 세운 종족은 예맥족의 한 종족인 부여족으로, 이들은 일찍부터 송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송는 평원(송화강과 눈강 사이의 평원)과 송요(松遼) 평원(송화강과 요하 사이의 평원)을 개척했고, 서단산문화라는 수준 높은 문화를 영위하면서 우리 역사상 고조선에 이어 두 번째로 국가 체제를 마련했다.

‘부여’라는 나라 이름은 『사기(史記)』 권 129, 「화식열전(貨殖列傳)」에 “연(燕)이 북으로 오환(烏丸), 부여(夫餘)와 인접했다.”라는 기록에 처음 보인다. 이 기록을 통해 적어도 기원전 2세기경에는 부여가 정치체를 형성했음을 알 수 있다.

부여라는 이름의 유래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부여의 원뜻이 밝(神明)에서 유래하여 개발→자만(滋蔓)→평야를 의미하는 ‘벌(伐, 弗, 火, 夫里)’로 변화한 데서 연유하였다는 설이 일찍이 제기된 바 있다. 그 근거는 부여의 중심 지역이 송화강 연안의 동북 평원 일대이고, ‘벌’이나 ‘부리’가 서라벌, 고사부리 등 삼국시대의 지명 어미에 자주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부여족의 일파가 세운 고구려의 구려(句麗)라는 명칭이 ‘큰 고을’ 또는 ‘높은 성’을 의미하는 ‘홀(忽)’, ‘골’, ‘구루(溝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과 관련되어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이와 달리 부여는 사슴의 뜻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있다. 『자치통감(資治通鑑)』에 나오는 부여의 멸망 기사에 부여의 원거주지로 나오는 ‘녹산(鹿山)’이 사슴(鹿)을 뜻하는

만주어의 'puhu'와 몽고어의 'Pobgo'에서 비롯하였다는 주장이다. 이와 비슷한 입장에서 사슴 녹 자의 음이 'fu'로서 '부(夫)'자와 같은 음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 밖에 예인(濊人)의 '예(濊)'는 '부여(夫餘)' 두 자의 합음으로, 부여는 '예'에서 왔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 논의의 공통점은 부여라는 이름이 평원, 강 이름, 산 이름 등에서 유래했다는 지리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야를 뜻하는 '부리'나 '벌'에서 이름이 나왔든 사슴을 뜻하는 'puhu'에서 나왔든, 부여라는 명칭은 그 나라가 위치하고 있던 만주 평야와 자연 지형을 염두에 두고 기원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부여는 역사가 오래 된만큼 그 영역에서도 일련의 변동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어 아직도 혼동을 겪고 있다. 부여가 건국된 구체적 위치와 사방 경역은 반고(班固)의 서술 이전까지는 기제가 비교적 간략하였다. 다만, 요동 등지를 말하면서 연나라는 “북으로 오환, 부여와 인접하였다.”라거나 “북으로 오환, 부여와 사이를 두고 있었다.”라고 하였다. 그 남쪽 경계는 반고 이후의 기록이지만 『삼국지』 「부여전」의 기록에 따르면 “부여는 장성의 북쪽에 있는데, 현도로부터



대안 한서 2기층의 토기편

대안 한서 유적 | 최근 국내외의 많은 연구자가 이 유적을 탁리국의 유적으로 보고 있다.

천 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여 한(漢)의 동북쪽에 설치한 장성 북쪽임을 알 수 있다.

『삼국지』에서 말한 장성은 진(秦)·한(漢)의 장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장성은 일련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의 독석구(獨石口)로부터 내몽고 위장(圍場), 적봉(赤峰), 오한(敖漢), 나만(奈曼), 고륜(庫倫)의 중부를 통과하여 동쪽으로 창무(彰武), 법고(法庫)를 지나 개원(開原), 무순(撫順) 일대를 경과한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남하하여 압록강 및 조선 경내에 들어간다고 한다. 그러므로 부여는 마땅히 지금의 법고, 개원 이북에 존재하였던 셈이다.

『후한서』 「동이전」 부여 조에는 “부여국은 현도 북쪽 천 리에 있다. 남쪽으로는 고구려, 동쪽으로는 읍루, 서쪽으로는 선비와 접하며, 북에는 약수(弱水)가 있다. 땅은 사방 2천 리인데 본래 예의 땅이었다. …… 동이의 지역에서 가장 평평한 곳으로 오곡이 자라기에 알맞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삼국지』 「부여전」에는 『후한서』와 내용이 거의 같으나 (부여는) ……산릉(山陵)과 넓은 못이 많은 곳이다.”라는 표현이 첨가되어 있다. 또, 『진서(晉書)』 「부여전」에는 “부여국은, ……남으로는 선비와 접하며 북쪽에는 약수가 있다.”라고 하여 남쪽 경계에 고구려 대신 선비가 등장하고 있다.

부여의 위치와 관련하여 등장하는 현도군은 원래 압록강 유역에 있던 것이 1세기 말~2세기 초쯤 고구려의 공격으로 혼하 연안으로 쫓겨간 제현도군을 말한다. 그 치소는 요동군(지금의 요양시) 북쪽 200리로서, 대개 무순의 노동 공원 한(漢) 성지로 비정되고 있다. 현도군에서 동북쪽으로 천여 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부여는 자연 지세로 보아 동이의 지역에서 가장 평평한 곳이며, 또 이 곳에는 넓은 못이 많았다. 이것은 부여가 주변 나라들보다 평야 지대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혼하 연안에서 북쪽 천 리에 해당하는 곳에서 평야 지대를 차지하였을 부여의 중심지를 찾는다면, 그것은 현재의 길림성 중부 송화강 유역 외에는 다른 곳을 비정할 수 없다.

부여의 영역으로 비정되는 길림성의 중심을 흐르는 송화강과 그 유역은 부여국의 발상지이자 중심지였다. 송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사방 2천 리의 지역을 차지한 부여는 서쪽으로 선비, 남쪽으로 고구려, 동쪽으로 읍루와 각각 이웃하였으며, 북쪽에는 약수(제1 송화강)가 있었다고 한다.

부여는 남쪽으로 삼국시대의 고구려와 접하고 있었다. 서한 때의 고구려는 국력이 미약하였기 때문에 그 세력은 휘발하(輝發河)를 넘을 수 없었고, 이러한 상황은 동한 때에도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통해 1~3세기의 부여국은 대략 북으로 눈강과 송화강 일대까지 포괄하면서 서쪽으로는 조아하(洮兒河) 하류의 건안, 장령, 쌍요 등지를 경계로 하였고, 서남으로는 요동의 중국 세력과 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으로는 위호령을 경계로 목단강

(牡丹江) 유역에 이르고, 남으로는 길림 합달령(哈達嶺)을 경계로 휘발하 이북에 이르렀다. 이 지역의 동부는 산릉이 많고, 서부는 넓은 못이 있고, 중부는 동이 지역에서 가장 평탄한 곳이었다.

청동기시대 이후 북방의 송화강이나 압록강 유역에는 예맥족이라는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부여 건국 이전에 그 수장이 이미 예왕(濊王)으로 불릴 정도로 발전하였는데, 기원전 2세기 동명 집단과 합쳐 부여를 구성하게 되었다. 부여는 위만조선 대로부터 세력을 형성하고 점차 국가로 발전해 나갔다.

부여족의 기원에 관해서는 일찍이 동이족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가 발해만 일대에서 장춘(長春)·농안(農安) 지방으로 이동하여 부여를 건국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건국신화를 보면 오히려 북방 계통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북쪽에서부터 송화강 유역으로 남하한 세력에 의해 부여가 건국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여의 건국신화에 따르면 부여의 시조는 동명(東明)으로, 본래 북이(北夷) 탁리국(橐離國) 왕의 시녀가 햇빛에 감응하여 출산한 자로서, 성장하면서 신이한 바가 많으므로 왕에게 용납되지 못하고 남쪽으로 달아나 임호수(掩淲水)를 건너 부여에 와서 왕이 되었다고 전한다.



대흥안령 산맥과 몽고족 마을 | 이 산맥을 경계로 내몽고 동북부의 고지성 초원과 흑룡강성 서부(논강 유역)의 저지성 초원으로 나뉜다.

부여 건국신화의 기본 줄기는 왕이 탁리국(고리국)에서 엄호수를 거쳐 부여까지 망명하여 도움을 청하였다는 이른바 종족(주민 집단)의 이주 전설이라 할 수 있다. 즉, 동명으로 대표되는 집단이 탁리국에서의 세력 갈등을 피하여 남하, 망명함에 따라 송요 평원에 먼저 거주하고 있던 종족들이 이들 동명 집단을 구심점으로 하여 국가를 형성하였음을 시사한다.

『삼국지』 권30 『위서』 「동이전」에 예인(濊人)은 이전에 이미 국가를 건립하였으며, “그 도장의 문구가 ‘예왕지인(濊王之印)’이라 했다고 한다. 부여가 자리잡은 지역에 일찍부터 예족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또, 부여국에는 ‘고성(故城)’이 있는데 이름을 ‘예성(濊城)’이라 했다고 한다. 따라서 동명은 ‘스스로를 일러 망인(亡人)’이라 했는데, 아마도 그러한 것 같다.”라고 한 것은 바로 동명 집단의 남하와 그에 따라 탁리국(고리국)과 부여가 일정 기간 병존한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건국신화를 비롯한 다른 문헌 기록을 보면 부여를 세운 주민 집단은 송화강 이북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 집단이 도착하던 예맥족과 융합하여 형성되었다. 예맥족이 바로 부여를 세운 주된 주민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부여의 영토는 사방 2천 리에 미쳤다. 가운데에 도움이 있어 왕이 다스렸고, 도움 밖의





부여의 왕성인 길림시 동단산 남성자

나라를 넷으로 나누어 대가들이 맡았다면 온 나라를 5개 지역으로 나누어 통치한 셈이 된다. 『삼국지』에서는 부여의 네 지방을 ‘사출도’라는 말로 표현한다. 사출도라는 말은 단순히 나라를 네 개의 행정 구역으로 구분했다는 사실을 넘어서 도읍을 중심으로 동, 서, 남, 북의 방위에 따라 사방을 나눈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출도는 왕이 있는 도읍으로부터 사방에 통하는 길로서, 도로와 그 주변 고을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부여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지으면서도 집짐승을 기르는 목축을 겸했고, 말, 옥, 담비(貂·구슬(美珠) 같은 특산물을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의 비단을 수입했다. 한반도 지역보다 훨씬 북쪽에 있었던 부여의 터전은 논농사가 적당하지 않아 주로 밭농사를 지었고, 또 초원 지대가 많아 말을 기르는 데 적합했다. 한반도에 자리잡은 나라에서는 목축이 농가의 부업에 그쳤는데, 부여에서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었다.

초기 부여는 지금의 만주 송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존재하였는데, 거기에서 동부여가 나오고, 그 동부여에서 고구려의 지배층이 된 주몽 집단(계루부 왕실)이 나왔으며, 주몽 집단은 압록강 일대에 진출하여 졸본부여, 즉 고구려를 세웠다. 이에 압록강 유역에 먼저 살고 있던 주민의 일부가 다시 한강 유역으로 남하하여 백제 건국의 주도 세력이 되었다. 이들도 부여족이었기에 백제는 그 왕실의 씨성을 부여씨라고 했고, 부여의 건국 시조인 동명왕을 제사 지내는 사당인 동명묘를 설치하였다. 또, 6세기 중반 자신들이 남하하여 세운 국가의 이름을 남부여라고 하기도 했다. 이처럼 부여는 고구려, 백제 등의 예맥족계 국가들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고구려와 백제 모두가 부여

의 ‘별종(別種)’으로 불릴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가야 지역에서 나오는 귀가 돌 달린 청동술 등 북방 유목 민족이나 부여계의 유물들을 보건대, 부여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변화나 주민 이동 등이 한반도 남부에까지 미친 영향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을 듯하다. 고구려를 승계한 발해 역시 대조영이 “부여, 옥저, 변한, 조선의 땅과 바다 북쪽 여러 나라의 땅을 완전히 장악하였다.”라고 한 것을 보면 그 정신적 자산을 부여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송나라 때의 병서(兵書)로서 아직 그 사료적 가치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무경총요』에서는 발해가 “부여의 별종으로서 본래 예맥의 땅이었다.”라고 하여, 발해를 고구려와 백제처럼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곧 발해가 고구려 계승 국가임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렇듯 그 지배층의 분화와 발전 속에서 떨어져 나온 일부 세력 집단에 의해 고구려와 백제, 나아가 발해가 건국되었다는 점에서 부여사는 우리 나라의 고대국가 발전에 중요한 연원을 이루고 있고, 부여족은 한국민족을 형성한 주요 종족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부여족은 대체로 오랫동안 중국의 왕조들과 자주 교류하면서 친하게 지낸 반면에, 선비족 같은 북방의 유목 민족이나 고구려와는 세력을 다투면서 나라를 키웠다. 또, 주변의 동옥저나 읍루 같은 부족 국가들을 신하로 삼으면서 중국 동북 지방의 역사를 주도해 나갔다. 한(漢)시대가 지난 뒤에도 한동안 부여는 그 힘을 잃지 않았지만, 3세기를 지나면서 모용선비 같은 북방·서방의 유목 민족과 남방에서 성장하는 고구려의 틈바구니에서 결국 세력이 위축되고 말았다. 왕이 강한 힘을 가지고 지방 사회를 통제하는 고대국가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연맹체 국가 단계에서 멸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부여사가 한국 고대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크다.

# 부여의 나라와 사회

박선미 | 서울시립대학교 |

夫  
餘

**진** 시황이 춘추전국이라는 대혼란기를 종식하고 중국 대륙을 통일할 무렵,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과 부여가 지금은 중국 땅인 요령성과 길림성을 중심으로 융거하고 있었다. 부여는 건국 후 얼마 안 된 1세기경에 이미 왕호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였고, 곧이어 동쪽에 있던 읍루를 복속하여 공물을 징수하는 등 점차 세력을 키워 2~3세기에 이르러서는 전성기를 이루었다. 1세기 초부터 부여의 명칭이 중국 역사서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이 때부터 부여가 흉노나 고구려와 함께 중국의 한(漢)나라에 위협적인 존재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이 쓴 『사기』에 의하면, 전성기 부여의 강역은 사방 2천여 리에 달하고 인구는 8만 호였다. 당시 1호당 평균 65명이라는 연구 성과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더라도 총인구 50여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국가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위만조선 당시 인구 30만 명보다 훨씬 성장된 국가적 면모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 같은 부여의 흥성에 대하여 중국 고대의 역사가들은 “그 나라는 매우 부유하고, 선조 이래 남의 나라에 패해 본 일이 없었다(『삼국지』 「동이전」 ‘부여조’)”라고 기록하고 있다. 고고학적으로도 부여의 독자적인 문화인 포자연유형(泡子沿類型) 유적에서도 강성했던 당시의 모습이 확인된다. 포자연유형이란 아직 학계에서 상용화된 용어는 아니지만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까지 송화강 유역의 길림성을 중심으로 발달한 문화 유적을 말하는 것으로, 한식(漢式) 철제 농기구와 토기, 널무덤 등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길림과 송화강 일대에 분포해 있는 포자연전산(泡子沿前山), 서차구(西차溝)·노하심(老河深), 모아산(帽兒山) 및 동단산(東團山) 유적 등 다수가 있다. 이들 유

적에서 토기, 철제 농기구 등의 각종 생활 용구와 금·은·옥으로 만든 장신구, 청동 거울, 비단으로 만든 직물 등 세련된 금·은 세공품이 쏟아져 나와 화려했던 당시의 부여문화를 말해 주고 있다.

부여는 고조선과 마찬가지로 여러 소국으로 나뉘어 있다가 점차 합하여 연맹 왕국으로 발전하였다. 초기 부여의 정치 체제는 부족 연맹체적 성격을 지녔으나 차츰 왕권의 부자세습 원칙하에 안정된 통치 체제를 갖추었다.

부여에는 왕과 그 밑에 가축의 이름을 붙인 마가(馬加)·우가(牛加)·저가(猪加)·구가(狗加)와 대사(大使)·대사자(大使者)·사자(使者) 등의 관직이 있었다. 왕과 여러 가(加)는 나라에 중요한 일이 생기거나 영고(迎鼓)와 같은 국중 대회가 있으면 일종의 귀족회의체인 제가 회의를 열어 일을 의논하였다. 제가 회의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날씨가 고르지 못하여 그 해의 농사에 흉년이 들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 죽이거나 교체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초기에 왕권이 강대하지 못하고 아직은 공동체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왕은 주술적 능력을 지닌 제사장적 성격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렇게 초기에 왕은 제가들의 대표였으나 초월적 존재는 되지 못하였고 중앙 정부의 통제력도 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점차 사회 분화가 진전되어 감에 따라 왕권이 강화되어 갔으며, 3세기 전반에 이르러서는 왕위가 간위거(簡位居)-마여(麻余)-의려(衣慮)로 이어지는 부자 계승이 이루어졌다.

부여의 중앙 정부는 중앙에 왕성을 두고 전국을 사방으로 뻗어 있는 도로망을 통하여 자치적인 여러 부족 집단을 통할하였다. 이 큰 도로망을 사출도(四出道)라고 하였는데, 큰 지역은 수천 호, 작은 것은 수백 호로 이루어졌다. 수도인 왕성에는 궁궐, 성책, 감옥,

모아산에 있는 부여 중 후기의 귀족무덤



안악 3호분 주인공의 행차도 | 부여의 왕과 귀족도 전성기 때에는 이와 유사한 권위를 누렸을 것이다.





부여의 철창



부여의 철화살촉



부여의 말재갈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왕이 직접 다스렸다. 사출도를 비롯한 그 밖의 지역은 제가들에 의해 관리되었는데, 이들 가는 각기 사자(使者)라고 하는관리를 두어 자기 지역을 다스렸다.

부여의 왕성과 사출도를 통한 국가 경영 방식은 현재 부여 전기 왕성으로 비정되고 있는 길림시 용담산성(龍潭山城)과 동단산(東團山) 남성자 고성(南城子古城) 유적에 잘 나타나 있다. 남성자 고성은 길이 1050m의 불규칙한 타원형 토성으로, 서쪽에 표고 50여m의 동단산이 있고 동남쪽에는 모아산이 있는 형세로, 이 일대에서 괄은 있되 관이 없는 유곽무관(有柵無楯)의 무덤이 발견되어 부여의 왕성 경영과 그 지배 계급의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이들 성의 형태가 “성곽을 만드는데 모두 둥글게 하였으며 감옥과 비슷하다.”라고 한 『삼국지』 「동이전」 ‘부여 조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최근에는 남성자 고성의 규모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용담산성과 남성자 고성을 한 쌍으로 하여 남성자 고성을 궁성으로, 용담산성을 도성으로 보고 두 성을 합쳐 왕성으로 삼았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통치 체제가 정립되어 감에 따라 부여를 구성하는 주민들의 신분도 점차 분화되어 갔다. 중앙에는 왕과 귀족인 가(加)가 있었고, 읍락에는 호민(豪民)과 그 아래에 하호(下戶)로 불리는 평민이 있었다. 또, 최하층에는 노비가 있었는데 이들은 주인에게 예속되어 생활하는 천민층이었다.

지배 계급인 가는 호민을 통하여 읍락을 지배하는 한편, 자신의 관리와 군사력을 가지고



덕흥리 벽화고분의 고구려 여인들 | 부여 여인들의 옷차림은 어떠하였을까?

정치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중앙 집권 국가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차츰 귀족으로 편제되어 갔다.

호민은 지방에 살면서 상당한 재력을 보유한 유력자들이었다. 이들은 과거에 소규모 집단을 거느렸던 소족장 출신의 후예들로서, 일반민을 마치 노복과 같이 부리며 군림하였다. 그리고 집집마다 갑옷과 병기를 갖추고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무장을 하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거의 지휘를 받아 전쟁에 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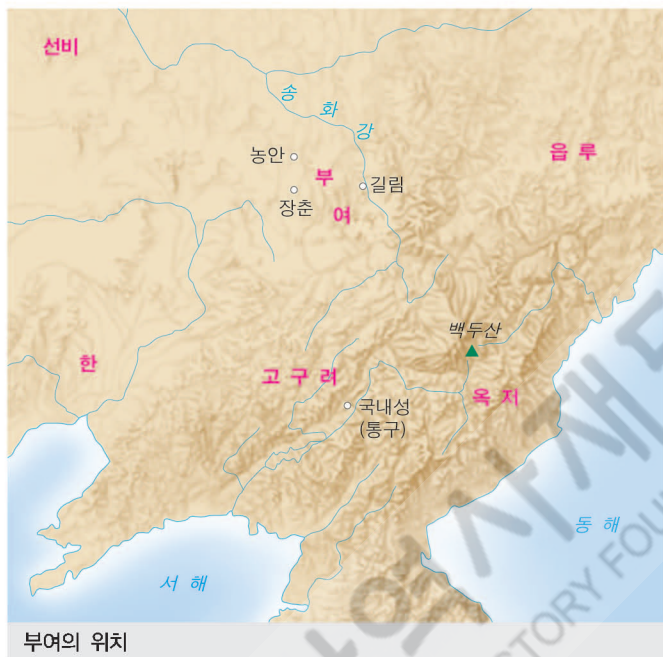
하호는 일반민으로서 호민에 의해 노복처럼 부려졌다. 신분적으로는 노예와는 다른 자유민이었지만 유력자들의 경제력을 통한 횡포에 의해 억압된 삶을 살았다.

노비는 가장 낮은 계급으로서, 대개 전쟁 포로로 노비가 되거나, 죄를 짓거나 귀족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하여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부여에는 이른바 ‘일책십이법(一責十二法)’이 있어서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만들었으며,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도 12 배의 배상을 물게 하였다고 하므로 당시에는 전쟁 노비뿐만 아니라 가난한 읍락민의 채무 노비화도 상당했을 것이다. 또, 이들 노비는 주인이 죽으면 함께 묻히는 순장에 희생되기도 하였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 수가 100여 명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노비를 노예나 농노, 또는 동방적 노예로 규정하고, 부여 사회를 노예제 사회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서양의 경우처럼 노예 제도가 경제 및 노동 조직의 기반이 되는 노예제 생산양식의 발달된 노예제 사회 모습은 아니었다.

신분 구조의 분화와 함께 부여를 구성하고 있던 각 읍락도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정치적 지위의 분화가 진전되고 있었다. 1980년과 1981년에 유수(楡樹) 노하심 유적이 대규모로 발굴, 조사되었는데, 이 유적에서 아동무덤과 남녀 합장무덤, 남자무덤, 여자무덤 등 모두 129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조사된 무덤을 고고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무덤은 크게 4등급으로 나뉘는데, 1·2등급은 철제 무기와 중국식 거울, 금동 장신구, 마구,



북부여의 한 갈래인 주몽 집단이 고구려를 건국한 환인의 흘승골성(오녀산성)



갑옷 등 화려한 부장품이 많이 꺼문혀 있어 최고 지배층의 면모를 보여 주는가 하면, 3·4 등급의 무덤은 한두 개의 철기나 장신구가 있거나 아예 부장품이 없는 것도 있어서 무덤 간에 큰 차이를 보여 주었다.

또, 근년에 길림시 일대의 모아산(帽兒山), 학고동산(學古東山), 서황산(西荒山) 등의 무덤 유적에서 물동이, 항아리, 굽점시 등의 토기와 공구, 거미구, 무기 등의 각종 철기와 청동기, 금·은·옥으로 만든 장식품, 명주(絹)·비단(帛)으로 만든 직물 등 화려한 부장품이 출토되어 계급 분화의 면모와 각 음락별 지위의 차이를 보여 주었다.

한편, 부여는 대외적으로 주변의 정세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주변 세력을 이용해야만 했다. 부여가 위치해 있던 송화강 유역은 사서에 기록된 바 그대로 넓은 평야와 호수가 많고 오탁이 잘 자라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다. 그런만큼 부여의 땅은 당시 주변 여러 나라가 탐낼 만한 매력적인 생활 공간이었다. 특히, 고대의 주요 교통로인 송화강 상류의 휘발하(輝發河)와 유희(柳河)를 끼고 있어서 서쪽의 중원 대륙과 동쪽의 연해주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기도 했다. 그러나 부여로서는 지형상 대평원 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외침을 방어하는 데에 취약하였다.

우리 나라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그리고 중국의 『삼국지』, 『사기』, 『후한서』 등 고대의 여러 사서에는 부여와 주변 여러 나라 간에 벌어진 전쟁과 밀고 당기는 외교 관



목단강에서 빨래하는 조선족 여인

련 내용이 많이 기록되었는데, 이는 부여의 지형학적 위치와 관련이 깊다.

당시 부여는 남쪽에 고구려, 동쪽에 읍루, 서쪽에 선비와 접하고 있었으며, 후기에는 나중에 여진으로 불리는 물길(勿吉)과 북쪽에서 국경을 접하게 된다. 부여는 이들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요동의 중국 세력과 제휴하였고, 중국도 부여-고구려, 고구려-선비의 결속을 예방하고 이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군사적인 성격이 강한 부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당시 중국에서는 한나라가 기원전 202년 진나라를 멸하고 진시황에 이어 중원 대륙을 두 번째로 통일한 후 주변 세력들을 규합해 나가고 있었다. 부여는 이러한 한나라와 정략 결혼이나 공수 동맹, 때로는 전쟁이라는 긴장 관계를 일으키면서 관계를 엮어 나갔다. 『삼국지』 『동이전』 ‘부여’ 조에는 부여가 기원후 49년을 시작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사신을 파견하고 인수(印綬)를 받는 등 한과의 우호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일련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또, 120년에는 위구태(尉仇台)가 부여 왕자로서, 136년에는 부여 왕으로서 직접 한나라를 방문하기도 했으며, 당시 요동의 지배자였던 공손도(公孫度) 집안의 여인과 혼인을 하였다. 244~245년에 유주(幽州, 지금의 북경)자사 관구검(毌丘儉)이 고구려를 침입하였을 때에는 그들에게 군량을 제공하였다.

한나라도 부여 왕의 장례에 쓰는 옥갑(玉匣)을 현도군에 미리 가져다 두었다가 장사 지내도록 하는 등 후하게 대접하였다. 중국인들이 주변 여러 나라에 대하여 기록한 고대 문헌에도 “고구려 사람들은 흥악하고 급하며 노략질하기를 좋아한다.”라고 하여 혹독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부여에 대하여는 “체격이 크고 군세고 용감하며 근엄, 후덕하여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거나 노략질하지 않는다(『후한서』 『동이열전』 ‘부여’ 조).”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부여와 한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한나라와도 대양 우호 관계만을 유지했던 것은 아니다. 부여는 한편으로 111년에 돌연 한나라의 낙랑군을 공격하거나, 167년에는 부여 왕 부태(夫台)가 현도군을 공격하는 등 긴장 관계를 조성하여 자신의 동아시아에서의 입지를 환기시키는 등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조율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여는 한나라는 물론 주변 여러 세력을 견제하기도 하였지만, 당시 선진문화를 보유하고 있던 한과 우호 관계를 통한 직접적인 교역을 함으로써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부여의 문화 유적에서 오수전을 비롯한 중국 화폐, 각종 한식 유물이 출토된 것은 부여의 이러한 대외 관계 전략이 성공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 유적에서는 북방 유목민의 문화인 동물무늬 장신구, 청동술(銅甗) 등도 출토되어 부여가 북방의 여러 종족과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원후 2세기 때의 부여와 주변 세계

부여는 이웃 나라였던 고구려와는 화친보다는 대립 관계에 있었다. 고구려는 기원전 1세기경에 부여의 주몽 집단이 남하하여 혼강(渾江) 유역을 포괄한 압록강 중류 일대에서 세력을 키운 후 졸본, 즉 지금의 요령성 동남부에 있는 집안과 환인 지역을 중심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에게는 “고구려는 부여의 별종”으로 인식될 정도로 말이나 풍속 따위가 부여와 같은 점이 많았다.

기원후 2세기경까지 부여의 국세는 상대적으로 늦게 건국된 고구려를 훨씬 능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초기 부여와 고구려의 관계는 다소 화친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듯하다. 『삼국사기』 권 13

「고구려본기」 ‘유리명왕 28년(서기 9년) 조의 기사를 보면, 부여 왕 대소가 고구려에 보낸 편지에 “우리 선왕이 그대의 선왕인 동명왕과 서로 사이가 좋았다.”라고 적고 있으며, 같은 책 ‘태조대왕 25년(서기 77년) 조와 53년(서기 105년) 조에 보이는, 부여가 고구려로 가는 사신을 통해 “뿔이 세 개 달린 사슴과 긴 꼬리 토끼를 보냈다.”거나 “호랑이를 보냈다.”라는 기사가 이를 잘 나타낸다. 특히, 121년에는 “고구려 태조왕이 부여에 있는 태후의 묘에 제사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꽤 우호적인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 분위기는 고구려가 점차 국가의 틀을 갖추고 세력을 확장해 가는 4세기부터는 전쟁으로 일관된 치열한 대립 관계로 선화하게 된다. 기원전 6년에 고구려의 태자 도절(都切)에 대해 볼모를 요구하고, 기원후 9년에 소국인 고구려가 대국인 부여를 섬길 것을 주장하였으며, 13년과 22년 두 차례 고구려를 공격하는 등 초기에 마찰을 빚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산발적인 충돌은 이후 전면전으로 전개된다.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은 122년, 346년, 410년 등 수차례 걸쳐 대규모로 지속되었으며, 마침내 494년 부여



부여와 경쟁 관계에 있던 고구려의 무사상(삼실총)

왕실이 고구려에 망명, 항복한 후에야 기나긴 대립이 끝을 맺었다.

그런데 부여의 대외 관계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된다. 즉, 부여 최후의 날을 맞아 부여 왕실은 우호 관계에 있던 중국을 외면하고 그토록 대립했던 고구려를 망명지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부여와 고구려 사이에 벌어졌던 대립의 일차적 요인은 서로 영토를 접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정복 활동이 많았던 시대적 배경상 충돌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서에 부여는 동이 지역에서 가장 넓고 평탄하며 오편이 자라기에 적당한 토질을 가진, 말 그대로 “젓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고, 고구려는 “깊은 계곡과 산이 많고 넓은 들은 없어서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식량이 항상 부족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고구려는 부여 땅을 끊임없이 갈구했을 것이며, 부여로서는 자신의 한 갈래가 세운 후발국인 고구려를 예측하에 두고자 대립했을 것이다. 그러나 고대사에서 이 같은 전투는 농경지의 확보와 같은 실리적인 문제가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다른 일면으로는 명분 역시 중요하였다. 여기서 부여와 고구려의 동일한 건국신화는 이들의 대립에 대한 실마리를 주고 있다. 요컨대, 권력의 신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여와 고구려가 자신의 정통성을 두고 서로 경쟁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멸망에 즈음해서는 중국보다는 고구려로의 귀의를 선택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건국 이후 400여 년 간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를 이룬 큰 축의 하나로서 국제 정세를 주도했던 부여는 3세기 후반 주변 여러 나라의 잦은 침입으로 인해 국세가 점차 기울기 시

작하였다. 남쪽에서는 고구려의 팽창 정책으로 인한 압박이 끊이지 않았고, 중국이 5호 16국의 혼란기에 들어가자 그 지역에 신흥 정치 세력들이 할거하면서 부여를 불편하게 했다. 이 중 몽고 유목민 중 하나인 선비족의 세력이 강성하였는데, 급기야 285년 선비족 모용의(慕容廆)에게 수도를 함락당하였다. 이 때 1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갔으며, 부여 왕 의려(依慮)가 자살하였고, 많은 왕족이 북옥저로 피란하였다. 또, 346년에는 백제로 표현되는 세력에 의해 공격당하여 수도를 서쪽의 연 가까이로 옮겨야 했으며, 수도를 옮긴 이후에도 전연 왕(前燕王) 모용황(慕容暉)이 보낸 대군의 침략으로 국왕 현(玄) 이하 5만여 명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 또, 410년에는 고구려 광개토태왕에게 동부여를 빼앗기고 64개 성, 1400개의 촌락이 파괴되었다.

자살한 의려를 이어 아들 의라(依羅)가 부여를 재건하고 옛 부여의 영광을 되살리고자 하였으나, 5세기 말 북쪽에서 물길이라는 새로운 집단이 흥기하면서 고구려와 상쟁을 벌이고 새롭게 압박해 오자, 부여는 동서남북으로 죄어 오는 고립무원의 형국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여는 점차 쇠락해져 고구려의 판도에 흡수되고, 마침내 494년 부여 왕과 그 일족이 고구려에 망명, 항복함으로써 건국 후 700여 년이라는 장구한 역사의 막을 내리게 된다.

이후 부여의 유민들에 관하여 중국 북제(北齊)의 위수(魏收)가 서술한 『위서』에는 부여의 잔여 세력이 지금의 흑룡강성 서남부 지역으로 옮겨가 두막루(豆莫婁)라는 나라를 세우고 부여말을 쓰면서 8세기까지 존속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부여는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갖춘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연맹 왕국의 단계에서 멸망하였지만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 중국의 고대사에 진시황의 진나라와 유방의 한나라가 있었다면, 우리나라 고대사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가 있었다. 고조선은 이미 기원전 3세기에 왕을 칭하면서 전국철웅 중 하나인 연나라와 세력을 겨룰 정도로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고, 부여는 기원전 2세기에 동명이 제2송화강 일대의 길림시를 중심으로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기원전 1세기경에는 고구려가 압록강 북안의 요령성 환인과 집안 일대를 중심으로 점차 정치 세력을 결집해 나가고 있었으니, 우리 민족의 역사는 고조선에 이어 북쪽에서는 부여와 고구려가, 남쪽에서는 백제와 신라가 그 역사의 바통을 넘겨받고 있었던 것이다. 바야흐로 우리의 역사 무대가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이라는 지금의 중국 동북3성 지역과 한반도라고 하는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는 그 순간에 부여가 있었다. 고대 역사가들은 이러한 부여를 494년 멸망 최후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동시대를 풍미했던 국가로 기록하고 있다.

# 부여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오강원 | 고구려연구재단 |

夫  
餘

**문** 현 기록에 의하면 부여는 기원전 2세기 북이 탁리국으로부터 망명한 동명 집단이 예왕(濊王)으로 상징되는 예맥의 땅에 건국한 후, 기원후 285년 모용연의 공격 이전에 전성기에 이르고, 기원후 494년 물길의 남하로 부여 왕이 부여민을 이끌고 고구려에 투항함으로써 멸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전성기 부여의 강역이 고구려 북쪽, 음루 서쪽, 선비 동쪽, 약수 남쪽의 사방 2천 리에 달하였고, 그 도읍이 심양~무순에 치소를 두고 있던 제3현도군 북쪽 1천 리에 있었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록에 의하면, 부여의 중심지는 지금의 길림시에 해당하고, 그 강역은 대체로 제2송화강 중류역의 길림성 중부 지대가 된다. 따라서, 기원전 2세기로부터 기원후 4~5세기 때 길림시를 중심으로 한 제2송화강 중류역을 부여의 범위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범위 내에서는 비록 부여 말기의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길림 중부 지역만의 독특한 철기시대문화인 이른바 포자연유형(泡子沿類型)의 유적·유물들이 확인되고 있어 고고학적인 면에서도 부여의 범위가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부여 관련 유적으로는 왕성, 군사 시설(성), 생활 유적, 무덤 등이 있는데, 대부분 부여 전기 왕성이 위치하고 있던 길림시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을 뿐이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밀집도가 낮은 편이다. 아무튼 문헌과 고고학적인 자료로 보아 부여는 기원전 2~1세기의 초기,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의 전기, 기원후 1~3세기의 중기, 기원후 4~5세기의 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초기에는 군사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던 반면 전기와 중기에는 사회 전반이 안정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시·공간상에 우리 민족사에서 두 번째의 국가를 이룸과 동시에 주변과는 차



길림시 동단산 남성자의 부여 왕성 추정지



포자연유형 전기의 대표 유적인 유수 노하심

별적인 사회와 문화를 건설하였던 부여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을까?

부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평등 사회가 아니었다. 그리고 사회가 아직 불완전하게 분화된 미성숙한 단계의 계층 사회이거나, 지배자의 권위가 한두 개의 하천이나 몇 개의 능선에 의해 구획되는 조그마한 공간에만 미치던 군장 사회도 아니었다. 비록 초기에는 군사 수장의 군사적인 카리스마에 의해 이끌어져 가는 군장 사회에 머물러 있었다 할지라도, 전기 또는 중기에는 불평등한 계급 사회인 엄연한 국가로서 성장하였다. 따라서, 부여 사람들의 삶도 계급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부여 사회는 국가를 대표하는 왕, 왕과 함께 광의의 통치 계급을 형성하고 있던 귀족(제가), 사회의 상층 구성원인 호민과 하층 구성원인 하호의 네 신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왕과 귀족을 하나로 묶어 지배 계층으로, 하호를 하위의 피지배 계층으로, 호민을 중간 계층으로 본다면, 세 개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왕은 왕성에 거주하면서 정사를 보았고, 귀족은 왕성 부근에 거처하면서 부여 경역 내 자신의 관할 구역을 관리하며 지냈으며, 하호는 생산과 부역에 종사하였다.

이 중 제가(諸加)로 상징되는 귀족들과 일정한 지위와 신분을 누리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호민들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평소 집집마다 갑옷과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군사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동명(東明)으로 상징되는 부여 건국 집단은 건국신화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 세워진 나라이고, 이러한 까닭으로 돼지를 숭상하던 길림 중부 지역의 토착문화인 서단산문화와는 달리, 부여의 경우 관직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말을 숭상하였던 것이다.



길림 지역의 토종 돼지



서단산문화 후기의 장사산 유적

부여 지배층의 군사적 성격과 강한 통치력은 초기와 전기의 무덤에 강한 개성을 지니고 있는 무기가 다량 부장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서차구(西岔溝)와 노하심(老河深) 무덤 유적을 들 수 있는데, 이들 무덤에는 일상 생활과 관련된 유물은 소량인 반면에 다른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여만의 칼, 즉 손잡이 끝에 수판알 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는 연령병식(連鈴柄式) 청동자루 달린 철검과 손잡이 끝에 새 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는 조형병식(鳥形柄式) 청동자루 달린 철검이 다량 부장되어 있었다.

그 밖에도 중국식의 둥근 고리 달린 철검과 나무 손잡이를 자루 맞추개에 따로 끼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납작 자루 맞추개의 철검도 부장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중국식 철검과 중국식 청동 거울, 동전 및 타날무늬토기 등을 통하여 부여와 중국 군현과의 교역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칼 외에 주요한 무기류로는 철창과 철화살촉이 있는데, 철창은 중국 제품을 그대로 수입하여 사용한 것과 제작 기술을 배워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이 있다. 또, 철화살촉은 도



서풍 서차구에서 출토된 칼



투구와 갑옷(유수 노하심)



부여 초기의 전사들이 사용한 그릇(서풍 서차구)



19세기 부리아트족의 활을 든 전사 | 부여의 궁수들은 어떠했을까?



부여 귀족의 귀걸이(유수 노하심)



신수패식(유수 노하심)



안악 3호분의 묘주 | 부여의 왕과 귀족도 전성기 때에는 안악 3호분 묘주와 유사한 성장을 하였을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겨울철 하얼빈의 제1송화강 | 부어를 세운 동명도  
이와 유사한 길로 내려왔을 것이다.



중국 거울(서한, 성운문경)

끼날 화살촉과 같이 부여 양식의 특징적인 유형이 잘 나타나 있다.

부여 지배층의 강한 통치력은 부여 지배층이 하호를 마치 노예처럼 다루었다는 것과 이른바 ‘일책십이법’이라고도 불리는 강력한 법의 존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부여법에 의하면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해

지고 그 가족은 노비가 되어야만 하였다. 이와 같은 지배력과 높은 생산성으로 부여의 지배층은 나라 안에서는 흰옷을 즐겨 입고 소매가 넓은 두루마기와 바지에 가죽신을 신었으며, 공식석상이나 외국에 나갈 때는 비단옷에 모피와 금·은으로 장식한 관모를 쓰는 등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부여의 지배층은 국가 형성 전 단계인 초기와 전기에 군사적인 성격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부여의 지배층은 강한 군사력과 군사적 결속력으로 여러 지역 집단의 수장들이 연결된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역이라는 경제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들은 요동군 및 현도군에 적절한 정치·군사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중국으로부터 철 소재와 최신의 철제 무기와 공구, 그리고 사치품(거마구류, 고급 그릇)과 위세품(중국 거울)을 얻어냈다.

이렇게 하여 부여 사회로 들어온 중국의 최신 물품을 자체적으로 소비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세계 문명의 성격을 띠고 있던 한(漢)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한의 최신 물품과 기술을 수용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북방의 여러 세력과 집단으로부터 수입 또는 모방하여 자체 제작한 물건, 그리고 부여 사회에 새로 수용된 기술을 중국으로 수출하기도 하였다. 부여 지배층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때 부여를 중국 동북 지역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것이다.

부여 지배층의 최고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왕은 안팎에 궁실, 창고, 감옥, 관청 등이 부속되어 있는 왕성에 거주하면서 통치를 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전기 왕성으로 추정되는 동단산(東團山) 남성자(南城子) 내외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유적·유물상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남성자성은 제2송화강 동안에 봉긋하게 솟아 있는 지표 높이 50여m의 동단산

자락에 판축 기법으로 토축되어 있는 불규칙한 타원형 토성으로, 환호가 시설되어 있는 성의 안팎에서 건물 터, 문양전과 같은 건축 관련 부속재, 고급 생활기명 등이 발견되어 이곳에 정치상의 중심지가 있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부여 왕은 전기까지는 군사적인 지도력과 귀족들을 통합하는 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왕의 지위에서 쫓겨나기도 하는 등 불안정한 면을 보였으나, 그 이후로는 부자 세습 체제가 강화되면서 국가의 상징으로서 화려한 생활을 하였다. 왕은 금·은이 장식된 왕관을 쓰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으며, 가슴과 허리에 각종의 황금·옥 장식물을 차고 정사를 보았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행차할 때에는 화려하게 장식한 수레를 타고 다녔고, 죽어서는 수많은 부장품과 함께 중국에서도 희귀한 옥갑(玉匣)이 입혀진 채 묻혔다.

왕 및 귀족과는 달리 호민과 하호는 거주 구역을 달리하여 살았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부여의 일반 사람들은 이 지역에 토착의 예왕으로 상징되는 예족 집단이 주로 구릉에 마을과 경작지와 무덤을 마련하였던 것과는 달리(구릉성 마을), 주로 강안의 충적 대지 또는 그에 연한 나지막한 둔덕에 마을과 경작지를 마련하여(저지성 마을) 생활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부여 사람들의 경제 행위가 이 지역의 청동기시대인들과는 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발달된 농경구의 존재와 들판이 강조되었던 정황을 통해 부여 사람들의 경제 행위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부여 사람들 중 생산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면서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던 하호는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다. 부여의 하호는 생산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면서도 자신이 경작하고 있는 경작지나 그로부터 수확된 수확물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하였는데, 이들 대부분은 호민이나 제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들로부터 노예와 다투는 처우를 받았다. 이들의 고단한 삶의 흔적은 무덤에서도 나타나는데, 화려한 귀족의 무덤과는 달리, 맨구덩이에 고작 토기와 석기 몇 점만이 부장되어 있을 뿐이다.

한편, 부여 사람들은 신분에 관계 없이 후기로 갈수록 생활 전반이 점차 한화(漢化)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생활상은 지배층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부여의 한화 정도는 이들이 단순히 물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과 의례적인 면에서도 중국과 유사한 형태로 바뀌어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중기의 대표 유적인 모아산(帽兒山)과 동단산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의 대부분이 중국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든지, 부여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중국인과 유사한 예(배작(拜爵), 세작(洗爵), 음양례(揖讓禮))를 행하였다는 데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 때문에 부여는 고구려처럼 강한 사회와 문화를 이룩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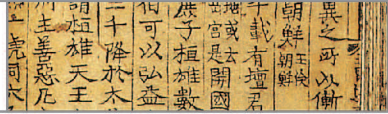
# 부록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동북아시아역사문화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사진 협조



## 1. 고전자료

### 1. 한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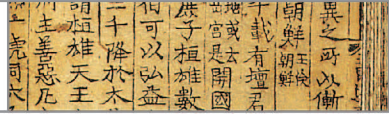
- 『삼국유사(三國遺事)』
- 『삼국사기(三國史記)』
- 『제왕운기(帝王韻紀)』
- 『응제시(應製詩)』
- 『동국통감계강(東國通鑑是綱)』
- 『해동이적(海東異蹟)』
- 『동국역대총목(東國歷代總目)』
- 『동사강목(東史綱目)』
- 『수산집(修山集)』
-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 2. 중 국

- 『춘추좌전(春秋左傳)』
- 『국어(國語)』
- 『관자(管子)』
- 『상서대전(尙書大傳)』
- 『산해경(山海經)』
- 『수경주(水經注)』
- 『전국책(戰國策)』
- 『논형(論衡)』
- 『일주서(逸周書)』
- 『사기(史記)』
- 『한서(漢書)』
- 『후한서(後漢書)』
- 『삼국지(三國志)』
- 『위략(魏略)』
- 『구당서(舊唐書)』
- 『신당서(新唐書)』
- 『통전(通典)』

### 3. 일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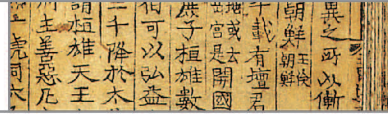
- 『일본서기(日本書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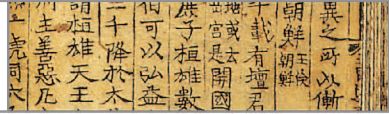
## III. 현대자료

### 1. 한 글

- 김정학 1954, 「단군설화와 토테미즘」, 『역사학보』 7.
- 도유호 1960, 「고조선에 관한 약간의 고찰」, 『문화유산』 4기.
- 도유호 1962, 「왕검성의 위치」, 『문화유산』 5기.
- 리상호 1963, 「단군고」, 『고조선에 관한 토론논문집』.
- 리지린 1963, 『고조선연구』(과학원출판사).
- 김정배 1968, 「예맥족에 관한 연구」, 『백산학보』 5.
- 전삼수 1968, 「고대 부여의 사회경제구성과 토지사유의 존재 형태」, 『논문집』 7(숙명여자대학교).
- 이기백 1970, 「부여의 투기죄」, 『사학지』 4.
- 김정배 1973, 「고조선의 주민구성과 문화적 복합」, 『한국민족문화의 기원』(고려대학교 출판부).
- 이병도 1976, 「단군설화의 해석과 아사달 문제」, 『한국고대사연구』(박영사).
- 이병도 1976, 「기자조선의 정체와 소위 기자팔조교에 대한 신고찰」, 『한국고대사연구』(박영사).
- 이병도 1976, 「위씨조선흥망고」, 『한국고대사연구』(박영사).
- 이병도 1976, 「낙랑군고」, 『한국고대사연구』(박영사).
- 이병도 1976, 「부여고」, 『한국고대사연구』(박영사).
- 김정배 1977, 「위만조선의 국가적 성격」, 『사총』 21·22.
- 김정배 1979, 「한국 청동기문화의 기원에 관한 소고」, 『고문화』 17.
- 이강승 1979, 「요령 지방의 청동기문화」, 『한국고고학보』 6.
- 박광용 1980, 「기자조선에 대한 인식의 변천」, 『한국사론』 6(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최몽룡 1983, 「한국 고대국가 형성에 대한 일고찰-위만조선의 예-」, 『김철준박사회갑기념논문총』.
- 김정배 1984, 「고조선의 제인식」, 『한국사론』 14(국사편찬위원회).
- 윤내현 1985, 「고조선의 사회성격」, 『한국고대의 국가와 사회』(일조각).
- 김정배 1986, 「한국고대의 국가 발달론」, 『한국고대의 국가기원과 형성』(고려대학교 출판부).
- 윤내현 1986, 『한국고대사신론』(일지사).
- 박진욱 1987, 「비파형단검문화의 발원지와 그 창조자에 대하여」, 『비파형단검문화에 관한 연구』(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서영수 1988, 「광개토태왕릉비문의 정복기사의 제검토(중)」, 『역사학보』 119.
- 이기동 1988, 「북한에서의 고조선 연구」, 『한국사시민강좌』 2(일조각).
- 서영수 1988,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시민강좌』 2.
- 노태돈 1989, 「부여국의 경역과 그 변천」, 『국사편년총』 4.
- 김두진 1990, 「단군신화의 문화사적 접근」, 『한국사학』 11(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노태돈 1990, 「고조선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한국사론』 23.



- 김정배 1991, 「두마루국 연구: 부여사의 연결과 관련하여」, 『국사관논총』 29.
- 이도학 1991, 「방위명 부여국의 성립에 관한 검토」, 『백산학보』 38.
- 이형구 1991, 「대릉하유역의 은말주초 청동기문화와 기차 및 기자조선」, 『한국상고사학보』 5.
- 국립중앙박물관·국립광주박물관 1992, 『한국의 청동기문화』(범우사).
- 김광수 1992, 「부여의 '대사' 직」, 『수춘박영석교수화갑기념논총』 1.
- 박경철 1992, 「부여사전개에 관한 재인식시론」, 『백산학보』 40.
- 최무장 1992, 「예맥과 서단산문화」, 『수춘박영석교수화갑기념논총』.
- 김현정 1993, 「부여의 성립에 대한 일고찰」, 『상명사학』 1.
- 박경철 1994, 「부여사의 전개와 지배구조」, 『한국사』 2(한길사).
- 이청규 1994, 「청동기, 철기시대의 사회와 문화」, 『한국사』 2(한길사).
- 오강원 1995, 1996, 「고조선 위치비정에 관한 연구사적 검토 (1), (2)」, 『백산학보』 47, 48.
- 윤내현 1995, 「부여의 분열과 변천」, 『상명사학』 3·4.
- 이건무 1995, 「한국식동검의 조립식 구조에 대하여」, 『고고학지』 7.
- 박경철 1996, 「부여국가의 지배구조 고찰을 위한 일시론」, 『한국고대사연구』 9.
- 오강원 1996, 「최근 제기된 북한학계의 평양설에 관하여-북한의 단군릉 발굴과 그에 관한 남북한학계의 논고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46.
- 송호정 1997, 「부여」, 『한국사』 4(국사편찬위원회).
- 오강원 1997, 「기북지역 유병식 청동단검과 그 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 고대의 고고와 역사』(학연).
- 오강원 1997, 「서요하상류역 청동단검과 그 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12.
- 오강원 1998, 「고조선의 패수와 패수」, 『강원사학』 14·15.
- 서영대 1999, 「단군신화의 의미와 기능」, 『산문사학』 8.
- 서영대 1999, 「전통시대의 단군 인식」, 『단군학연구』 1.
- 송호정 1999, 「고고학 자료를 통해 본 부여의 기원과 그 성장과정」, 『한반도와 중국 동북3성의 역사문화』(서울대학교 출판부).
- 오영찬 1999, 「유수 노하심 유적을 통해 본 부여사회」, 『한반도와 중국 동북3성의 역사문화』(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청규 1999, 「동북아시아의 다뉴경과 그 부장묘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 40.
- 김정배 2000, 「중국 동북지방의 지석묘 연구」, 『국사관논총』 85.
- 김정배 2000, 「동북아의 비파형동검문화에 대한 종합적 연구」, 『국사관논총』 88.
- 노태돈 2000, 「역사적 실체로서의 단군」, 『한국사시민강좌』 27.
- 박선미 2000, 「기원전 3~2세기 요동지역의 고조선문화와 명도전유적」, 『선사와 고대』 14.
- 서영대 2000, 「단군신화와 역사」, 『설화와 역사』(집문당).
- 서영대 2000, 「신화 속의 단군」, 『한국사시민강좌』 27.
- 송호정 2000, 「고조선, 부여의 국가구조와 정치운영」, 『한국고대사연구』 17.



송호정 2000, 「고조선 중심지 및 사회성격 연구의 쟁점과 과제」, 『한국고대사논총』 10.

오강원 2000, 「서단신문화의 권역에 관한 연구」, 『한국상고사학보』 33.

오강원 2000, 「중관지역의 초기철기문화=포자연식문화의 성립과 전개과정-부여문제와 관련하여-」, 『전환기의 고고학』 III(한국상고사학회 제24회 학술발표대회문집).

조법종 2001, 「고구려사회의 단군인식과 종교문화적 특징」, 『한국고대사연구』 21.

박선미 2001, 「요하 이동의 명도전유적과 연의 관련성 문제 검토」, 『전농사론』 7.

경기도박물관 2002, 『동과이』.

송호정 2003, 『한국고대사 속의 고조선사』(푸른역사).

송호정 2003, 「고대 부여의 지배구조와 사회구성」, 『강좌 한국고대사』 10.

오강원 2003, 「북한학계의 단군 고조선 연구 동향과 과제」, 『북한의 한국사 연구 동향』(1)(국사편찬위원회).

오강원 2003, 『비파형동검문화의 성립과 전개과정 연구』(정문연 박사학위논문).

단군민족통일협의회 2003, 『우리 민족의 원시조 단군』.

박경철 2004, 「부여사 연구의 제문제」, 『동북아시아 선사 및 고대사 연구의 방향』(학연문화사).

조법종 2004, 「중국학계의 동북 고민족 및 고조선 연구동향과 문제점」, 『한국고대사연구』 33.

송기호 2004, 「한국 고대사 속의 부여」, 『동아시아 속의 부여사』(한국고대사학회 2004년 하계학술발표대회문집).

신종원 2004, 「단군신화 연구의 여러 문제」, 『동북아시아 선사 및 고대사 연구의 방향』(학연문화사).

오강원 2004, 「요령지역의 청동기문화와 지역간 교섭관계」, 『동북아시아 선사 및 고대사 연구의 방향』(학연문화사).

오강원 2004, 「중국 동북지역 세 청동단검문화의 문화지형과 교섭관계」, 『선사와 고대』 20.

이성규 2004, 「중국 고문헌에 나타난 동북관」, 『동북아시아 선사 및 고대사 연구의 방향』(학연문화사).

## 2. 중 문

晏 琬 1975, 「北京, 遼寧出土銅器與周初的燕」, 『考古』 5期.

林 澧 1980, 「中國東北系銅劍初論」, 『考古學報』 2期.

張博泉 1980, 「漢玄菟郡考」, 『吉林大學學報』 6期.

靳樞毅 1982,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上), 『考古學報』 4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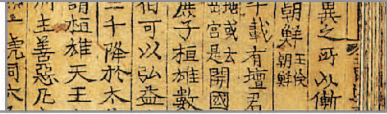
李健才 1982, 「扶餘的疆域和王城」, 『社會科學戰線』 4期.

武國勛 1983, 「夫餘王城新考」, 『黑龍江文物叢刊』 4期.

徐家國 1984, 「漢玄菟郡二遷址考略」, 『社會科學輯刊』 3期.

張博泉 1984, 「從東北出土殷周銅器說起」, 『遼寧文物』 6期.

李殿福 1985, 「漢代夫餘文化芻議」, 『北方文物』 3期.



- 張博泉 1985, 『東北地方史稿』(吉林大學出版社).
- 劉景文·龐志國 1986, 「吉林榆樹老河深墓葬群族屬探討」, 『北方文物』1期.
- 曲貴春 1986, 「古代穢靺研究」, 『史前研究』3·4期.
- 孫進己 1987, 『東北民族源流』(黑龍江人民出版社).
- 田 耘 1987, 「兩漢夫餘研究」, 『遼海文物學刊』2期.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1987, 『榆樹老河深』(文物出版社).
- 吉林市博物館 1988, 「吉林帽兒山漢代木槨墓」, 『遼海文物』2期.
- 王綿厚 1990, 「東北古代夫餘部約興衰及王城變遷」, 『遼海文物學刊』2期.
- 馬德謙 1991, 「夫餘文化的幾個問題」, 『北方文物』2期.
- 王綿厚 1993, 「“玄菟”與“新城”新解」, 『沈陽文物』1期.
- 張碧波 1997, 「朝鮮箕氏考」, 『社會科學戰線』6期.
- 張碧波 2000, 「關於歷史上民族歸屬與疆域問題的再思考—兼評“一史兩用”史觀—」, 『黑土地上的古代文明』1.
- 張碧波 2001, 「略談古朝鮮、高句麗研究中的疑點」, 『高句麗歸屬問題研究』.
- 李德山·樂凡 2003, 『中國東北古民族發展史』(中國社會科學出版社).

### 3. 일 문

- 日野開三郎 1946, 「夫餘國考」, 『史淵』34.
- 和田清 1950, 「魏の東方經略と扶餘城の問題」, 『東洋學報』32-3.
- 池内宏 1951, 「夫餘考」, 『朝鮮史研究』(上世篇).
- 三上次男 1966, 「古代の西北朝鮮と衛氏朝鮮國の政治·社會的性格」, 『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吉川弘文館).
- 武田幸男 1967, 「魏志東夷傳にみえる下戸問題」, 『朝鮮史研究會論文集』3.
- 秋山進午 1968, 「中國東北地方の初期金屬器文化の様相(上)」, 『考古學雜誌』53-4.
- 谷豊信 1968, 「樂浪郡の位置」, 『朝鮮史研究會論文集』(朝鮮史研究會).
- 白鳥庫吉 1970, 「檀君考」, 『白鳥庫吉全集』3(岩波書店).
- 白鳥庫吉 1970, 「夫餘國の始祖東明王の傳説に就いて」, 『白鳥庫吉全集』5(岩波書店).
- 今西龍 1970, 「檀君考」, 『朝鮮古史の研究』(國書刊行會).
- 井上秀雄 1974, 『東アジア民族史』(平凡社).
- 井上秀雄 1976, 「朝鮮の初期國家—三世紀の夫餘國」, 『日本文化研究所研究報告』12.

## 사진 협조



### 서영대

평양의 단군 사당인 승령전과 승령전의 내부(57), 묘향산의 단군굴(106) 묘향산의 단군대(107), 『무당내력』(91), 산동성 무씨사 화상석 그림(110), 『삼국지』 인용 「위략」의 부여 건국 신화(129)

### 송효정

황해도 은율 관산리의 탁자식 고인돌(41), 미송리형토기(42), 『삼국유사』 「고조선」 조(97), 북한이 개수한 단군릉(101), 요서 객좌현 고산 복동촌 청동예기 저장쟁 출토 유물(114), 부여의 왕성인 길림시 동단산 남성자(140), 길림시 동단산 남성자의 부여 왕성 추정지(156)

### 오강원

연나라의 도성 유적 연하도(21), 심양 정가와자 6512호 덧널무덤(26), 정가와자 출토 정가와자형호와 점토대토기(26), 개주 석봉산 탁자식 고인돌(27), 심양에 있는 정가와자 유적 기념관(36), 요동 지역에서 출토된 중국의 군사 유물(30), 요동 지역의 전국시대 연나라의 덧널무덤(30), 요동군 고현성지(31), 제3원도군 치소로 추정되는 무순 노동 공원 성지(32), 조양의 십이대영자 돌덧널무덤 유적과 출토 유물(34), 다뉴기히학문경 세부(37), 해상 석목성 탁자식 고인돌(38), 요동반도 남단의 강상 돌무지무덤의 바닥돌과 무덤에서 출토된 비파형동검(46), 대련 바닷가의 쌍터자 유적(47), 장하대영산 탁자식 고인돌(52), 요령성 출토 비파형동검(60), 금주 오금당무덤 출토 유물들(60), 요령성 능원현 우허량 홍산문화 유적과 출토된 토기들(69), 소파적 유적에서 바라본 비파형동검문화의 요람 대분화와 조양(72), 요동 북부 지역 전기 청동기문화인 마성지문화의 대표인 유적 본계 묘향산 동굴 유적과 유적 세부(74), 대화방유형 초기 단계의 돌널무덤인 본계 호구 유적(75), 몽고족 사머니즘과 제의 공간 오보(83), 『세종실록』 「지리지」(99), 부여 후기 중심지 중의 하나인 서풍 성산자산성(125), 부여 후기 중심지 중의 하나인 요월(125), 서단산문화의 토기와 석기(131), 대안 한서 유적(136), 대안 한서 2기층의 토기편(136), 대흥안령 산맥과 몽고족 마을(138), 포자연유형 전기의 대표 유적인 유수 노하심(156), 서단산문화 후기의 장사산 유적(157), 길림 지역의 토종 돼지(157), 부여 초기의 전사들이 사용한 그릇(158), 서풍 서차구에서 출토된 칼(158), 신수패식(159), 중국 거울(161)

### 이청구

요동 반도 남단의 강상 돌무지무덤의 바닥돌과 무덤 출토 비파형동검(46), 진주 대평리 청동기시대의 말 유적(49)

### 조법종

동북공정을 주관하는 중국사회과학원(82),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변경사지연구중심(64), 중국의 고구려 연구 전담반 간판(65), 『삼국유사』 「부여」 조(130)

### 강화군청 문화관광과 홍보팀

강화도 마니산에 있는 참성단(100)

### 문화재청

참성단(표지)

###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덕흥리 벽화고분의 고구려 여인들(147), 인악 3호분 벽화분의 묘주(159)

### 시몽 포토에이전시/무경, 심한근, 전성영

요동 지역 청동기문화의 깃줄 태자하(24), 고인돌문화의 요람지 벽루하 유역(38), 요동 지역 고대문화의 요람 요하(74), 부여의 숨결이 살아 있는 송화강변의 길림시(122), 눈강 유역의 송는 평원(132), 모아산에 있는 부여 중후기의 귀족무덤(143), 목단강에서 빨래하는 조선족 여인(150), 북부여의 한 갈래인 주몽 집단이 고구려를 건국한 환인의 흡승굴성(148), 겨울철 하얼빈의 제1송화강(160), 북부여의 주몽 집단이 고구려를 세운 환인의 혼강 유역(168), 북옥저와 동부여의 고지 연변 지역의 조선족 사람들(170)

### 연합뉴스

준왕과 위만조선의 왕성이 있었던 평양(33) 동명왕릉(167)

### 우리 민족의 원시조 단군

한 군현이 설치되었던 신천의 청산리 토성(13), 북한의 개수된 단군릉(23), 평양 남경 유적과 탄화미(48), 아달산(55), 구월산 삼성사의 삼성전(82), 단군이 앉았다는 전설이 깃든 구월산의 단군대(107), 평양 토성동의 낙랑군 치소성(116)

### 정신세계사(바이칼) 한민족의 시원을 찾아서

부리아트 몽고족의 무당(84), 북방 사머니즘문화의 요람 바이칼 호수(92), 19세기 부리아트족의 활을 든 전사(158)

### 중앙국립박물관

한국 출토 세형동검(10), 다뉴기히학문경과 세형동검(33), 한국 출토 세형동검 단계 다뉴기히학문경과 의기류(43), 서북한 지역 세형동검 관련 유물(69)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왕운기』에 실려 있는 고조선, 단군에 관한 기록(11, 98), 『삼국유사』 「고조선」 조에 실려 있는 단군에 관한 기록(16), 1930년대의 단군릉(23), 단군 영정(85), 『구암유고』의 기사 정전도(113)

### 일러스트

최주현

### 정보그래픽(지도)

이정숙

## 고조선·단군·부여

2004년 10월 30일 초판 1쇄 인쇄  
2004년 11월 5일 초판 1쇄 발행  
2005년 5월 16일 재판 1쇄 발행

저작권자 고구려연구재단  
펴 낸 이 김정배  
펴 낸 곳 고구려연구재단  
인 쇄 신생보훈복지인쇄조합

등록 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26-1 일흥빌딩 5층  
전화 02-6260-2600  
팩스 02-6260-2698  
<http://www.koguryo.re.kr>

비매품  
ISBN 89-914 48-02- × 03910